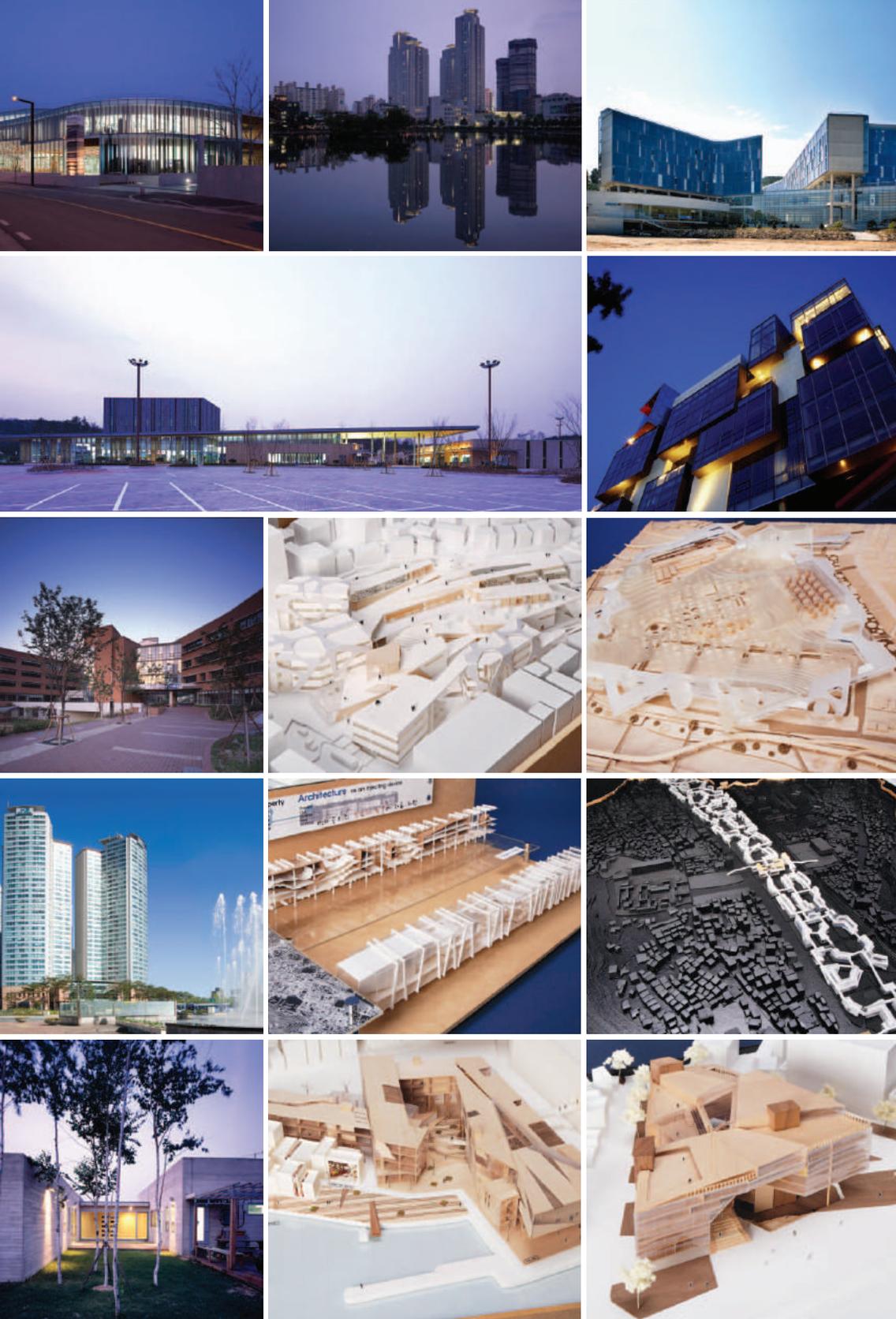


대한건축사협회
 주소 : 서울시 서초구 서초1동 1603-55 건축사회관 우편번호 : 137-877
 전화 : 02-581-5711~4 팩스 : 02-586-8823 E-mail : gods@kira.or.kr
 http://www.kira.or.kr

건축사

K O R E A N A R C H I T E C T S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 vol.462 / October / 2007



07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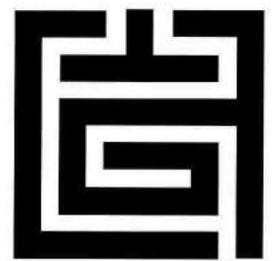
- 칼럼
2007 건축사대회를 마치고
- 시론
왼쪽(左)과 오른쪽(右)의 숙명성
- 특집-2007전국건축사대회
- 특집-2007한국건축문화대회
- 준공건축물부문 수상작
덕평자연휴게소
파주 응진생크릭 사옥
더샵 스타시티
배재대학교 국제언어생활관
대동중학교
논현동 의화빌딩
용산파크자이
양익재(兩翼齋)
- 계획건축물부문 수상작

포스터디자인 : 2007 한국건축문화대회 수상작

협회의 상징!

휘장의 올바른

사용을 위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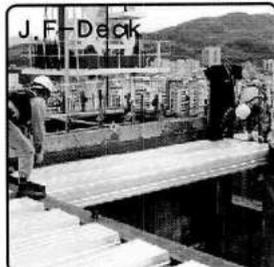


간혹 공적 혹은 사적으로 협회의 휘장을 사용할 때
협회의 상징인 '휘장'의 모양이 올바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휘장은 우리나라 건축사, 대한건축사협회의 상징이므로 올바르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휘장은 협회의 상징(Symbol mark)으로서,
도안에 응용된 「ㄷ, ㄱ, ㅎ」은 대한건축사협회를 뜻하며
전체적인 모양은 건축적 분위기가 짙은 한국의 고유한 완자무늬로부터 착상되었습니다.

- 조달청 우수제품 인정서 취득
(제 2005-153호)
- 산자부기표원 EM MARK 취득
(2005-046호)
- 대한건축학회인증
- 한국구조기술사회인증



(주)제일테크노스
<http://www.jeil21c.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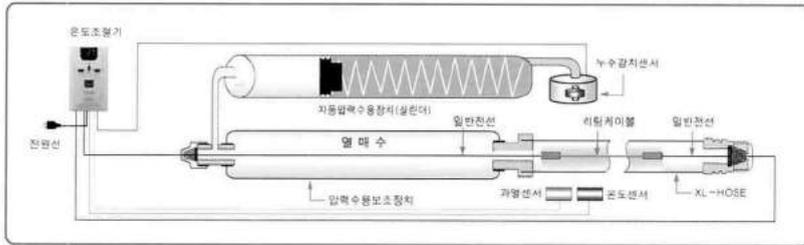
본사 _____
경북 포항시 남구 장흥동 1850번지 (철강공단 2단지)
TEL : (054)278-2841(代) / FAX : (054)278-2917

서울 사무소 _____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52-6 남도빌딩 5F
TEL : (02)555-2055(代) / FAX : (02)554-1476

아직도 초절전 온수관 보일러 하자때문에 망설이십니까?

최고 70%
연료비 절감

초절전 온수관 보일러 "3 ZERO" 제품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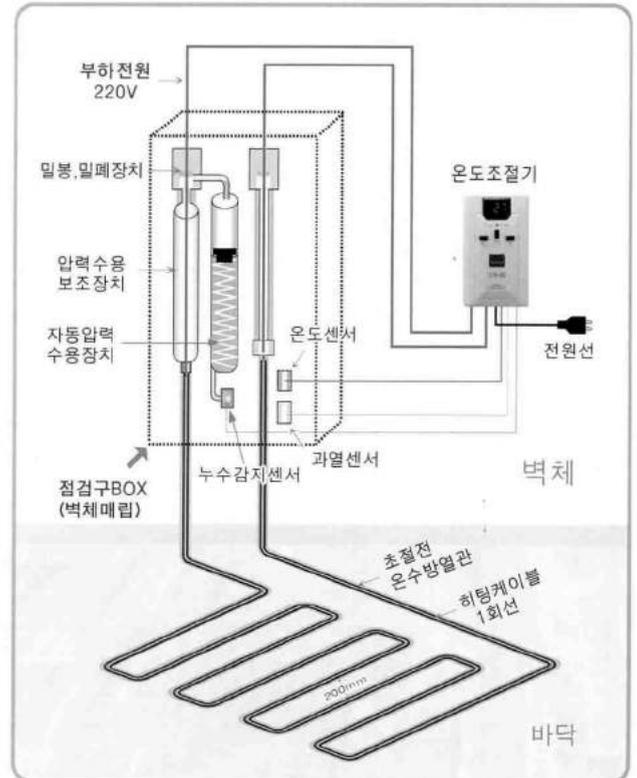


가열수인 보일러나 온수의 강제순환 수단인 **순환모터 없이**, X-L내 전열선의 발열로 인한 온수와 증기(액체와 기체) **2상 매체를 이용한 난방기술**

● 점검구박스 (벽체매립형)



● 시공도



초절전 온수관 보일러 5중 안전 장치

X-L파이프속에 히팅케이블을 삽입하여 난방하는 제품은 여러종류가 있으며 기본개념은 거의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품은 X-L양끝을 완전 밀봉하고 실리콘속으로 전열선이 통과하고 X-L관 밖에서 전열선과 전원선을 결선하고 압력수용장치를 구비하지 않아 온수관의 온도가 상승하며 온수관내의 압력이 높아 지므로 온수관내의 압력과 밀폐장치 실리콘의 과열이 동시에 복합적으로 작용하므로 밀폐장치 실리콘을 통하여 온수관의 열매수는 서서히 누수가 발생되어 사용기간이 길어지면 온수관의 열매수 부족으로 고장으로 연결된다.

※ 초절전 온수관 보일러 3ZERO는

- 1. 밀폐장치 실리콘의 과열을 근본적으로 차단**
→ 밀폐장치인 실리콘속으로 일반전선을 삽입통과시켜 온수관내에서 전열선과 결선됨.
- 2. 압력수용장치 채택**
→ 온수관내의 온도상승으로 온수관의 내압이 높아지면 자동압력수용장치에서 자동으로 온수관의 내압을 흡수하였다가 내압이 낮아지면 다시 투입하므로 온수관내에 압력이 높아져 온수관이 파괴되는것을 완전 차단하였다.
- 3. 누수감지센서 장착**
→ 밀폐장치인 실리콘의 과열과 온도상승으로 발생하는 내압으로 인한 누수를 100% 차단하였고 압력수용장치의 팽킹에 하자가 발생하여 누수가 20cc발생해도 압력수용장치에 부착된 누수감지센서가 작동하여 온도조절기 전원을 차단시켜 고장을 사전에 예방한다.
- 4. 압력수용 보조장치**
→ 압력수용장치내의 스프링고장으로 압력수용장치내로 이동되었던 열매수가 복원되지 않아도 압력수용 보조장치에 저장된 열매수가 자동 공급되므로 온수관이 열매수부족으로 하자가 발생하는 것을 완전 차단 하였습니다.
- 5. 점검구박스 벽체 매립형**
→ 점검구박스를 벽체에 매립하므로 방바닥에서 점검구박스 높이 만큼 온수관내에 전원선을 투입하므로 투입된 전원선의 길이만큼, 팽창탱크 역할을 하므로 더욱 더 안전해졌습니다.

● 밀폐장치 실리콘이 과열되지 않고 내압을 받지않으므로 밀폐장치 실리콘은 처음 시공할때나 건물 수명이 다할때까지 모양이나 형상이 변하지 않으며 온수관내에는 열매수를 100% 투입하므로 온수관의 높이 차이로 인한 하자가 발생하지 않으며 누수감지센서를 부착하여 미량의 누수만 발생해도 온도조절기 전원을 차단하므로 고장을 사전에 예방 하였으며, 점검구박스가 벽체에 있으므로 모든 하자나 점검은 점검구박스 뚜껑만 열면 해결되고 관리자가 모든 A/S를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충판 및 지역대리점 모집 : 055)338-9280



삼성 Hi-tec
초절전온수관온돌난방시스템
www.sj-hitec.co.kr

본사 : 경남 김해시 주촌면 선지리 227-1
TEL : 055)338-9280 FAX : 055)338-9284
서울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20-2 대훈B/D 3층 TEL : 02)552-5427
공장 : 경남 김해시 주촌면 선지리 227-1

SMART PARKING®



“좋은 주차기를 선택하는 기준”

- 조작이 쉬운가?
- 잔고장이 없는가?
- 소음없이 조용한가?
- 도시 미관에 어울리는가?
-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가?



동양PC의 SMART PARKING은
유럽안전규격인 CE마크를
획득한 제품으로 유럽 등지에
수출하는 주차기입니다.

화장실 위치로 인해 설치에 문제가 있으시다면 제트 진공 수세식 시스템으로 해결하세요...

● 리모델링을 위한 신기술

건물 슬라브에 타공없이 배관 설치 가능
다른 층에 공사로 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음
리모델링시 화장실 위치는 어떠한 곳에도 가능

● 건물 지하층 화장실 설치 가능

진공을 이용한 상향식 배관으로 지금까지 지하층 화장실 설치 시 필요했던 우수저장탱크가 필요없어 지하층 공간을 타 용도로 활용가능하며 공사 시 공정 축소

● 상수도 보호구역 설치 용이

오, 폐수를 버릴 수 없는 상수도 보호구역에 설치 시 기존 수세식 화장실에 비해 우수량, 수거비용 1/10로 절감

● 초절수 시스템

1회 수세 시 청수 1리터 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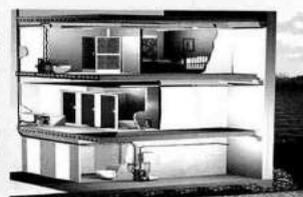


납품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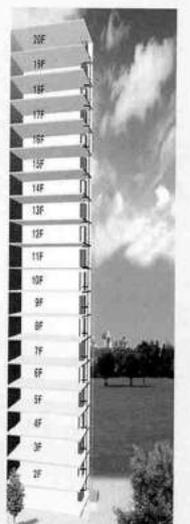
현대/기아 자동차 양재동 본사 사옥, 현대자동차 마북리 환경연구센터, 태안 국립공원 학암포해수욕장 공중화장실, 부산대학병원 감마나이프실, 서울 상도 장로 교회, 중국 북경 공중화장실, 피자헛 부산 대대포지점, 한진중공업 영도 / 다대포 / 울산 조선소, 한강 세모 유람선, 인천시 용유/무의/실미도 해수욕장, 한강 난지 공원, 제주시 봉개동 체육공원, 치악산 국립공원 야영장 등



이동식 화장실



지하층의 화장실



고층 건축현장 임시화장실

◆ 세계8개국 발명특허 획득



국가에서 인증한 초절전 온수관 보일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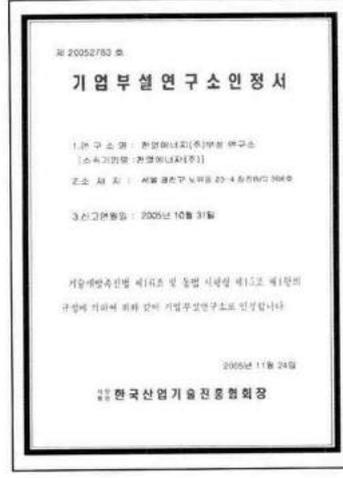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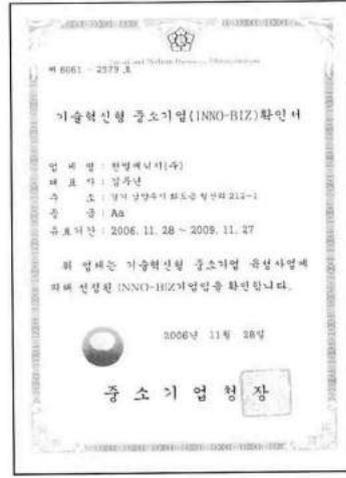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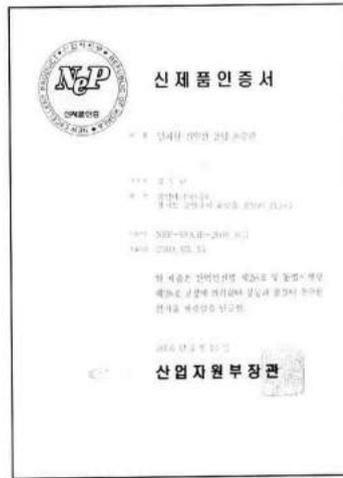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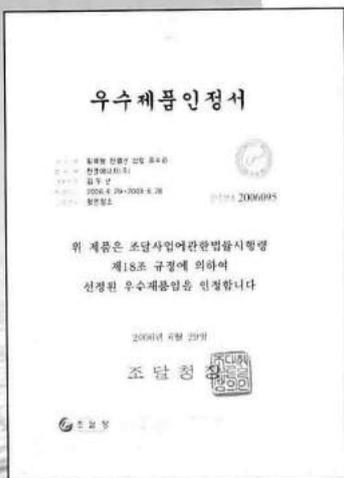
CY 밀폐형 전열선 삽입 온수관

모양은 흉내 낼 수 있어도 기술은 흉내 낼 수 없습니다.



가스 1년 난방비로 2년이상 난방!
온수배관 자체가 보일러인 초절전 온수관 난방시스템!
일반용 전력으로 심야 전력기기보다 저렴한 난방!
필름, 온돌히터 전력량의 1/3로 난방 가능!

1. 세계에서 제일 안전하고 에너지 소비가 적은 고효율 전기 난방(초기전력량 40w/m²H)
 1) 밀폐한 X-L온수관 내부에 저온의 복수발열선을 응용, 온수와 증기 2상 매체의 잠열로 제자리에서 **열 손실 없이** 비축열을 증가 난방 하도록 활용한 **초절전 난방 기술!!**
 2) 난방전력이 **냉방전력보다 적음**으로 **절체방식**으로 사용하면 **기본 요금과 증설(변전시설)이 불필요**
2. 세계에서 제일 저렴하고 간편한 시설, 관리비 없는 영구적 난방 시스템(내구연한 30년 이상)
 열매수를 이용 **전자파 차단효과**를 가져온 **편리한 중앙집중식 개별 난방 시스템!**
3. 보일러 없이 밀폐한 온수관내에서 열매수를 직접 가열·난방하는 방법과 장치
온돌배관 IN OUT 점검BOX에서 열매수와 전열선을 삽입, 교체, 보충, 밀폐와 A/S를 **가구 이동없이** 시공하는 **세계 최초의 발명 특허 시스템**



- 당사 초절전 온수난방관(온수관보일러)은 발명특허임으로 무단 사용시 특허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유사제품, 1가닥 발열선 난방방식은 표면온도가 80℃를 초과하여 X-L온수관이 녹거나 탑니다.

※참조"전기설비 기술기준령 제 255조(전기온돌등의 전열장치의 시설)5항 발열선은 그 온도가 80℃를 넘지 않도록 시설할것.

CYC 천열 에너지(주)
 CHUNYUL ENERGY Co., LTD

서울본사 : 서울시 광진구 노유1동 23-4호 청진빌딩 305호
 본사공장 :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월산리 212-1
 대표전화: 02)463-1031 팩스번호 02)463-1041
 홈페이지 : www.chunyul.co.kr E-mail : 1010cy@paran.com

세·계·최·초·독·자·모·델·로·대·한·민·국·을·대·표·하·는·주·차·기·가·되·겠·습·니·다.

미노타리식 입체주차장치

실용신안등록 제20-0190325호

실용신안등록 제20-0246310호

실용신안등록 제20-0329557호



6年이 걸렸습니다.
턴테이블 내장형
개발완료!
시판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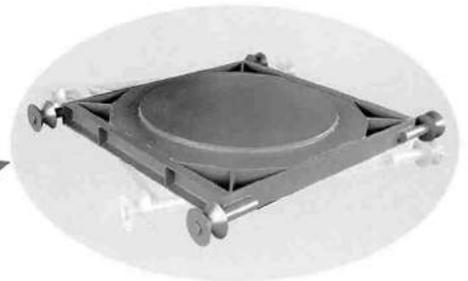
"2006 한국건축산업대전 참가전시관경"

기술혁신이

품질향상과

가격혁명을

세계적 특허방식인
유압리프팅 구동방식의 **新메커니즘**



자매품 Pit를 파지 않고 2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 특허품 2단주차기도 있음. (인정번호: 대구 제4-25호)

■ 이렇게 다릅니다.

- 구동부가 간단하여 구동효율이 높아 성능은 향상되고 소음, 진동은 대폭 줄였습니다.
- 정밀가공 및 JIG 이용 제작으로 완벽한 성능을 보장합니다.
- 도면, 사양 등 상세정보는 인터넷 주소창에 한글로 "주차"를 입력하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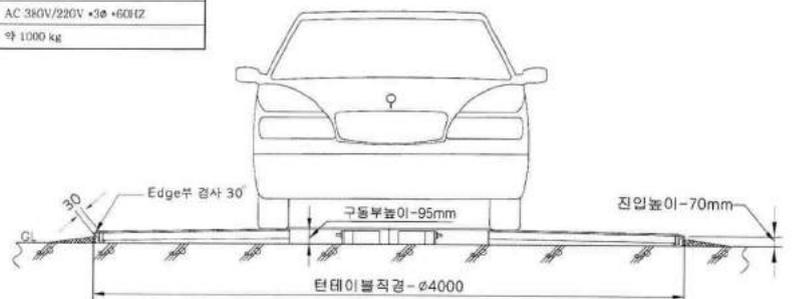
■ 사양 (뉴그랜저급 진입가능)

모델명	수용대수	주차기 폭(最小)	주차기 길이(最小)	소요높이(最小)
SKY PARK-5	5대	4570	6090	6830
SKY PARK-6	6대	4570	6090	7720
SKY PARK-7	7대	4570	6090	8600
SKY PARK-8	8대	4570	6090	9380
SKY PARK-9	9대	4570	6090	10390
SKY PARK-10	10대	4570	6090	11280
SKY PARK-11	11대	4570	6090	12170
SKY PARK-12	12대	4570	6090	13060

▼ 자매품 지상설치형 턱테이블 - 피트(pit)를 파지 않고 지상높이 70mm!

명칭	상세내용
수용 차량	정공턴테이블(선형) 중소형 승용차(상승 2000kg 이하)
구동방식	구동방식: 바퀴 구동식
구동모터	구동모터: 0.15 KW x 4P = 3개
회전속도	회전속도: 약 1 RPM
조작 방법	PUSH BUTTON
입력 전원	AC 380V/220V +3ø +60HZ
자체 중량	약 1000 kg

실용신안등록 제20-0233726호



아주 특별한 주차기회사
(株)창공駐車産業
www.Juchagi.com
한글도매인: 주차

본사·공장: 경북 칠곡군 지천면 연화리 64번지
전국 대표전화
(상담, A/S) **1544-3335**

- E-mail: cgp210@kornet.net
- 서울사무소: 서울시 마포구 망원1동 385-2번지 1층
- 부산사무소: 051)303-2296
- FAX: 054)973-0067
- A/S: 02)323-4448
- 광주연락소: 062)942-6923

삼정테크파크킹

▶ 엘리파킹(엘리베이터 방식)

타워 중앙에 자동차용 승강기를 설치하고 승강기 좌우로 자동차를 이동시켜 주차하는 방식입니다.

▶ 박스파킹(다층순환방식)

리프트의 승강장과 컨베이어의 횡행원리를 이용한 방식으로 파레트를 일렬로 배치하여 승강 및 횡행을 반복하여 입출고하는 방식입니다.

▶ 카트파킹(평면왕복-파레트방식)

파레트 방식으로 승강과 주행이 동시에 합으로써 입출고 시간이 대폭 단축되고 승강 리프트를 추가하여 조합 운영할 수 있으므로 출입구 설치가 매우 용이합니다.

▶ 스쿼어파킹(수평순환방식)

주차공간에 파레트를 평면상에 2열로 배열하고 리프트의 승강장과 횡행 및 종행 작동에 의해 입출고하는 방식입니다.

▶ 트롤리파킹(평면왕복-무파레트방식)

승강 리프트와 주행 대차의 조합으로 구성되어 입출구 위치의 유연한 배치가 가능합니다.

▶ 트랜스파킹(승강기슬라이드방식)

트랜스모가 승강 및 주행을 동시에 행하면서 주차전층에 자동차를 입출고시키는 방식입니다.

▶ 타워파킹(수직순환방식)

기존 타워 형태 중 공간 효율성이 가장 높은 방식이며, 연속 입출고시 최고의 효율을 발휘하므로 백화점, 영업용 주차장 등에 매우 유용합니다.

▶ 셔틀파킹(평면왕복-초고속형)

컴퓨터로 제어되는 무인 고속 리프트와 고속이동 대차에 의해 파레트에 놓여진 자동차의 입출고와 주차가 이루어져 지하 공간 효율이 극대화, 입출고 시간의 최소화, 유지 보수 비용의 절감 등 사용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미래형 대규모 수용 파킹 시스템입니다.

▶ 로터리파킹(수직순환방식)

수직무한체인에 차량을 적재할 수 있는 케이지를 연결하여 수직으로 순환시키는 장치로 기존의 타워파킹에 비해 소형 경량화시켜 최대 12대까지 수용할 수 있도록 개발된 신개념의 주차설비입니다.

▶ 프리파킹(경량철골자주식)

조립식 경량 철골을 이용하여 설치하는 주차장으로, 주차 공간을 수시로 활용할 수 있으며 조립 해체가 용이한 경제적인 주차 시스템입니다.

▶ 주차관제

병원, 유원지, 주차빌딩, 쇼핑센터 등의 주차장에 설치되어 주차요금징수업무 자동화는 물론 차량 흐름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통제해주는 시스템입니다.



한국브랜드대상

주차기술 30년 삼중테크! 비교를 거부하는 “신뢰”를 드립니다.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72 동영문화센터빌딩 9층
TEL. 02)568-3942 FAX. 02)568-1795
http://www.samjungtech.co.kr

- ▶ 창원공장 : 경남 창원시 신촌동 69번지
- ▶ 김포공장 :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초원지리 542-2
- ▶ 부산지점 : 부산광역시 진구 전포2동 660-1 한신벤오피스텔 1120호
- ▶ 대구지점 : 대구광역시 서구 종리동 1056번지 삼성물산 대구지점
- ▶ 광주지점 : 광주광역시 남구 방림2동 550-7
- ▶ 대전지점 : 대전광역시 유성구 봉명동 535-6 유성현대리조트 911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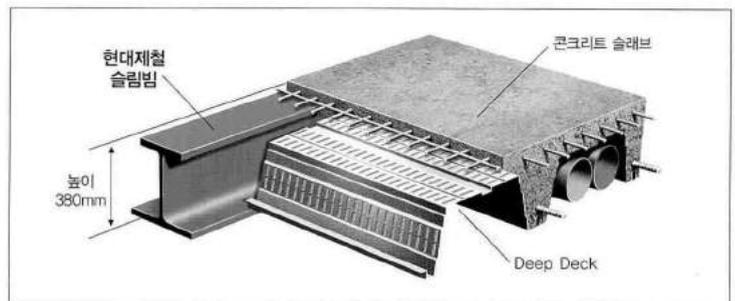
- TEL. 055) 285-3410
- TEL. 031)981-2297
- TEL. 051)811-2268
- TEL. 053)550-1150
- TEL. 062)366-2177
- TEL. 042)822-8819

달콤한 차이! 한 층의 차이가 보입니다

건물 높이 제한 때문에 고민하셨습니까? 층고 때문에 고민하지 않으셨습니까?
층고를 줄여 10층 높이에 11층을 지을 수 있는 혁신적인 플로어 솔루션인 슬림
플로어 공법. 현대제철이 함께 합니다. 현대제철 '슬림빔'은 국내 최초로 개발
된 압연 비대칭 H형강으로 공사비와 공사기간은 썩~ 줄이고, 임대면적과 수익
률은 확~ 늘려 드립니다.



슬림플로어 공법



슬림플로어 공법은 춤이 깊은 데크플레이트를 슬림빔의 하부플랜지 위에 위치시켜 작은 철골보를 생략함과
동시에 층고를 줄이는 층고절감공법입니다. 현대제철 '슬림빔'은 하부플랜지가 상부플랜지보다 긴 압연 비대
칭 H형강으로 국내 최초로 현대제철에서 개발한 혁신적인 제품입니다.

국내 적용 사례



오피스
삼성화재 청량리 사옥



지하주차장
죽전민지역사 신세계백화점



지상 자주식 주차건물
한국산업기술대학교

현대제철 슬림빔 - 이것이 다르다



More Floors

- 층당 25~40cm 층고 절감으로 10개층에 1개층 추가 가능
- 분양면적, 임대면적 증가로 사업성 향상



Cost Down

- 작은 보 생략으로 철골량 30% 감소
- 층고 절감으로 내외장재 비용 5~10% 절감
- 철골보의 하부플랜지만 내화피복 필요, 70% 비용절감



Fast Construction

- 철골량 감소 및 양중 수 감소로 제작 설치 기간 30% 단축
- 지하층에 적용시 토공사량 감소

Contents

47



59



62



73



건축사
korean architects

차례 2007 10 462호

칼럼	2007 건축사대회를 마치고	강희달	14
시론	왼쪽(左)과 오른쪽(右)의 숙명성	진영서	16
건축만평		유원재	18
특집	2007전국건축사대회		19
특집	2007한국건축문화대상		25
	준공건축물부문 대 상_덕평자연휴게소	인악식	46
	피주 웅진생크빅 사옥	정승권	54
	더 샵 스타시티	박용민	62
	배재대학교 국제언어생활관	박인수	70
	본 상_대릉중학교	김정철	76
	논현동 의화빌딩	류재은	82
	용산 파크자이	이원교	88
	양익재(兩翼齋)	안우성	94
	계획건축물부문_대상, 우수상, 특선		101
건축기행	미국 뉴욕 건축기행(2)	민윤기	114
건축마당	협회소식		121
	건축계소식		125
	통계		126
	해외잡지동향		128
	백민석_책을 말하다		132

발행인 한명수
 편집위원 조원웅(편집국장), 민규암·김형수
 취재·편집 최락창 팀장
 발행처 대한건축사협회
 주소 서울시 서초구 서초1동 1603-55 건축사회관
 우편번호 137-877
 전화 대표 (02)581-5711-4
 팩시밀리 (02)586-8823
 인터넷 http://www.kara.or.kr
 인쇄 (주)현대문화사 Tel. (02)2278-4482
 광고문의 홍보편집팀



79



87



88



99

Column

After the Congress of Architects Kang, Hui-dal 14

Focus

Fatalistic Allelomorph between Left and Right Jin, Young-seo 16

Cartoon Yoo, Won-jai 18

Special Issue Congress of Architects 2007 19

Special Issue Korean Architecture Awards 2007

Prize Work_ Professional Part 25

Grand Prize_ DeokPyeong Service Area 46

Paju Woongjin Thinkbig 54

The# Star City 62

P.A.I.T.E.L 70

Superior Prize_ Daeryong Middle School 76

7th Heaven Building 82

Yongsan Park Xi 88

Yang-ik jae 94

Prize Work_ The Submitted part 101

ARCHITECTURE TRAVEL

Contemporary Architecture in New York(2) Min, Yoon-ki 114

Architects' Plaza

Kira News 121

Archi-Net 125

Statistics 126

Overseas Journal 128

Book Review 132

Publisher Han, Myung-soo
 Assistant Editor Cho, Won-yong & Min, Gyu-am & Kim, Hyung-soo
 Editor Choi, Rak-chung
 Publishing Office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Address 1603-55, Seocho 1-dong, Seocho-gu, Seoul, Korea
 Zip Code 137-877
 Tel (02)581-5711-4
 Fax (02)586-8823

Korean Architects

Vol. 462

October 2007

2007 건축사대회를 마치고

After the Congress of Architects

지난 10월 4일부터 6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된 '2007전국건축사대회'에 참석하신 5천여 건축사 회원과 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건축을 사랑하며 축하해주신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님, 정치적으로 예민한 시기임에도 기꺼이 참석하신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님과 문성현 민주노동당 대표님, 건축계의 발전에 선두 역할을 하시는 정장선 건설교통위원회 국회의원님, 김진애 대통령자문 건설기술·건축문화선진화위원회 위원장님 등 저희의 조심스런 초대에 기꺼이 참석해주신 여러분 그리고 큰 도움을 주신 후원업체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1965년 창립한 우리 대한건축사협회는 국내 유일한 건축사 단체로서 국가의 정책에 부응하며 건축문화를 창조·계승·발전하는 데 크게 이바지하였으며, 그런 사실을 우리는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편 시행착오의 산물인 자랑스럽지 못한 유산들은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비록 건설경제의 침체로 우리는 가장 어려운 시기라고 자탄하고 있지만, 바로 지금이 우리에게 변화를 요구하는 시기라는 사실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건축사, 문화의 경계를 넘어'라는 대회 주제는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탄생한 우리의 절박함이 담긴 선언이었습니다. 예술과 경제, 이상과 현실 속에서 갈등하며 건축사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온 우리는 "건축문화란 이상인가? 현실인가?" 의문할 수밖에 없었지만, 항상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듯 현실은 이상을 구축해왔습니다.

문화가 현실이라면 그 경계 너머에 새로운 이상이 있을 것입니다!
문화가 이상이라면 그 경계 너머에 새로운 현실이 있을 것입니다!

문화가 현실이라면 그 경계 너머에 새로운 이상이 있을 것입니다!
문화가 이상이라면 그 경계 너머에 새로운 현실이 있을 것입니다!
그 경계를 넘는 첫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그 경계 너머에 있는 확실한 진실을 찾아갑시다!
진실 중에 하나로 섰던 선언과 결의 - 건축사는 건축문화의 선도자로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앞장서겠다는 선언과
정부가 추진 중인 '시공업체에 설계업 허용 정책' 반대 결의 - 는 시의적절한 것이었습니다.

그 경계를 넘는 첫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그 경계 너머에 있는 확실한 진실을 찾아갑시다!

진실 중에 하나로 섰던 선언과 결의 - 건축사는 건축문화의 선도자로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앞장서겠다는 선언과 정부가 추진 중인 '시공업체에 설계업 허용 정책' 반대 결의 - 는 시의적절한 것이었습니다.

세미나, 선언, 결의, 헌혈, 답사, 축제...

저희 서울특별시건축사회 임직원은 최선을 다 하여 적절한 예산으로 소박한 행사를 치르려고 노력했지만 부족함이 많았던 점에 대해서는 아량을 베풀어주시기 바랍니다.

대회 준비와 진행과정에서 협조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한명수 대한건축사협회 회장님과 임직원, 15개 시·도 건축사회 회장님과 임직원, 서울특별시 지역건축사회 회장님, 서울특별시건축사회 임직원과 봉사해주신 건축사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09년 인천에서 만날 때까지 이 열기와 다짐이 지속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인천광역시건축사회가 더욱 완벽하고 내실 있는 대회를 개최하시길 기대합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과 희망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왼쪽(左)과 오른쪽(右)의 숙명성

Fatalistic Allelomorph between Left and Right

옛날부터 동서양을 막론하고 左와 右가 대립되는 사상은 공통적이었던 것 같다.

먼저, 유럽의 역사에서 시작된 의식의 '좌익우익(左翼右翼)'이나 고대중국의 '좌조우사(左祖右社)', 그리고 우리나라의 '좌의정, 우의정' 등이 이러한 가설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삼천 오백 년 전 번영하였던 중국 은(殷)나라시대의 고분을 보더라도 역시 좌우관계에 상하의 개념이 존재하였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당시의 왕릉은 장대한 지하공간을 확보하여 가로, 세로 10m에 깊이 8m에 이르는 구덩이를 파고 남측에는 경사진 도로를 설치하고 삼면은 계단으로 구성되어 장례의식이 끝나면 공사에 관여하였던 모든 노동자를 산 제물로 바치면서 왕의 시신과 함께 원래의 모습으로 대지(大地)에 환원되었다. 특이한 점은 지상에는 아무런 구조물을 남기지 않았다는 점인데 위치를 표시하면 도굴 등의 위험이 뒤따르기 때문이라는 학설도 있지만 어떻게 하여서라도 다시 세상에 부활될 것을 믿은 당시의 권력자들은 지하 깊은 속에서 안도의 영원한 잠에 빠졌으리라. 이러한 왕릉의 주위에는 역시 강제적으로 생매장된 듯한 2~3기의 무덤들이 존재하여 최근에 발굴된 고분 속에서는 그 당시의 모습을 생생히 재현시키는 유골들이 발견되고 있다. 그런데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그 유골들의 배치가 오른쪽에는 남자 혹은 신분이 높은 자가 그리고 왼쪽에 여자 혹은 신분이 낮은 자로 단정할 수 있는 자가 위치한다는 것이다. 즉, 은나라 시대부터 이미 오른쪽이 우위라는 사상이 싹트고 있었다는 증거라 할 수 있다. 더욱이 이 좌우우열(左右優劣)의 사상은 주태(周泰)시대에 접어들면서 더욱 철저해져 '주례효공(周禮孝工記)' 기를 보면 궁중에 있어서 오른쪽에는 사직(社稷)을 왼편에는 조종묘(祖宗廟)를 받드는 것으로 한다는 규정까지 출현해 좌우의 구별이 점점 엄격해 가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후한서(後漢書)의 장형전(張衡傳)을 보면 '우사직서우언(右社稷西右言)' 이라는 대목이 나오는데 이는 북쪽에서 남쪽을 보면서 서쪽을 오른편, 동쪽을 왼편으로 규정하면서 '천자남면(天子南面)' 으로 남쪽의 절대성과 함께 동서의 추종과 신체의 중립성에 대한 좌우의 합류를 의미하고 있다. 또한, '양태극양의생(易太極兩儀生)' 이라 하는 음양설에도 일치하여 좌우, 동서, 음양이라는 상대적 이원(二元)이 독특한 우열론으로 발전하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후 도성의 계획이나 궁전의 배치에도 좌우의 우열이 크게 작용하여 궁전으로 향하는 대로의 중심 서쪽을 우경(右京), 동

좌우라고 하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현재까지
우위를 가리지 못하는 숙명적인 대결이라 할 수 있지만
우리에 경우에 얽혀놓고 보면 기막히다고 밖에 달리 표현이 되지 않는다.
해방 후 60여 년을 갈라져서 지낸 노릇도 따지고 보면
이 묘한 개념의 산물이란 점에서 답답하기 그지없다.
얼마 전 남과 북의 정상이 다시 만났다.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라는 상황도 상황이지만
아직도 이분법적 사고에 지배당하고 그 틀에 매여 가는 우리의 처지가 안타깝기 그지없고
주변 강국에 눌러 늘 뒷북만 치는 것만 같은 공허함은 필자 만의 것이길 바라며
조속히 우리의 숙명적 상황이 해소되어 그야말로 남과 북이 서로 자유롭게
눈치 살피지 않고 살아도 되는 좋은 시절이 오기를 기대한다

쪽을 좌경(左京)이라 하였다. 이 우경에는 정부의 고관이 살았고 좌경에는 일반인들이 살았는데 경복궁을 중심으로 서편에 사직동이 동편에 가회동이 위치한 것을 보면 우리나라에도 그 영향은 지대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의 송나라시대에 이르러 좌경우경(左京右京)은 혼탁한 양상으로 발전하여 본가는 우경인데 분가가 좌경에 있다든가 고관이 좌경에 산다던가 하는 복잡한 상태로 변해가기도 하였지만 이것은 당시의 문벌정책에서 볼 때 혈족확장과 보존책의 일시적인 형태로 보여 우경에 살다 좌경으로 옮겨지는 것은 명예스럽지 못한 일이었고 직위가 높은 자가 좌경으로 강제적인 이주를 명받았을 때 '좌천(左遷)'이라는 단어가 발생하였다 한다. 그러나 좌청룡 우백호(左靑龍 右白虎)와 같이 용과 호랑이로 서열을 가리기 힘든 경우도 있다.

한나라에서는 고조 유방(高祖 劉邦)이 죽은 후 황후인 여(呂) 태후가 실권을 장악하고 여씨 일족이 천하를 제멋대로 뒤흔들 당시 이 것에 불만을 품은 유씨 일족과 고조의 유신들은 군의 장성들을 소집하여 이렇게 말하였다. '여씨에게 충성할 자는 좌단(左袒)하고 유씨에게 충성할 자는 우단(右袒)하라.' 여기서 단(袒)이라고 하는 것은 왼편 어깨뼈를 뽑는다는 뜻으로 당시의 권력자를 선택하는 방법으로 어깨뼈를 뽑으라면서 정의로운 선택에 오른쪽을, 불의에는 왼편을 제시한 것도 이러한 사상이 깔려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서양에서조차도 오른쪽을 의미하는 'RIGHT' 라는 단어가 정의로움, 옳음 등의 뜻도 지니고 있는 것은 우연의 일치라고만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든다.

이같이 좌우라고 하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현재까지 우위를 가리지 못하는 숙명적인 대결이라 할 수 있지만 우리에게 경우에 얽혀놓고 보면 기막히다고 밖에 달리 표현이 되지 않는다. 해방 후 60여 년을 갈라져서 지낸 노릇도 따지고 보면 이 묘한 개념의 산물이란 점에서 답답하기 그지없다.

얼마 전 남과 북의 정상이 다시 만났다.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라는 상황도 상황이지만 아직도 이분법적 사고에 지배당하고 그 틀에 매여 가는 우리의 처지가 안타깝기 그지없고 주변 강국에 눌러 늘 뒷북만 치는 것만 같은 공허함은 필자 만의 것이길 바라며 조속히 우리의 숙명적 상황이 해소되어 그야말로 남과 북이 서로 자유롭게 눈치 살피지 않고 살아도 되는 좋은 시절이 오기를 기대한다. ■

2007 전국건축사대회



2007전국건축사대회가 '건축사, 문화의 경계를 넘어' 라는 주제로 지난 10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서울 삼성동 코엑스 컨벤션홀에서 개최됐다.

이번 건축사대회에서는 10월 3일 개최된 전국건축사축구대회를 시작으로 10월 4일 건축사 답사 및 투어, 2007한국건축산업대전 참관이 이어졌으며, 10월 5일 대망의 2007전국건축사대회 개회식과 건축사와 함께하는 사랑의 헌혈행사, 세미나, 특별강연, 건축사의 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이루어졌다.

개회식에서는 이용섭 건설교통부장관,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 문성현 민주노동당 대표, 정장선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간사, 황우여 한나라당 사무총장, 남경필 한나라당 의원, 나경원 한나라당 의원, 김진애 대통령자문 건설기술·건축문화선진화위원회 위원장 등 여러 귀빈이 참석해 '2007전국건축사대회' 개최를 축하하며 자리를 함께 했다. 개회식은 집행위원장인 강희달 서울특별시건축사회 회장의 입장으로 시작돼 각 시·도 건축사회 회장, 본협회 고문·이사·감사와 내빈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회장인 한명수 우리협회 회장의 입장으로 대회장에 모인 5천여 건축사의 열기는 한층 고조돼 절정에 이르렀다.

이철호 2007대한민국 건축문화대제전 조직위원장의 개회 선언으로 시작된 본 행사는 오프닝 영상과 식전행사인 대북공연 후 송준식 건축사의 건축사현장 낭독으로 이어졌다. 내외빈의 축사가 끝난 뒤 대한건축사협회 홍보대사에게 한명수 협회장이 위촉패를 전달했으며, 외빈의 건축문화발전을 위한 제언과 건국대학교 오명 총장의 '건축사, 문화의 경계를 넘어' 라는 주제의 특별강연이 끝난 뒤 '건축문화 수호를 위한 대정부 결의문' 이 채택되었다.

우리협회는 결의문을 통해 "우리 대한건축사협회 8천회원은 건축문화의 창의자로서 한국 건축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앞장설 것을 선언"하며, "정부가 추진 중인 '건설시공업체의 설계허용 정책' 이 일부 건설업체에 부여되는 특혜이므로, 이에 반대의사를 명확히 하며 결의" 했다.

이어 2부 행사에서 열린 '건축사의 밤' 행사에서는 방송인 배동성씨의 사회로 연예인 축하 무대와 장기자랑 등이 펼쳐졌으며, 행운의 경품 추첨행사에서는 한명수 협회장이 기증한 자동차, 그리고 주최측이 준비한 노트북 등 많은 경품들이 여러 건축사에게 증정됐다. 끝으로 강희달 집행위원장의 폐회사로써 '2007전국건축사대회'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2007전국건축사대회 행사장 전경



2007전국건축사대회 선포식 전경



대회기를 휘날리는 한영수 협회장



이철호 2007대한민국건축문화대제전 조직위원장의 개회 선언



2007전국건축사대회 행사의 시작을 알리는 오프닝 공연



강희달 2007전국건축사대회 집행위원장(서울특별시건축사회 회장)의 환영사



한명수 대한건축사협회 회장의 대회사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의 치사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 최고위원의 축사



문성현 민주노동당 대표의 축사



정장선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간사의 축사



이근창 아시아건축사단체연합(ARCASIA)회장의 축사



한명수 대한건축사협회 회장의 홍보대사 위촉



황우여 한나라당 사무총장의 건축문화 발전을 위한 제언



남경필 한나라당 경기도위원장의 건축문화 발전을 위한 제언



김진애 대통령자문 건설기술·건축문화 선진화위원장의 건축문화 발전을 위한 제언



내외 귀빈 기념촬영



오 명 건국대학교 총장의 특별초청강연 「건축사 문화의 경계를 넘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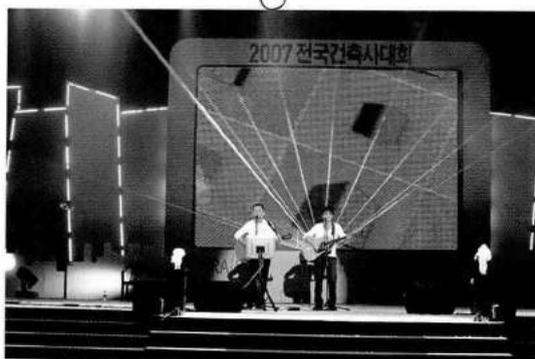
건축사의 밤 행사 중 UIA/PPC공동대표의 축하인사



건축사와 함께하는 사랑의 헌혈행사



건축사의 밤 행사 중 징기자람



건축사의 밤 행사 중 '사월과 오월'



승용차를 경품으로 당첨받은 회원

2007



한국건축문화대상 Korean Architecture Awards 2007



올해로 16회를 맞이한 2007한국건축문화대상의 수상작품이 발표됐다.

이번 대상은 준공건축물부문에서 사회공공부문, 민간부문, 공동주거부문, 일반주거부문 4개 부문으로 구분하여 수상하는데, 사회공공부문 대상에는 「덕평자연휴게소(설계자:인의식/(주)종합건축사사무소 연미건축, 시공자:코오롱건설(주), 건축주:덕평랜드(주)」가, 민간부문에 「파주웅진씽크빅 사옥(설계자:정승호/(주)건축사사무소 아르키움, 시공자:웅진건설 주식회사, 건축주:(주)웅진씽크빅」이, 공동주거부문에 「더샵스타시티(설계자:박용민/(주)종합건축사사무소 명선엔지니어링, 시공자:(주)포스코건설, 건축주:학교법인 건국대학교」가, 일반주거부문에 「배재대학교 국제언어생활관(설계자:박인수/(주)아이아크 건축사사무소, 시공자:현대건설(주), 건축주:학교법인 배재학당」이 선정되었다.

이들 사회공공부문, 민간부문, 일반주거부문 설계자와 공동주거부문 시공자에게는 영예의 대통령상을, 사회공공부문, 민간부문, 일반주거부문의 시공자, 건축주와 공동주거부문 설계자와 건축주에게는 건설교통부장관상을 시상했다. 또한 본상도 4개 부문으로 나누어 수상하는데, 사회공공부문에 대통령학교와 민간부문에 논현동 의화빌딩, 공동주거부문에 용산파크자이, 일반주거부문에 양익재가 선정되었으며, 이들 사회공공부문, 민간부문, 일반주거부문 설계자와 공동주거부문 시공자에게는 국무총리상을, 사회공공부문, 민간부문, 일반주거부문의 시공자와 건축주, 공동주거부문 설계자와 건축주

에게는 건설교통부장관상을 시상했다. 또한 안도군 수협활어 종합유통센터를 포함한 13점은 우수상으로서 모두 대한건축사협회장, (주)서울경제신문 사장 공동명의 상을 각각 시상했다.

한편 일반 및 신인·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계획건축물부문에서는 이수영(부경대 건축학과)씨가 출품한「리즘이론을 적용한 동광동 인쇄문화단지 계획」이 대상을 차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상을 수상한 것을 비롯해 우수상 5작품, 특선 6작품, 입선 20작품 등 모두 32개 작품이 입상했다.

아울러 '올해의 건축문화인상' 에서 이리형 청운대학교 총장이 올해의 건축문화인상으로 선정되어 건설교통부장관상을 수상했으며, 공로상에는 장양순(주.종합건축사사무소 창건축 대표, 前 한국건축문화대상 시행위원회 위원장) 건축사와 윤오수 한국주택협회 부회장이 선정되어 각각 트로피를 수상했다.

아울러 시상식은 지난 10월 2일 코엑스 4층 그랜드콘퍼런스룸에서 개최되었으며, 수상작 전시회도 코엑스 인도양홀에서 10월 2일부터 10월 6일까지 5일간 전시되었다.

상의 제정 배경 및 목적

제정배경

- 한국건축문화대상은 「건축은 문화」 라는 대명제 아래 '건축의 대중화' 를 추구함으로써 우수한 건축물이 피어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우리 건축의 정통성과 현대성이 구현된 역작을 발굴, 이 시대 건축문화의 표상으로 삼아 건축문화 창달에 기여함을 기본취지로 지난 92년 건 설부와 (주)서울경제신문이 공동 제정함.

- 제3회(94) 행사부터는 지난 1971년부터 대한건축사협회가 단독 개 최해오던 「한국건축전」과 통합을 이뤄 민·관·인론이 공동 시행주체가 되는 건축 분야의 대표적 전시·시상행사로 발전.

목 적

- 우리 고유의 건축문화 창달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 우리 건축물의 인간중시, 환경과의 조화 구현
- 건축계의 유능한 후진 발굴 및 창작의욕 고취

올해로 16회째를 맞는 이 행사는 지난 96년 제5회 때부터 본상이상 수상자중 건축문화 발전에 기여한 공로자에 대해 대통령상 등 정부포상을 수여함으로써 명실공히 국내 건축상 제도 중 가장 권위 있는 행사로 발돋움함.

역대 주요 수상작(준공건축물부문)

	대 상	본 상	우수상
제1회 (1992년)	한샘 시화공장	삼성종합연구소 창조관 호텔 현대 분당시범아파트단지 현대아파트 연남동주택	-
제2회 (1993년)	헌법재판소	국립부여박물관 이화여대 공간 학동수출당 부산서대신동주택	-
제3회 (1994년)	민정학원	아주대병원 예담교회 SBS 등촌동 스튜디오 포이탑빌라	엑스포아파트 전쟁기념관
제4회 (1995년)	포스코센터	경희분당차병원 쌍용투자증권 사옥 홍천휴게소 팜파스 삼성국제경영연구소	수원선경도서관 토월대동아파트 삼성동 현대빌라

	대 상	본 상	우수상
제5회 (1996년)	대법원 청사	분당 주공아파트, 태평양파크빌리드, 신내지구 9단지 아파트, 수원야외음악당, 진로쿠어스 공장, 용문청소년수련원	-
제6회 (1997년)	LG화학 기술연구소	삼청동주택, 분당 집합주택, 웨스턴조선호텔 빌라 코오롱타워, 블루힐백화점, 국민생명미래연구소	-
제7회 (1998년)	울산현대예술관	고려포리머 사옥, 김옥길기념관, 오크밸리 리조트 씨네플러스, 이태원 다가구주택, 백남학술정보관	-
제8회 (1999년)	(해당작 없음)	양산 컨트리클럽하우스, 두산타워, 구신타워 국민의료보험공단 일산병원, 국인대학교 국제교육관 부산 당감지구 주공아파트, 임거당	-
제9회 (2000년)	교원그룹연구소 - 게스트하우스	성동구노인종합복지관, 웰컴시티, 동아미디어센터 미재루, 영동군보건소, 서미갤러리	-
제10회 (2001년)	의재미술관	가나안 교회, 천주교인보성체수도회 전주성당 웅인 삼성생명 노블카운티, 대구달성 명곡 주공아파트 은평구립도서관, 서울예술대학 안신캠퍼스	-
제11회 (2002년)	부산아시아드 주경기장	수원시연화장, 코리아디자인센터 부산아시아드경기대회 선수·기자촌 아파트 대한주택공사 기흥상갈 금화마을, 원당성당 중부대학교 건원관	-
제12회 (2003년)	시몬느 사옥	분당 C-11-4-12 광명철산지구 주공아파트 춘천두미르 군인아파트 동부금융센터, 매스메세이지 포스코역사관	-
제13회 (2004년)	광주광역시청사, 아이파크 삼성동	KT 여의도 빌딩, 한성대학교 도서관 현대해상화재보험 광화문사옥 웅인신갈 새천년 주거단지 연하당, 광장 11차 현대홈타운	-
제14회 (2005년)	달성군청사 타워팰리스Ⅲ	대치 동부센터레빌, 배재대학교 예술관	A House With Three Courts, 수입 777 보한빌딩, 옥계 휴게소
제15회 (2006년)	청계천 문화관 해송원 솔빛머금은 남쪽마을..., 오름- 묵방리 주택	전라북도 도청 및 의회청사 (주)하이마트사옥, 노은 리슈빌Ⅱ 동신대학교 기숙사	-

준공건축물부문

행사일정

- 작품공모공고 : 5. 1~6. 5
- 접수 : 6. 7(목)~6. 8(금) 09:00 ~ 18:00
장소 : 대한건축사협회 중회의실
- 심사 : 6. 22(1차 사진접심사)
7. 6 ~ 7. 8(준공건축물부문 2차 현장심사- 지방, 수도권)
7. 8(준공건축물부문 최종심사)
- 시상식 : 10. 2 14:00 / 장소: 코엑스 4층 그랜드컨퍼런스룸
- 수상작전시 : 10. 2 ~ 10. 6 / 장소: 코엑스 인도양홀

주요 공모요강

가. 응모작품 및 자격

- 응모작품 : 2005년 5월 1일부터 2007년 5월 1일 사이에 국내에 준공완료된 주거용건축물(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또는 비주거용건축물(업무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의료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등)로 한국건축문화대상에 기출품한 사실이 없는 작품. 단, 리모델링 건축물은 증축·개축·대수선에 한하여 응모할 수 있으며, 임시사용승인된 건축물은 응모불가
- 출품자 자격 : 응모건축물의 설계자, 시공자, 건축주로서 출품건축물의 건축물대장에 명시되어 있는 자.
- ※ 정부포상업무지침에 따라 대표 설계자·시공자·건축주 각 1인에 한해 시상

나. 주요 출품규정

- A4 규격의 사진첩 1부 및 건축물사진(15컷 내외), 기본도면(평·입·단면도, 배치도, 스케치), 작품개요·설명 등이 수록된 CD 1매 제출

심 사

가. 심사방법

- 1차심사(사진접심사) : 현장심사 대상작 선정
- 2차심사(현장심사) : 현장 대상작 심사
- 최종심사 : 입상작(대상·본상·우수상) 선정

나. 심사위원

이상준 / 연세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 위원장
 김경희 / 종합건축사사무소 연희 엔지니어링 대표
 김영섭 / 성균관대학교 건축학과 석좌교수
 동정근 / 인하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방철린 / 간종합건축사사무소(주)
 류춘수 / (주)종합건축사사무소 이공 대표
 천태삼 / 대한건설협회 기술환경본부장

시상내용

- 대표 설계자, 시공자, 건축주 각 1인에 한해 시상 -

상명	시상내용	설계자	시공자	건축주
대상 (4점)	사회·공공부문	대통령상	건설교통부장관상	건설교통부장관상
	민간부문	대통령상	건설교통부장관상	
	공동주거부문	건설교통부장관상	대통령상	
	일반주거부문	대통령상	건설교통부장관상	
본상 (4점)	사회·공공부문	국무총리상	건설교통부장관상	건설교통부장관상
	민간부문	국무총리상	건설교통부장관상	
	공동주거부문	건설교통부장관상	국무총리상	
	일반주거부문	국무총리상	건설교통부장관상	
우수상(다수)		대한건축사협회장, 서울경제신문사장 공동명의 시상		

※ 본상 이상 작품별 대표 설계자, 시공자 해외건축탐방 특전 부여
 ※ 수상자 트로피(설계자, 시공자, 건축주) 및 건축물부착용 명판(건축주) 수여

수 상 자 명 단(작품명/설계자/시공자/건축주 순)

■ 大賞

- 사회공공부문(설계자-대통령상, 시공자·건축주-건설교통부장관상) 덕평자연휴게소 / 인의식(주.종합건축사사무소 연미건축) / 코오롱건설(주) / 덕평랜드(주)
- 민간부문(설계자-대통령상, 시공자·건축주-건설교통부장관상) 파주웅진씽크빅사옥 / 정승권(주.건축사사무소 아크킴) / 웅진건설 주식회사 / (주)웅진씽크빅
- 공동주거부문(시공자-대통령상, 설계자·건축주-건설교통부장관상) The* 스타시티 / 박용민(주.종합건축사사무소 명선엔지니어링) / (주)포스코건설 / 학교법인건국대학교
- 일반주거부문(설계자-대통령상, 시공자·건축주-건설교통부장관상) 배재대학교 국제언어생활관 / 박인수(주.아이아크 건축사사무소) / 현대건설(주) / 학교법인 배재학당

■ 本賞

- 사회공공부문(설계자-국무총리상, 시공자·건축주-건설교통부장관상) 대통령중학교 / 김정철(주.정림건축 종합건축사사무소 / (주)대현 / 강원도 교육감
- 민간부문(설계자-국무총리상, 시공자·건축주-건설교통부장관상) 논현동 의화빌딩 / 류재은(주.종합건축사사무소 시건축 / 장학건설(주) / 세브레본

- 공동주거부문(시공자-국무총리상, 설계자·건축주-건설교통부장관상)
용산 파크자이 / 이원교(건축사사무소 우도) / 지에스건설(주) / (주)모간아답스코리아
- 일반주거부문(설계자-국무총리상, 시공자·건축주-건설교통부장관상)
양익재 / 안우성(주.종합건축사사무소 온고당) / 윤은자 / 윤은자
- ※ 작품명 양익재는 시공자와 건축주가 동일인이므로 건축주만 시상

■ 優秀賞(대한건축사협회장, 주.서울경제신문 사장 공동명의 시상)

- 완도군 수협활어종합유통센터 / 박흥근(주.포유 건축사사무소) / 학림건설 / (주)완도군수산업협동조합
- 이응노 미술관 / 김정철(주.정림건축 종합건축사사무소) / 계룡건설산업(주) / 대전광역시청
- 팍스타워 / 윤토현(주.건축사사무소 지이 / 노스웨스트건설(주) / 벤앤피(주)
- 여의도 태영빌딩 / 변 용(주.원도시건축 건축사사무소) / (주)태영건설 / (주)태영건설
- 해송법학도서관 / 이인호(주)이래 종합건축사사무소 / (주)자드건설 /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
- 아람드리 미디어 / 강인철(주.가아 건축사사무소) / (주)화인종합건설 / 아람드리 미디어
- 서울예술대학 안산캠퍼스강의동 증축 / 유태용(주.테제 건축사사무소) / (주)삼환기업 / 학교법인 동량예술원
- 메종에르메스 도산파크 / 이태웅(주.건축사사무소 테트라아키텍트) / (주)삼일기업공사 / 에르메스코리아(유)
- 하나스퀘어 / 고광석(주.삼우 종합건축사사무소) / 두산건설(주) /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
- 한국예술종합학교석관동 캠퍼스 / 김관중(주.삼우 종합건축사사무소) / 쌍용건설(주) / 한국예술종합학교
- 하이페리온2 / 박형근(네오플랜 건축사사무소 주식회사) / 현대건설(주) / (주)코리아원
- 중앙하이츠 / 이장현(엠그룹 종합건축사사무소) / (주)중앙건설 / 서강시범아파트리모델링주택조합
- 마당 안 숲 / 정승권(주.건축사사무소 아르키움) / 손영원 / 손영원
- ※ 작품명 태영빌딩은 시공자와 건축주가 동일인이므로 시공지만 시상하며, 작품명 마당 안 숲은 시공자와 건축주가 동일인이므로 건축주만 시상

심사총평

올해로 16회를 맞은 우리나라 최고권위의 한국건축문화대상후보로 최근 2년 동안 준공된 건축물들이 여전히 많이 출품되었는데, 4개 부문으로 나뉘어서, 사회공공부문 14작품, 민간부문 50작품, 공동주거부문 12작품, 그리고 일반주거부문 10작품 등 총 86개 작품이었습니다.

6월 22일(금) 1차 사진접심사를 위해 모인 심사위원회에서는 우선, 공정한 심사방법을 논의하였고, 1단계로 2차례에 걸친 탈락작품 선정에

들어 갔습니다. 이어 2단계에서는 실사대상작품 선정작업을 2회에 걸쳐 행하는 가운데, 심사위원 각자의 선정사유를 토론하면서 총 18개 건물들을 실사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주거부문(공동, 일반)과 사회공공부문 응모에 아쉬워하였습니다. 반면에 많은 수(50작품)가, 그것도 상당수의 수준 높은 작품들이 민간부문에 몰려 제출된 것에 주목하고, 본 심사위원회는 향후 차기 행사부터 민간부문으로 분류되어있는 민간발주 학교건물 등은 공공성이 있는 건축물들로서, 사회공공부문에 포함시키는 등 보다 합리적인 분류조정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7월 6일~8일에 걸친 사흘간의 실사는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아침 8시부터 저녁 늦은 시간까지 이어지는 강행군의 연속이었습니다. 예년처럼 실사팀을 위해 주말과 휴일도 마다하지 않고 성실히 맞아주시는 설계자, 건축주 및 건설관계 여러분께 감사를 표합니다. 늘 그러했듯이, 현장방문을 통하여 사진첩으로만은 얻을 수 없는 많은 건축적 경험이 큰 즐거움이었습니다.

7월 8일 저녁, 현장실사를 마친 후 이어 가진 최종심사에서는 장시간에 걸쳐 열띤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심사위원 각자가 각 부문별 대상 및 본상 후보 작품을 추천하고 토의를 거쳐 하나씩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여 수상작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수한 작품이지만 치열한 경쟁 끝에 아쉽게도 우수상에 머문 여러 건물들-마당안숲, 서울예술대학 안산캠퍼스, 여의도 태영빌딩, 메종에르메스 도산파크, 해송법학도서관, 아람드리미디어-등이 기억에 남고, 반면 덕평자연휴게소와 파주웅진싱크빅사옥은 작품성, 사회적 및 시공성 등이 모두 뛰어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어서 대상수상작으로 쉽게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 사회공공부문 : 대상-덕평자연휴게소, 본상-대룡중학교
- 민간부문 : 대상-파주웅진싱크빅사옥, 본상-논현동의화빌딩
- 공동주택부문 : 대상-더샵스타시티, 본상-용산파크자이
- 일반주거부문 : 대상-배재대학교 국제언어생활관, 본상-양익재

위 외에, 현장실사를 거친 건물들과, 거리와 접근성불량으로 현장방문은 하지 않았으나 수상자격이 있다고 판단된 공동주거부문의 하이페리온 2, 중앙 하이츠와 민간부문의 완도군 수협활어종합유통센터 등에게는 우수상을 수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여러 날 더위 먹음 정도의 무더위 속에서도 진지함과 의연한 책임감으로 열성을 다하여 심사에 임하신 위원제위께 경의를 표하고, 심사전과정이 매끄럽게 진행되도록 노고를 아끼지 않은 실무진께도 치하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이 어려운 여건가운데에서도, 수준 높은 작품창출을 위하여 분투(奮鬪)하는 건축인들에게 마음을 다한 격려를 드립니다. 한국건축문화대상 프로그램이 앞으로도 더욱 존경받고 권위 있는 건축문화 창달의 장(場)으로 발전하기를 기원합니다.

이어지는 각 부문별 심사평은, 사회공공부문- 김영섭 위원, 민간부문-방철린 위원, 공공주택부문-김경희 위원, 그리고 일반주택부문은 동정근 위원이 써 주셨습니다.

심사위원장 이상준

덕평휴게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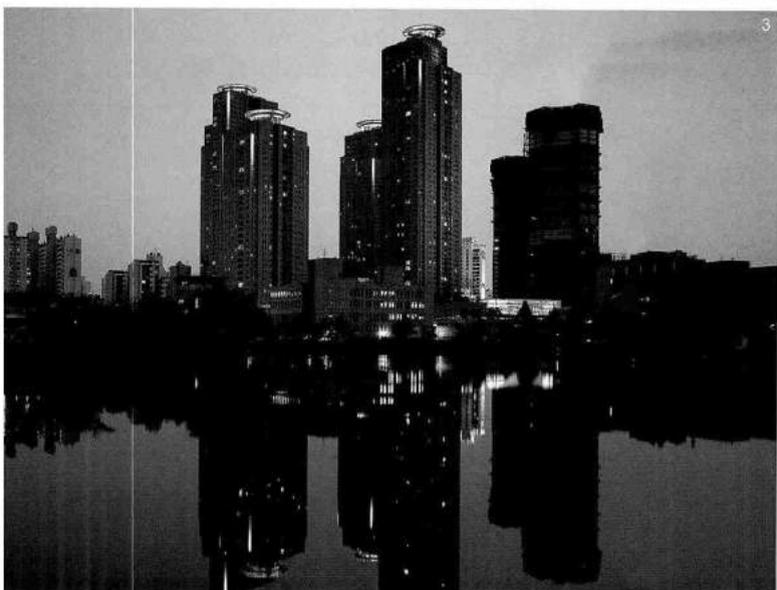
“모든 것이 참 잘 되었다.” 심사위원들이 이구동성으로 건축문화대상의 전체 최고상을 뽑는다면 덕평휴게소가 될 것이다라는 말을 서슴치 않을 정도로 덕평휴게소는 모든 면에서 매우 뛰어난 평가를 받았습니다. 디테일 설계와 시공도 훌륭하지만 평범한 개활지를 인접한 숲의 이미지 그 연장선상에서 디자인개념을 설정하고 그 성과를 이끌어내었다는 것에 건축사의 뛰어난 역량을 높이 평가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건축주인 코오롱 그룹과 시공자인 코오롱 건설의 자세 또한 매우 귀감이 될 만한 것이었습니다. 좋은 건축은 건축주의 전폭적인 지원과 시공자의 헌신적 노력 없이 건축사 한 사람의 실

력만으로는 실현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덕평휴게소는 앞으로 우리나라의 고속도로휴게소가 지향해 나아가 할 이정표를 제시하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도로공사 역시 과감한 정책판단으로 부지만 제공하고 시설기획과 설계시공을 민간에 맡김으로서 이 시설을 이용하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자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즉 공공시설물의 디자인이 최고 수준이 될 때 그것을 누리는 기쁨과 행복은 모든 사람의 것이 된다는 진리를 입증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사람이 누려야 할 공공시설물들은 시작은 참대하였으나 그 결과는 항상 미양하고 초라한 것이 되어서 국민지탄의 대상이 되어왔습니다. 안목 없는 지자체 행정관이나 정부의 공무원들 또는 공공기관의 장들이 투시도와 조감도 위주로 심사하는

준 · 공 · 건 · 축 · 물 · 부 · 문 | 대 상

1. 덕평자연휴게소(사회공공부문)/인익식
2. 파주웅진씽크빅사옥(민간부문)/정승권
3. 더 샵 스타시티(공동주거부문)/박용민
4. 배제대학교 국제언어생활관(일반주거부문)/박인수



전문가로 포장등록된 비전문가들과 함께 중요한 공공시설들의 디자인을 함부로 결정하고 재단해 왔기 때문입니다.

덕평휴게소는 자연 속에서 자연을 받아들이고 자연의 에너지를 이용해서 이용자들이 하여금 자연과 함께 하도록 계획되고 디자인 되었습니다. 화장실 하나만 보더라도 설계자가 얼마나 주위의 컨텍스트를 잘 읽고 디자인 원칙과 개념을 구현하는데 충실하였는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휴게소는 외기를 향하여 열어젖혀있으며 증축 시에도 그 장소적 특성이 변하지 않도록 치밀하게 구성되었습니다. 태양열과 지열을 이용한 것 이외에도 숲 이미지의 일관성, 야간경관의 배려 등 욕심 많은 건축주와 건축사, 시공자가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를 위해 이룩해 놓은 말 그대로 꿈 같이 근사한 휴게소입니다. 여러분 모두 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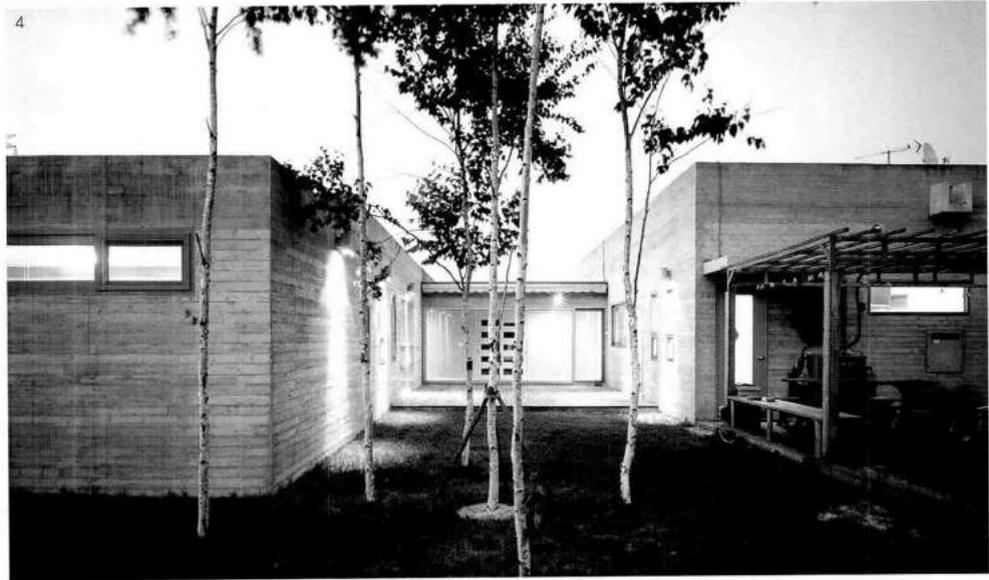
평휴게소에서 한 번 가서 공공디자인의 꿈이 실현된 증거의 장소를 즐기시기 바랍니다.

파주웅진생크빅사옥

파주웅진생크빅사옥은 파주출판도시의 영역별 건축유형 중 '암석유형'에 속하는 평면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단순한 곡선으로 구성된 외부형태와는 달리 풍부한 건축적 콘텐츠를 살려내고 있어 건축물에 대한 매너리즘적 생각들을 불식시킨다는 점이 심사에서 높이 평가되었다. '암석'이라는 건축적 유형의 선입견과는 다르게 건축물의 외피의 주재료로 사용된 유리는 건축물에 투명성을 부여하여 건축물의 중력

준 · 공 · 건 · 축 · 물 · 부 · 문 | 본 상

1. 대통령학교(사회공공부문)/김정철
2. 용산 파크자이(공동주거부문)/이원교
3. 논현동 의화빌딩(민간부문)/류재은
4. 양익재(일반주거부문)/안우성



감을 감소시키는 의외성을 발휘하고 있으며 암석의 중앙부분을 들어내고 비움으로서 생기는 마당과 함께 사용한 다양한 건축적 어휘들로 만들어진 유리로 된 건축적 공간들은 이 곳의 근무자들과 방문자들에게 변화무쌍한 경험과 함께 신선한 충격을 갖게 한다. 지하실이라고 넘겨버릴 주차장을 필로티개념과 함께 조경계획까지 도입하여 전혀 다른 환경을 만들어낸 점과 옥상정원을 동산과도 같이 친 환경적 배려를 한 점 등, 끝없는 작가의 노력이 빛을 발한다.

The# Star City

지하철 2호선과 7호선이 교차하는 건대역 사거리 동남향부분에 위치하고있다. 정방형에 가까운 대지형상이고 통경축을 십자형으로 설정하여 좌우에 두동씩 타워형 4동으로 설정되어 모두 중앙광장에서 각동의 주출입이시도되어진 주동계획으로서 강북의 상징적인 랜드마크이다. 규모는 타워형 4동(35층~58층)이고 단위세대평면은 15가지 형태가 있으며, 특히 B동의 경우는 2층부터 20층까지 오피스텔 133실, 21층부터 35층까지 공동주택으로서 한 개의 코어를 통해서 두개의 용도가 같이 사용되어짐으로 기능상 동선이 혼선될 수 있으나 외향적으로 보면 다른 동과 유사하다. 공동주택에서 모두 흔히 볼 수 있는 컨셉과 기본적인 사항들을 적용함이 보여지며 대부분의 공동주택이 그러하듯이 사용자들을 위한 내·외부공간 계획이 입구부터 폐쇄적으로 구획 시도되어지나 이와는 반대로 단지(Site) 중앙광장(Plaza)에 공용공간(Public Space)을 두고 담장을 없앴으로서 지역 주민들의 유기적인 커뮤니티 시설로도 이용될 수 있고(지역사회개방성) 광장을 둘러싼 단지내 도로는 비상시엔 소방도로 역할을 하며 재료분리는 있되 딱이없고 기능은 표현되는 자연친화적인 외부공간 표현이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미래지향적인 공동주택의 본보기(Sample)로 주인공이 되었다. 또한 조경용수용, 주변의 화재진압이 가능한 비상용수공급시설, 홍수방지용의 재난방지시설을 고려한 세계 최대규모(3,000톤 용량)의 재난방지시설을 고려하여 시공되어진 우수한 작품이다.

배재대학교 국제언어생활관

대학 캠퍼스내 고저차가 심한 산자락에 위치한 이 기숙사는 공용부분의 저층부와 개인 생활부분의 상층부로 계획되어있다. 공용부분인 저층부는 대지의 10m고저차를 이용하여 주변에서 각층에서 진입이 가능하고, 중정과 계단, 그리고 상층부의 피로티는 학생들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되어 다양한 모임을 유도하고 있다. 상층부의 개인 생활공간은 주변 산의 등고선을 따라 흐르는 듯 동적인 매스의 변화는 내부공간으로 다양한 주변 산의 경관을 끌어 드리고 있고, 햇볕을 조절하기위한 그늘막은 미서기 형식으로 외부의 변화하는 다양한 입면을 형성하고 있다. 개인 생활공간은 다양한 유닛을 구성하여 선택이 자유롭게 형성되어있으나, 좁고 낮은 천정과 노출배관은 개실의 쾌적성을 저해하고 있다. 특히 본부의 의지로 계획된 캠퍼스내 우수한 건축작품들은 학생들에게는 자부심을 주고 있으나 서로의 맥락적인 관계를 고려하지 않은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완도군 수협활어종합유통센터/박홍근



이음노 미술관/김정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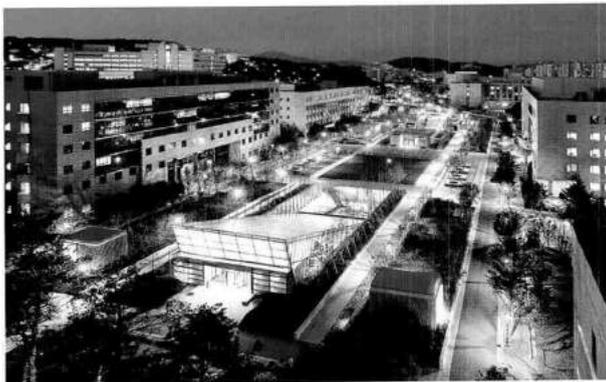
여의도 태영빌딩/변 용



해송법학도서관/이인호



아름드리 미디어/강인철



하나스퀘어/고광석



한국종합예술대학 석관동 캠퍼스/김관중



중앙하이츠/이장현

대릉중학교

교육은 국가백년지대계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교육환경과 시설은 다른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열악한 상태입니다. 특히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가 그러합니다. 학교 내에서 지나친 경쟁과 소외, 폭력 등은 모두 학교 외부공간 및 내부시설 환경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학교의 녹지면적비에 따라 교내폭력이 감소되고 문제아들이 줄어드는 현상에 주목하여 Green School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춘천 대릉중학교는 우리나라 아파트 단지 어디서나 흔히 볼 수 있는 학교가 될 뻔 했습니다. 그러나 학교장과 교원들, 시교육위원회의 훌륭한 결단으로 정말 좋은 교정과 교사를 갖게 되었습니다. 학교 교사동 배치는 북쪽 구릉지의 향 불리를 극복하기 위해서 자연과의 대립을 피하고 주변 자연을 오히려 관입시키기 위해 소단위로 분절되었습니다. 그 사이로 녹음과 공기와 햇빛이 들어오게 계획되었습니다.

운동장과 정면으로 마주한 과거 일제시대의 병영과 같은 배지의 흔적은 이곳 대릉중학교에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 결과 운동장에서의 소음에서 해방된 정온한 교실환경이 함께 조성되었습니다. 이밖에도 좋은 점이 많습니다. 시간의 흔적을 기록할 수 있는 외관재료로 구성되었으며 단아하고 건강한 비례를 갖는 교사의 면모는 이 땅의 새로운 학교 모습의 전형이 되어도 좋겠다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유일하게 지적하고 싶은 것은 학교 내의 싸인 표시였습니다. 수상을 계기로 시설표지가 좋은 디자인을 바뀐다면 더 바랄 것이 없었습니다.

용산 파크자이

용산구 삼각지 사거리에 위치한 복합용도(공동주택 310세대, 오피스텔 995세대, 근생)의 건물이다. 장축의 입구쪽이 공동주택이고 후면부가 오피스텔로서 공동주택은 외부공간의 유입, 출입구, 테마정원들로 하여금 여유를 느끼게 하고 보행축에 면한 커뮤니티 시설들까지 풍요롭다. 오피스텔은 세대수에 비하여 커뮤니티시설이 부족하고, 단조로운 느낌을 준다. 전체적으로 사용자들을 위한 계획의도는 잘 반영되어 있으나 특히 공동주택의 대단지는 보행자들과 지역주민을 위한 옥외공간의 할애가 조금 있으면 좋겠다. 머무를 수 있는 상가 앞마당은 자연친화적인 목재를 사용하고 접근성이 좋은 형태의 계단이었음 더 좋은 건물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하며 마친다.

논현동 의화빌딩

'논현동 의화빌딩'은 대로변에 있는 지하 3층과 지상 6층의 소규모 빌딩이다. 이 곳에 입주할 사무소가 각각의 고유한 공간과 얼굴을 가지고 그 아이덴티티를 도시에 발산할 수 있도록 계획된 점이 돋보인다. 이런 계획이 그저 임면적인 유희에 그치고 말 수도 있었는데 작가가 채택한 높은 층고와 작가의 탁월한 공간적 상상력 그리고 구조에 대한 과학적 지식을 이용한 깊이 있는 노력으로 다양한 공간적 특징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점이 돋보인다.

양익재

주변에 낮은 산과 몇 채의 농촌주택이 있는 아늑한 작은 마을에 위치한 이 주택은 부모를 위한 농가주택 겸 자녀들의 주말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다. 남측의 공용부분과 북측의 개실을 분리하고 그 사이에 마당을 두어 사방의 낮은 산을 품고 있는 주택으로, 개실부분의 데크와 공용부분의 툇마루는 외부공간과의 연결성을 높여주고 있다. 또한 낮고 작게 분절된 매스와 송판 노출콘크리트 외벽은 주변의 농가 주택과 어울려 친근한 느낌을 주고 있다. 그러나 상징적인 현관과 디테일 등의 장식적인 도시주택의 흔적들은 아쉬움이 남지만, 지역 특성과 농촌주택의 특수성을 잘 반영하고 있다.

완도군 수협 활어종합유통센터

‘완도군 수협 활어종합유통센터’는 바다에 면하고 있으며, 기존의 수협건축물 전면에 위치하고 있으면서도 바다로의 전망 방해를 최소화하고 있다는 점, 도시 바닥 레벨에서부터 건축물 상부까지 이어지는 공원화된 외부공간으로 이끌어낸 점 그리고 독특한 아이덴티티를 제공하고 있는 점이 눈길을 끈다. 저층부 전체를 공원화하는 작가의 적극적인 대응이 아쉽다

이응노 미술관

프랑스 건축사 로랑 보두앵과 한국의 건축사 정림건축 백문기가 합작설계한 이응노 미술관은 20세기 후반 한국을 대표하는 화가중의 한 사람이었던 고암 이응노(1904~1989)의 기념 미술관입니다.

이응노 예술세계의 상징성을 건축적으로 재해석하여 단순한 조형미로 표현한 것이라고 말하는 이응노 미술관은 과대 포장된 듯한 대전 시립미술관 옆에 미술관의 진정한 스케일을 무언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진입부의 고즈넉함과 단순함, 내부 동선의 깔끔한 처리와 적절한 자연광의 도입 등은 유명 건축사의 손을 거쳐 탄생한 한국의 미술관 중에서도 단연 돋보이는 수작임에는 틀림이 없으나 현대 건축이 상투적으로 쓰는 국제건축 어휘들이 오히려 이응노 미술과 미술관이 세워진 한국이라는 땅의 정체성을 드러내는데 역부족이었다고 심사위원들은 일치된 견해를 보였습니다. 시공상 매우 어려운 베이지색 컬러 노출콘크리트로 단아하게 조성된 이응노 미술관은 내부의 정제되고 세련된 공간만큼이나 아쉬움을 드리운 수작임에 틀림 없습니다.

팍스타워

‘팍스타워’의 대지는 피 너른 면적임에도 법적조건이 각기 다른 여러 개의 필지로 구성되어 각기 다른 용적률 등 법적 조건에 적응하기 위한 방법이 오히려 좋은 건축과 환경을 만들어내고 있다. 법규적 약조건을 작가의 지혜로 다양한 공간으로 치환시킨 점이 돋보인다.



마당 안 숲/정승권



팍스타워/윤도현



하이페리온2/박형근



서울예술대학안산캠퍼스 강의동 증축/유태웅



메종에르메스 도산파크/이태웅

여의도 태영빌딩

‘여의도 태영 빌딩’은 ‘ㄷ’자형태의 평면에서 중앙부분을 비워냄으로써 고층빌딩의 자연환기와 채광을 가능하게 한 점과 그러한 노력이 지하 1층의 마당과 함께 풍부한 볼거리를 만들고 있다는 점이 돋보인다. 특히 중앙마당 쪽으로 노출 배치된 유리로 된 전망엘리베이터와 비상계단의 산뜻한 구조적 해결로 이끈 테크놀러지가 돋보이며 이로 인한 건축물의 투명성이 건축물의 격을 평범치 않은 하이테크건축의 수준으로 올려주고 있다. 반면 지상의 많은 층이 변화가 거의 없는 평면을 가진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 부분이다.

해송법학도서관

우선 훌륭한 법학도서관이 건립되도록 사재를 바쳐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분계 심사위원들은 수상의 기쁨을 함께 하고 싶습니다. 아울러 이처럼 어려운 부지에 모던한 계획안을 수용한 법대 교수진과 학교 관계자들의 훌륭한 안목에도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해송법학도서관은 기존 건물의 정면에 세워지는 불리한 여건을 잘 해결하였을 뿐만 아니라 학교 이미지에 걸 맞는 건강하고 쾌적한 실내 환경을 조성한 수작으로서 외관의 수수함과 더불어 이 시대 학교 건축의 귀감이 되는 건물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빼어난 경쟁 작품수가 많아 우열을 가늠하기가 어려웠던 현실이 안타까웠습니다. 설계자는 건축물 구성요소들의 비례와 외관 유리부분의 면분할에 보다 치열한 노력을 가증했더라면 더 좋은 결과를 가져왔을 것입니다. 구조와 시공 부분도 매우 정교하게 되었음을 심사위원들은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름드리 미디어

‘아름드리 미디어’는 파주 출판도시내의 중심부를 흐르는 개천 변에 위치하여 사방에서 시선이 집중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다. 전망측면에서 보면 이 건축물은 사방에 각기 다른 경치를 갖는다. 이 집은 이러한 독특한 부지의 특성에 대응하는 설계가 돋보이는 집이다. 몇 개의 슬래브를 비껴서 쌓는 수법을 통하여 층마다 각기 다른 공간과 다른 위치의 발코니를 만들어내고 있으며 층마다 다른 기능에 걸맞는 적절한 공간구성과 마감재의 변화의 시도로 층마다 각기 다른 다양한 건축적 경험을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사방에서 보는 이 집의 모습 또한 방향에 따라 변화 있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하нас퀘어

우선 무엇보다도 이만한 양질의 지하공간을 고려대학교 캠퍼스에 건립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을 해 준 하나금융그룹에게 수상 축하의 기쁜 소식을 함께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하нас퀘어는 고려대학의 이공계 캠퍼스에서 필수적인 외부공간을 학생들에게 차량의 위협이 없는 편안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더하여

지하에 학생의 복지와 수학을 위한 열람공간을 제공한다는 발상에 큰 의의가 있습니다.

지하공간은 채광과 환기까지 거의 완벽한 환경으로 조성되었으며 상부의 외부공간 역시 훌륭한 조원공간으로 탈바꿈하여 학교 캠퍼스를 더욱 정온한 환경으로 유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지하공간 디자인에서 발견된 옥의 티는 과도한 디자인과 폴리싱된 대리석 등의 전면 바닥재 사용으로 이곳이 상업용 호텔 로비인지 학교인지 정체성을 구분할 수 없는 조금 지나친 배려가 있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전체 초기 디자인 개념과 학교 당국의 과감한 지원 등은 모범적 사례로 손꼽힐 수 있는 정성어린 작품이었다는 점에서 우수작으로 선정하였습니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석관동캠퍼스

한국예술종합학교는 협소한 부지를 전혀 느낄 수 없을 만큼 마스터플랜과 건물 배치계획이 뛰어난 작품입니다.

저예산으로 학교가 필요로 하는 대공간들을 잘 만들어내었고 마감재료들도 지나치게 건강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대 단위 큰 바닥면적을 구체 제물미장 마감으로 설계한 것은 결과적으로 바닥 면의 양질시공을 어렵게 만들었고 이 점이 아쉬운 점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외관을 비롯한 건축물 구성요소와 재료 사용의 적절성 여부 등도 지적되었으나 전체 통일성과 조화를 크게 잃지 않았으며 좋은 내외부 공간 환경을 구축하였습니다.

중앙하이츠

마포구 창전동에 위치한 중앙하이츠 아파트는 리빙발코니와 서비스 발코니를 새로 만들어 좁은 공간의 쓰임새가 좋아졌으나 방3개짜리는 침실2와 발코니3을 이용하여 소형화장실이 하나 더 있었으면 좋았겠다. 모두 재건축에만 의존하고, 초고층만을 지향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공사현황속에서 저층을 리모델링으로 착안한 점이 우수성으로 인정되었다.

마당 안 숲

헤이리 주거단지에 위치한 이 주택은 단지의 외곽을 둘러싸고 있는 산에 접하고 있는 부지이다. 대지 내 10m의 고저 차와 대지 중심부에 있는 숲은 건축계획의 장애가 될 수 있으나 그 장애요소를 뛰어난 발상의 전환으로 건축개념으로 치환한 작품이다. 대지 중심부 자연의 흐름을 도로까지 연결시키고 그 숲을 자연 상태로 유지하여, 작가의 의도와 같이 기존의 주인이었던 세채의 까치둥지와 밤나무, 아까시야, 침엽수, 풀벌레 등은 지금도 그곳에서 이 주택과 함께 공생하고 있다. 양쪽으로 갈라진 두세대의 주택은 대지의 고저차를 건축공간으로 흡수하고 마당 숲을 마주보고 있다. 옥상으로 연결된 숲은 주택전체를 휘감고 흘러 자연과 공존하고 있다.

하이페리온 2

대지는 양천구 목동 중심축을 가로지르는 오목로변에 위치하며 공동주택, 업무, 판매, 근생 용도로서 타워형 주거 4동과 비주거 2동이 혼재한 초고층 복합단지이다.

주어진 조건에서 동간 조망을 최대화하고 프라이버시를 고려한 주동 배치계획으로서 공공보행통로로 설정된 생활가로를 이용하여 주변 보조간선의 보행자 동선과 연결되어진 점이 편리하다고 생각되어진다. 주어진 자료에는 1층 단면의 층고가 높긴하나 주거동의 피로티가 2층이었다면 좀 더 쾌적한 보행 환경이 되었으리라고 생각되어진다.

서울예술대학 안산캠퍼스 강의동 증축

서울예술대학 안산캠퍼스는 10여 년 전 이 학교가 서울 남산 드라마 센터에서 이전할 때부터 능력이 뛰어난 건축사에게 계획을 의뢰한 것부터 큰 틀을 잘 잡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건축가협회를 비롯한 몇 번의 중요한 건축 수상경력을 가지고 있는 안산캠퍼스는 10여 년 동안 거의 모든 주요 건축물들이 한 건축사사무소에 의해 설계되었습니다. 이는 우리의 건축설계 풍토에서 매우 드문 일이며 동시에 매우 바람직한 건축프로세스로 여겨집니다.

학교 전체는 예술대학이 가지는 창의성과 개방적 모드가 잘 형성되어 있으며 저 예산으로 구조 재료의 물성을 그대로 노출시켜 건강함과 일관성을 잘 나타낸 훌륭한 건물군이 캠퍼스 곳곳에 산재하고 있습니다. 주이용자인 학생들에게도 이곳은 자유로움 가운데 창조적 능력을 배양하기 좋은 근사한 배움의 터전으로 자리잡아가고 있음을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실내마감 재료의 일관성이 약간 결여되어 있는 것이었는데 학교 당국의 여러 가지 요구를 모두 수용하느라 그렇게 된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없지 않았습니다.

최종 결선까지 오른 건축사의 훌륭한 성취를 다시 한번 뒤 돌아 보게 하는 작품이었다는 것이 심사위원 전원의 일치된 평가였습니다.

메종에르메스 도산파크

'메종에르메스 도산 파크'는 도산공원 정문 가까이 있는 명품점이다. 정사각형의 단순한 평면형태의 한 변을 3등분하여 9개의 작은 정사각형을 얻어 그 중앙부분을 지하 1층까지 비워내고 몇 개의 층에서 덩어리를 빼내는 간단한 방법으로 공간변화를 만들어 낸 점이 돋보인다. 특히 명품점답게 완성도 높은 디테일을 구사한 점이 돋보이나 도시적 컨텍스트에의 적응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계획건축물 부문

행사일정표

- 작품공모공고 : 5. 1 ~ 7. 27
- 접수
 - 1차 작품계획(안)접수 : 7. 30(월) ~ 7. 31(화) 09:00 ~ 18:00 (접수장소 : 대한건축사협회 중회의실)
 - 2차 패널 및 모형접수 : 8. 23(목) 09:00 ~ 18:00 (접수장소 : 대한건축사협회 1층 대강당)
- 심사 : 8. 1(1차 작품계획안 심사)
8. 24(금) 2차 패널 및 모형심사, 9. 1(금) 작품설명 프리젠테이션 심사
- 시상식 : 10. 2 14:00 / 장소 : 코엑스 4층 그랜드컨퍼런스룸
- 수상작전시 : 10. 2 ~ 10. 6 / 장소 : 코엑스 인도양홀

주요 공모요강

가. 응모 작품 및 자격

- 응모작품 : 제시된 주제를 적용한 미발표 창작 작품
- 작품주제 : 무한 상상력의 건축 - 도시적 비전과 건축적 상상력
- 주제설명 : 도시는 오랜 시간의, 과거의 역사적 축적과 미래에 대한 비전의 만남에 의해서 생명력을 가진다.

아름다운 도시로 꼽히는 도시는 오래된 문화적 유산을 잘 보존한 곳이기도 하지만 지금도 사람이 모이고 활기에 넘치는 곳이면서도 미래의 비전을 볼 수 있는 곳이다.

많은 종류의 도시가 있다. 맨해튼과 같은 순수한 계획도시의 모습도 있고 수천년의 역사를 가진 동서양의 고도도 있다. 반면 최근 두바이 같이 창의적 지도자의 리더십에 의해서 새롭게 창조되는 미래형 도시도 있다.

우리의 과제는 아름다운 미래형 도시에서의 창의적 건축을 만드는 것이다.

그 작업을 위해서는 정치적 지도자의 역할도 있고, 경제적인 역량도 필요하지만, 건축과 도시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가진 전문집단의 상상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건축적인 연구와 설계는 그 건축을 배경으로 하는 도시 혹은 지역의 개별성, 즉 특수한 지리적, 역사적, 인문적 잠재력을 파악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그러한 연구의 토대 위에 창의적인 건축은 새로운 생활 패턴의 제안, 환경과 자연에 대한 이해, 경영과 관리의 새로운 개념을 필요로 한다.

우리나라의 각 지역과 지방자치단체는 제한된 산업기반과 자원의 한계 속에서 스스로 경제적인 자립 구조를 모색하며 창의적인 발전 모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한 자생적인 발전 모델의 개발에 있어서, 개별성에 대한 창의적인 해석을 통한 새로운 건축적 제안은 중요한 방향 제시가 될 것이다.

지역에 대한 발전적인 제안을 담은 건축적 작업의 테마를 찾아내고 창의적 상상력을 통하여 그것을 건축화한다. 지역과 도시와 건축의 문제는 여러 가지의 조건으로 제한되어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상상력의 세계로 무한히 열려있다.

본 공모전의 대지는 특정도시 지역 내의 임의의 부지를 자유롭게, 반드시 선정하여야 하고, 도시적 맥락을 심층적으로 고려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창의적인 건축을 참가자들에게 기대한다.

- 출품자격

- 일선 건축분야 설계업무 종사자(건축사자격 소지자 제외)
- 대학(전문대학) 및 대학원 건축관련학과 재학생
- 일반국민

나. 주요 출품규정

- 작품계획안(AO) 1부 제출
- 작품계획안(AO) 1부 제출(작품의 전개과정, 설계개념, 투시도, 기본도면 포함)
- ※프리핸드 드로잉(freehand drawing)은 필수 포함.
- 1차 심사 통과작품에 한해 추후 패널 및 모형 제출

심사

가. 심사방법 : 패널 및 모형 심사

- 나. 심사위원 : 정태복(주.부산건축 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 - 위원장
김형수(주.씨디에스 건축사사무소 대표)
민규임(주.토마 건축사사무소 대표)
백민석(주.건축사사무소 시그에이 대표)
조원용(건축그룹 다이아몬드 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주. 대표)
조충기(건축사사무소 간향 대표)

시상내용

- 대 상(1점) : 상금 500만원, 건설교통부장관상, 해외건축탐방
- 우수상(5점) : 상금 200만원, 대한건축사협회장상, 해외건축탐방
- 특 선(6점) : 상금 100만원, 대한건축사협회장상
- 입 선(20점 이내) : 상금 30만원, 대한건축사협회장상
- ※우수상 이상 수상자(대학 재학생에 한함)중 영여 인터뷰 심사를 거쳐 ARCASIA 학생잼버리대회 파견 특선

수상자 명단

■ 大賞(건설교통부장관상)

- Rhizome 리좀이론을 적용한 동광동 인쇄문화단지 계획 / 이수영(부경대학교 건축학과)

■ 優秀賞(대한건축사협회장상)

- Recycling Carpet, 중랑하수처리장을 활용한 재생공원 계획안 / 박성수, 최상용, 박정선(한양대학교 건축대학원 건축설계전공)
- 한류통신사(조선통신사의 현대적 재해석 및 대지주변 경계의 융해를 통한 아시아 문화교류의 장 도입 계획안) / 김성산, 손희진, 정일향 (부경대학교 건축학과)

- 역사도시의 문화재 활용에 대한 제안 / 이신화, 권구인, 김채윤(공주대학교 건축학과)
- Floating the complex city. 다양한 문화와 다양한 사람들이 어우러져 새로운 소통의 장이 형성되는 공간 / 오수희(부경대학교 건축학과)
- An Expansion of a Boundary by Duplex Layers. 수원 화성 내 도시공간의 현대적 재해석 / 정희석, 양기인, 정지원(아주대학교 건축학과)

■ 特選(대한건축사협회장상)

- Insert way for revival. 길과 교육기능의 확장을 통한 광복로 복합교육문화시설 계획안 / 황현혜, 신주영(부경대학교 건축학과)
- Floating Hydro-Polis. Infrastructure 하부공간을 활용한 leisure facility 계획안 / 강영주, 김지완, 임재경(동의대학교 건축학과)
- Interactive Culture Interface. 도심 속 잉여공간을 활용한 도시재생의 문화공간 계획안 / 장성희, 박영철(부경대학교 건축학과)
- Resonance. 지역성 해석을 통한 건어들 시장 활성화 계획안 / 김혜경, 김희백, 박찬숙(부경대학교 건축학과)
- Gateway of the flow. 통영사람 구출작전 / 정민규, 이준석, 윤지환(홍익대학교 건축공학부 건축학전공)
- Yong-san Park, Han River and Skin - scape / 조성태, 이재원, 오보경(한양대학교 건축대학원 건축설계전공)

■ 入選(대한건축사협회장상)

- Tera-Untectonic process. 지역적 건축을 통한 문화인프라 연결 / 황수용, 최낙훈(홍익대학교 건축공학과)
- Path by the underground. 남포동 지하사가 재구축을 통한 지역활성화 방안 / 권정식, 조장현, 문숙진(동의대학교 건축학과)
- The city is an archipelago / 김지혜, 이성재, 김성민(한경대학교 건축학부)
- 세운상가의 꿈 / 김진수, 안우철, 손인아(부경대학교 건축학과)
- From the side, to the center / 김유리(성균관대학교 건축학과)
- In or out. 도시적 공간에 대한 물음 / 김대익, 정준영, 정우석(인하대학교 건축학과)
- Digital Canvas.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혼합과정을 통한 남포홍보센터 계획안 / 박정훈, 남 시, 이 용 (부경대학교 건축학과)
- City of Hub. 비주얼인터페이스에 의한 도심 속 네트워크 형성 / 장태석, 임예순, 현준섭(부경대학교 건축학과)
- Urban terrace / 김우상, 김준용, 감동호(건국대학교 건축전문대학원 건축설계학과)
- Flow of eculture. 울곡로의 시각적 흐름과 연계된 문화공간 계획안 / 박유경, 손민정, 박효정(홍익대학교 건축공학과)
- Urban Oasis. 다양한 행위가 발생하는 복잡한 도심속 커뮤니티 공간생성을 위한 영상문화센터 계획 / 광지숙, 김진현(부경대학교 건축학과)
- City's Gateway. 입구성 도입을 통한 영도활성화 방안 / 김영인, 황신형(부경대학교 건축학과)
- Convergence & Expansion. 집중과 확장을 통한 해양문화공원 활성화 / 옥경화, 김진수, 김슬아 (부경대학교 건축학과)
- 흔적 길들이기 / 주익현, 정지영, 이현희(홍익대학교 건축공학과)

- Archirail. 도시재생을 위한 폐쇄철로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소고 / 박상현(부경대학교 건축학과), 김성룡(부경대학교 건축공학과)
- Imaginable Micro city. Context 보전을 통한 Mat-structure Block : 도심 저층 주상복합 / 이 황 (서울대학교 대학원 건축학과)
- The last house of my life. 목섬유원지 남골당 계획안 / 고영욱(건국대학교 건축전문대학원 건축설계학과)
- Reflection and Reorder. 사직단의 재생과 역사적 정체성 회복을 위한 역사공원 계획 / 민준홍, 권신혜, 김휘경(홍익대학교 건축공학과)
- Norangjin Arirang / 박보성(홍익대학교 건축공학과)
- Urban Streaming. 탄천을 중심으로 종합운동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Bridge 계획 / 김준영, 고우현, 정승호(수원대학교 건축공학과)

심사평

정태복 / (주)부산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 심사위원장

건축은 우리가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도시환경을 구축하는 기본으로써 문화의 바탕이 되며 그 시대의 거울로서 인류문화의 자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뿌리를 내리고 살아오고 있는 도시는 지난 100여년 동안 주권상실, 양차세계대전과 해방, 그리고 한국전쟁 등 암울한 근세사를 거치면서 그 전통성과 정체성이 단절되고 변질되었으며 급격한 산업화와 개발 우선화로 인해 도시 환경은 크게 훼손, 파괴되었고 건축 또한 문화로서의 본원적 가치가 크게 벗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이번 2007 한국건축문화대상 계획건축물 부문 공모전에서는 미래 예비 건축사로서 도시공간을 읽어내고 그 속에서 잊혀져간 도시 공간 속의 이야기를 찾는 것에서부터 도시 디자인의 미래 비전을 무한상상력을 통해 제시하는 의식 전환의 장을 마련하여 보았습니다. 이번 주제 「무한 상상력의 건축」가 어떻게 생각하면 극히 추상적인 개념 같아서 작품주제, 부지선정, 프로세스 정리 등에 있어서 출품자들이 사고의 한계벽을 많이 느꼈을 것입니다.

한편으로 건축의 정체성은 창작이라 하며 진정한 용기는 무지에서 생겨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당초 우려했던 것과는 달리 참가자들의 깊은 관심 속에 예년에 못지 않는 많은 작품이 출품되어 3단계에 걸친 엄정한 심사과정을 통하여 입선과 특선, 우수상, 대상 등 총 32점이 선정되었습니다. 이번 심사의 기준은 기본적으로 작품의 완성도와 도시 읽기에 대한 이해도, 부지선정, 도시 형성의 독창적 해석과 주제 내용 중 '무한상상' 이라는 화두를 가지고 건축의 언어로 구체적이고 물리적인 형태로 건축화 되어가는 과정이 창의적으로 제시되는 것을 보았으며, 특히 최종 심사에서는 주제선정과 Design Process를 통하여 독창성이 뛰어난 작품과 건축적 표현의 우선보다는 주어진 주제를 창의적으로 해석하고 그 Idea를 건축적으로 완성, 표현한 작품과 아울러 출품자가 자신의 작품소개에 대한 진지함과 성실한 태도 등을 우선시 하였습니다.

출품작 전체적으로는 대부분 기본적인 완성도나 표현면에서는 그 노력과 열의가 대단하였으나 주어진 주제를 도시와 건축적인 시각에서 바라본 독창적인 Context나 건축적 언어로서의 구체적이고 물질적인 형태의 프로세스나 완성도 면에서는 다소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이번 공모전은 여건상 준비하는 절대 시간도 부족하였고 빠른

학사일정과 어느 해 여름보다도 기록적으로 무더웠던 폭염 등으로 인해 작품 작업 환경이 최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시에 대한 깊은 관심과 건축적 열의를 가지고 고뇌하고, 낯밤을 새면서 이번 여름과 씨름했던 출품자, 수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여타 행정일정과 맞물려서 준비와 진행을 챙기느라 함께 애를 태웠던 '2007 한국건축 문화대상 공모전'을 위해 수고하신 모든 분께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김형수 / (주)씨디에스 건축사사무소

20년전 필자도 바로 이 대한건축사협회 공모전에 출품하여 입상한 기억이 생생한데 이제 이렇게 학생들의 작품을 심사하는 자리에 서게 되어 여러모로 감개무량합니다.

주제가 포괄적이어서 출품자들 풍부한 상상력을 볼 수 있었으며, 차세대 건축문화의 수준을 가늠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전반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패널 구성기법이나 모형의 제작방법의 수준이 많이 향상되었으며 심사위원들이 출품자들의 의도를 이해하는데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대상인 '리좀이론을 적용한 동광동 인쇄문화단지 계획'은 새로운 이론을 건축 계획에 접목시킨 수작으로 이론과 계획, 프레젠테이션이 모두 수준 높은 작품이었습니다.

우수작중 가장 눈에 띄는 작품은 '역사도시의 문화재 활용에 대한 제안'으로 이 작품을 처음 본 순간 본 심사위원은 출품자의 창의성과 열정에 가슴이 뛰는 느낌을 받았으며 서로 오랜 시간 반가운 대화를 나누는 느낌이었습니다. 현상에 대한 진지한 분석과 독창적인 프로그래밍, 그리고 형상화시키는 과정이 매우 인상적이었으며, 패널과 모형 구성구석에 배어있는 정성과 고민이 깊은 감동을 주는 작품이었습니다.

우수작인 '중랑하수처리장을 활용한 재생공원 계획안'은 자연친화적이고 거대한 구조를 재치있게 풀어낸 수작입니다. 또 패널과 모형에 나타난 이론적인 고찰은 이 작품이 만들어지기까지 출품자들이 깊은 고민과 열정을 담았다는 것을 충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밖에 'Floating the Complex City'와 'Interactive Culture Interface' 등 두 작품에 나타난 창의성과 노력을 같이 언급하고자 합니다.

건축의 창작은 언제나 즐겁고 활기찬 축제이며, 인간의 삶을 가장 내면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예술입니다. 입상하신 출품자분들께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건축에 대한 열정과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고 더욱 더 심화시켜나가기를 당부드립니다.

만규암 / 토마 건축사사무소

먼저 훌륭한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한 여러 출품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입상권 안에 들어서 감격했을 입상자뿐만이 아니라 낙선자 모두 정말 우열을 가리기 힘들 정도로 뛰어난 작품들이 많이 응모되었습니다. 사실 건축을 배우는 학생의 신분으로 이런 기회를 스스로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꽤나 단호한 결정을 필요로 하고 제출의 과정 자체가 고난의 길이라는 것을 건축인이라면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이번 공모전에 작품을 제출한 모든 사람들이 모두 입상자요 승리자라고 생각합니다. 한 작품 한 작품 모두 건축이란 것이 얼마나 많은 고뇌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필자는 건축설계를 업으로 삼을 사람이라면 이번 결과의 우열에 전혀 개의치 말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번 심사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심사를 하려고 하였지만 필자의 그

짧은 시간에 출품자 각자의 고뇌를 모두 읽을 수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속에는 매우 진주같은 생각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깊은 생각들은 이런 공모전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저 이번 결과에 주눅들거나 실망하지 말고 묵묵히 자신이 하고자 하는 건축의 길로 매진한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다고 믿습니다. 특히 이번 심사에서는 한 대학의 출품작의 숫자가 전체 출품작의 숫자 중 두드러지게 많은 것이어서 심사위원들에게는 놀라움이었고 그 수준 또한 높아서 심사 중 그 정열에 흐뭇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입선의 여부를 떠나서 노력하는 건축인의 모습을 보여준 여러 학생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백민석 / (주)건축사사무소 시그에이

먼저 2007 한국건축문화대상 계획부분에 참가한 모든 팀에게 심심한사의를 표하는 바이며, 제시된 주제에 대한 숙고한 결과를 통해 수많은 참가자들과 경합 끝에 수상의 영광을 안게 된 32개 팀에게는 축하의 박수 또한 보냅니다. 금번 한국건축문화대상 계획부분의 진행과정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사항은 규정의 준수였습니다. 심사를 통해 순위를 정하는 경기에는 관련 규정이 있게 마련이고, 그 규정에 근거하여 경기가 진행됩니다. 제시된 규정은 해당 경기의 운영과 평가에서 특정 참가자에 대한 치우침이 없이 평등한 환경을 조성하는 제한인 것이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해당 경기의 결과에 대한 신뢰성이 심각하게 손상되어 이후의 경기 진행에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규정은 약속입니다. 이러한 규정의 준수는 민주사회에서 공정경쟁의 기본 조건인 것이며, 신분 등에 의하여 변칙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 건축사가 아닌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건축공모전의 경우 참가자들의 대부분이 학생의 신분임을 고려, 다소 느슨하게 규정을 적용, 심사결과 발표 후 잡음이 끊이지 않았음을 부인하지는 못합니다. 금번 2007 한국건축문화대상 계획부분의 경우 1차 작품접수부터 심사종료까지 해당규정에 의거, 과거 어느 때 보다도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냉정한 진행을 하였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2차 출품당시 출품규격의 초과로 모형 및 패널을 현장에서 잘라내고 제거하는 등의 소란이 있었고 지방 모 대학교 학생들의 경우 교통상황에 의해 단체로 제출마감 시간을 위반하였으며, 참가자 중 일부는 규정을 너무 까다롭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냐고 불멘소리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규정의 준수는 전술한 바와 같이 공정성을 담보하는 최소한의 장치이며, 아무리 경미한 사항이더라도 이의 위반은 결코 합리화될 수 없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참가자가 배우는 학생들이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제출마감시간을 위반한 작품 중에는 입상권에 충분히 오를 수 있는 수작들이 있었음을 이 자리에서 밝힙니다. 하지만 규정을 위반하였기에 이 참가자들은 심사과정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출품자들이 컴퓨터와 씨름하고, 감기는 눈을 크게 뜨고 작은 모형 조각들을 핀셋으로 고정시키면서 하얗게 지새운 수많은 까만 밤들을 생각하면서도 이와 같은 냉정한 판단과 결정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심사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많은 안타까움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필자뿐만 아니라 심사위원 대부분이 학교에서 학생을 지도하는 입장이어서 더욱 아쉬움이 컸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심사위원들이 이러한 고민에 휩싸이지 않도록 참가자 모두가 규정을 위반하지 않고 정당한 평가를 받기를 기원하며, 수상자들에게 다시 한번 축하를 보냅니다.

조원용 / 건축그룹 다이아몬드 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주)

총 3차에 걸친 심사를 마치면서 계획부분 출품자들에게 진심 어린 격려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 금번 주제가 '무한 상상력의 건축' 이었는데, 그 추상적인 개념 때문이었는지 출품자들이 자유로운 사고의 표현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 같았다. 학생시절에만 가능한 일인 자유로운 건축의 발상이지만, 스스로 만들어내는 이론과 전개방식에 당위성을 부여하는 일은 필수적이다. 자신의 생각을 강요하지는 않지만, 보는 이들에겐 고개를 끄덕일 만한 공감을 끌어내야 하는데, 이번 출품작들에서는 그럴만한 커뮤니케이션을 주는 작품이 드물었다. 주제를 적절히 담지 못한 아쉬움이 느껴지는 대목이다. 건축의 현실성도 그 중 한 부분이다. 스스로 작품 활동을 할 수 있는 미술과는 달리 '의뢰인' 이 있어야만 건축을 할 수 있는 우리의 특수성은 학생시절부터 어느 정도 인식이 되어져야한다고 본다. 그렇다면 자유로운 상상 속에서 이뤄지는 실현 가능한 여건들과 방식의 제안이 함께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다.

최종 심사에 참여한 12작품은 모두 우수한 작품들로서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지경이었지만, 인터뷰를 통해 학생들의 계획의도를 들으면서 순위를 가리는데 도움을 받았다. 좋은 계획의도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패널과 모형에 그 내용이 다 표현이 안 되어 심사위원들에게 그 의도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되었다면 오히려 더 나은 계획안이 최종 12작품 내에 들지 못할 수도 있었겠다. 차기에는 본선에 오르는 모든 작품에 구술심사를 포함하여 계획의도를 보다 명확히 파악한다면 더 멋지고 좋은 계획 작품들을 만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출품자의 도덕성 문제도 한번 짚어야 할 문제이다. 중복 출품을 금지하는 상황에서 같은 대지에 같은 내용으로 표현을 약간 수정해 다른 대전에 복수 출품하는 것은 학생으로서 해야 할 바람직한 자세는 아니다. 1차 심사 때 그런 작품들은 일일이 확인해 다 걸러냈지만, 불필요한 시간낭비를 한 것 같아 씁쓸하기까지 했다

특정 지역과 학교의 편중은 차기에 개선이 되어야 할 부분으로 보인다. 전국에 있는 여러 대학에서 함께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대한건축사협회의 홍보와 노력도 필요하다. 학생시절에 '건축사' 라는 동경하는 전문가집단과의 첫 만남이 계기가 되어 우리에게 후일 촉망받는 건축사로서 활동하는 멋진 후배들이 될 터인데, 깊은 추억과 감동을 느낄 수 있도록 더 따뜻한 배려와 격려를 아끼지 말아야 하겠다.

조충기 / 건축사사무소 간향

대한건축사협회에서 주관하는 한국건축문화대상에서 계획 건축물 부문을 공모하는 의도가 무엇인지를 생각할 수 있었으면 한다. 이 계획 부문은 기성 건축사들의 준공된 작품이 아닌 그야말로 학교에서 배운 건축적 지식의 바탕위에 무한한 창의력을 발휘하는 신선한 역량을 갈망하고 있는 것임과 동시에 얼마나 성실히 노력하였을까? 사회에 공헌하는 기본적인 자세는 준비되어있는가? 하는 대단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본인의 창의력을 훼손하는 모방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더더욱 본인의 의지가 막연한 추상으로 미화되어 계획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은 마땅히 비판받아야 할 일일 것이다.

설계의도를 표현하는 능력은 대단한 일일 것이다. 그러나 건축은 그림이 아니다. 내용이 왜곡되어서도 안 될 것이고 표현하고자 한 건축물이 다른 건축물이 되어 생성되어서도 안 될 것이다. 대부분의 참가자들은 상상 이상의 노력을 보이고 있음에도 일부분의 작품에서는 보여주려는 설계의도가 실제 계획과는 별개인양 막연한 개념이나 그림을 표현하고 있어 아쉬움이 남는다. 이러한 막연한 표현의 전개는 재고되어야 한다. 또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표현한 패널과 모형을 두고 발표자가 별도의 자료를 준비하여 설명하는 모습은 어딘가의 부족으로 오해되기 쉽다. 정해진 규격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진지한 모습은 아름다운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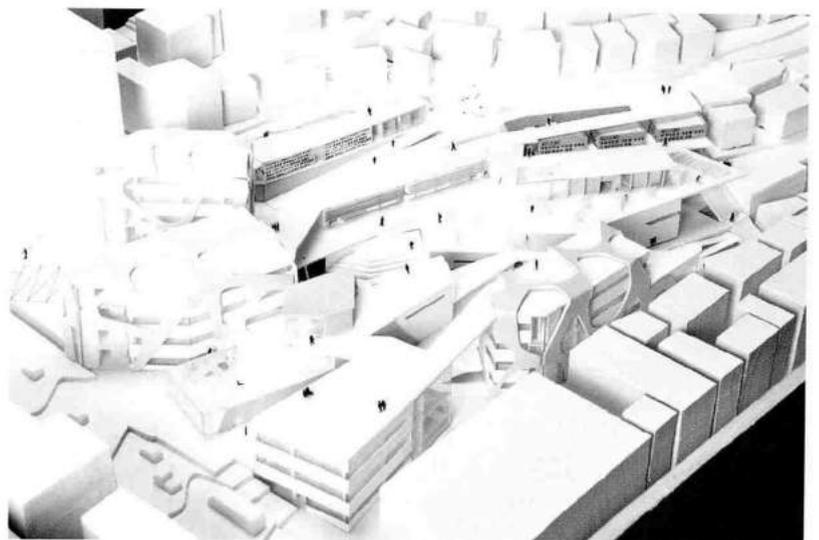
이번 공모에서 작품 제출 규격을 지키지 아니하여 접수 장소에서 작품을 수정하는 모습은 기본적인 약속을 도외시한 점이다. 무엇보다도 작품의 우수성에도 불구하고 마감시간을 넘겨 심사대상에서 제외된 작품들은 안타깝기 그지없다. 제외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상의 의미로 받아들이고 이해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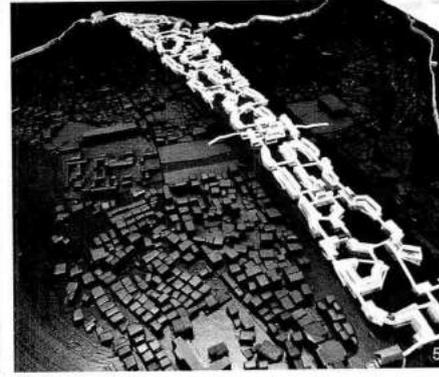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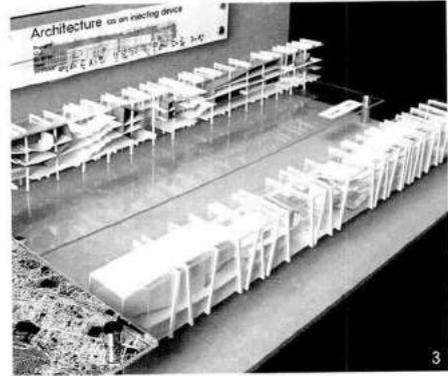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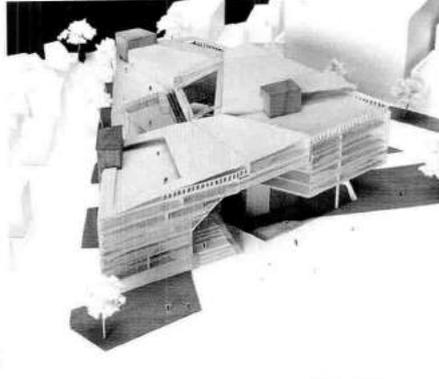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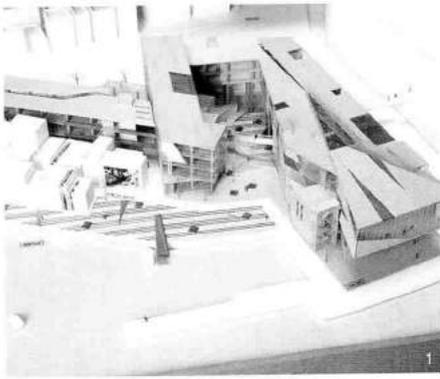
'무한 상상력의 건축 - 도시적 비전과 건축적 상상력'이라는 결코 쉽지 않은 주제를 놓고 나름대로 남다른 창의력을 보여준 모든 참가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린다.

평가는 평가일 뿐이다. 이 평가가 영원한 승자를 가리는 것도 아니다. 미래는 여러분에게 열려 있는 것이니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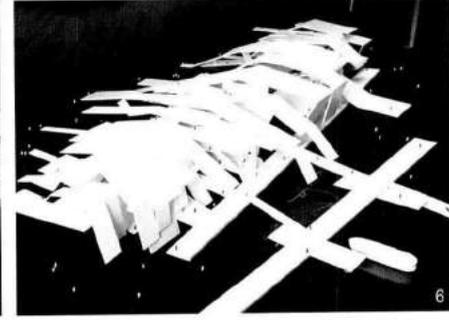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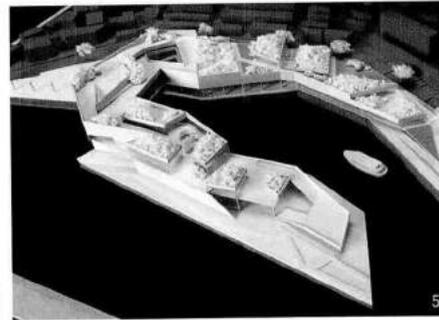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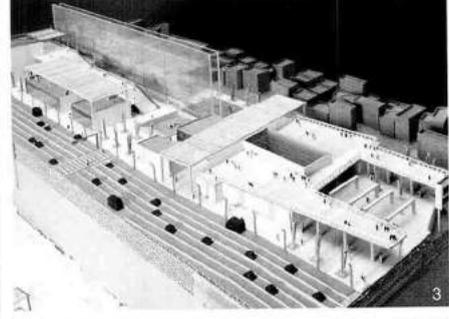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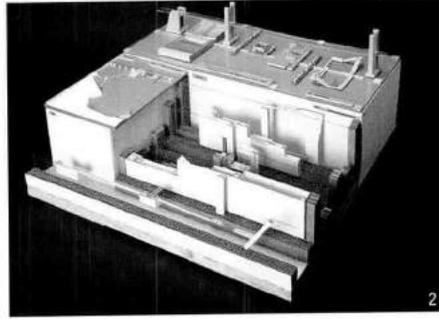
계 · 획 · 건 · 축 · 물 · 부 · 문 | 대 상

Rhizome.
리좀이론을 적용한
동광동 인쇄문화단지 계획
/이수영





1. 한류통신사, 조선통신사의 현대적 재해석 및 대지주변 경계의 융해를 통한 아시아 문화 교류의 장 도입 계획안/김성산, 손희진, 정일향 2. Floating the complex city, 다양한 문화와 다양한 사람들이 어우러져 새로운 소통의 장이 형성되는 공간/오수희 3. 역사도시의 문화재 활용에 대한 제안/이신화, 권구인, 김채운 4. Recycling Carpet, 중랑하수처리장을 활용한 재생공원 계획안/박성수, 최상웅, 박정선 5. An Expansion of a Boundary by Duplex Layers, 수원 화성 내 도시공간의 현대적 재해석/정희석, 양기인, 정지원



1. Insert way for revival, 길과 교육기능의 확장을 통한 광복로 복합교육문화시설 계획안/황현혜, 신주영 2. Floating Hydro-Polis, Infrastructure 허부공간을 활용한 leisure facility 계획안/강영주, 김지완, 임재경 3. Interactive Culture Interface, 도심 속 잉여공간을 활용한 도시재생의 문화공간 계획안/장성희, 박영철 4. Resonance, 지역성 해석을 통한 건물 시장 활성화 계획안/김혜경, 김희백, 박찬숙 5. Gateway of the flow, 통영시립 구술작적/정민규, 이준석, 윤지환 6. Yong-san Park, Han River and Skin - scape/조성태, 이재원, 오보경



1. Terra-Untectonic process. 지형적 건축을 통한 문화인프라 연결/황수용, 최낙훈 2. Path by the underground. 남포동 지하상가 재건축을 통한 지역활성화 방안/권정식, 조창현, 문숙진 3. The city is an archipelago/김지혜, 이성재, 김성민 4. 세운상가의 꿈/김진수, 안우철, 손인아 5. From the side, to the center/김유리 6. In or out. 도시적 공간에 대한 물음/김대익, 정준영, 정우석 7. Digital Canvas.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혼합과정을 통한 남포동보존센터 계획안/박정훈, 남 시, 이 용 8. City of Hub. 비주얼 인터페이스에 의한 도심 속 네트워크 형성/정태석, 임예순, 현준섭 9. Urban terrace/김우상, 김준용, 감동호 10. Flow of eculture. 울교곡로의 시각적 흐름과 연계된 문화공간 계획안/박우경, 손민정, 박효정 11. Urban Oasis. 다양한 행위가 발생하는 복잡한 도심속 커뮤니티 공간생성을 위한 영상문화센터 계획/곽지숙, 김진현 12. City's Gateway. 입구성 도입을 통한 영도활성화 방안/김영인, 황신형 13. Convergence&Expansion. 집중과 확장을 통한 해양문화공원 활성화/옥경화, 김진수, 김슬아 14. 흔적 길들이기/주익현, 정지영, 이현희 15. Archirail. 도시재생을 위한 폐쇄철로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소고/박상현, 김성룡 16. Imaginable Micro city. Context 보전을 통한 Mat-structure Block : 도심 저층 주상복합/이황 17. The last house of my life. 독성유원지 남공당 계획안/고영욱 18. Reflection and Reorder. 사적단의 재생과 역사적 정체성 회복을 위한 역사공원 계획/민준홍, 권신혜, 김휘경 19. Norangjin Arirang/박보성 20. Urban Streaming. 반전을 중심으로 종합운동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Bridge계획/김준영, 고우현, 정승호

올해의 건축문화인상 '이리형' 청운대 총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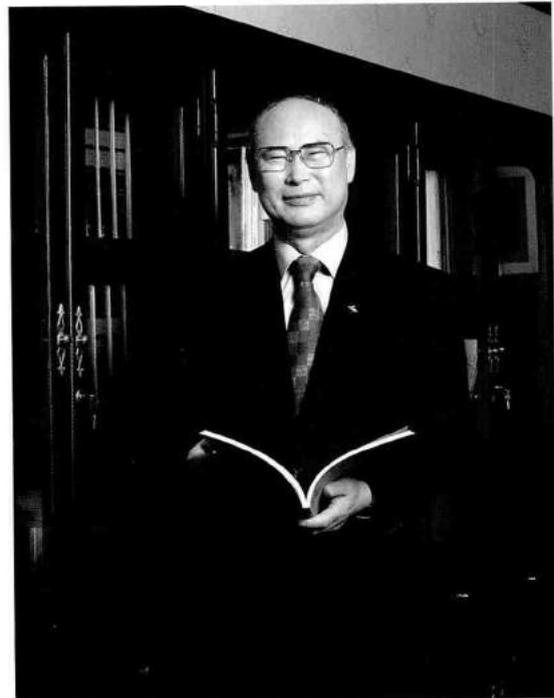
Q. 2007 한국건축문화대상 '올해의 건축문화인상' 수상소감을 피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제가 영광스러운 건축문화대상을 받게 되어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제 주변에서 물심양면으로 그리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도와주시고 같이 동행하여 주신 고마운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항상 겸손한 자세로 앞으로 더욱 건축계의 발전을 위해 노력 하라는 분부로 알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Q. 30여년간 대학교수로서 연구와 인재양성에 헌신하여 오늘에 이르렀는데, 최근 건축교육에 대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A. 급변하는 건축환경과 WTO체제로의 세계적 추세는 이미 우리시장에 미치고 있습니다. 대한건축사협회, 한국건축가협회와 함께 대한건축학회장으로 제가 재직하는 동안 가장 많은 공을 들인 부분이 '건축학 교육인증원'입니다. 더불어 '건축공학인증원'을 국제기준에 맞도록 시도하였습니다. 우리 건축교육이 이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세계 시장에서 어깨를 나란히 하기 위함입니다. 스포츠, 영화 등 여러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분야들의 공통점은 시장의 개방이었습니다. 물론 우리 건축환경이 당장 완전개방에 힘들어 질수 있습니다. 그러나 철저하게 준비하면 우려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건축교육이 인증된 제도만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제공된 시스템에 시간과 공을 들여 우리만이 할 수 있는 내용(contents)을 만들어 나가야합니다. 건축교육에 우리 고유의 문화(culture)와 기술(technic)을 전통(tradition)과 상상력(imagination)을 기본으로 하는 교육이어야 합니다.

Q. 건축과 '교수'로서 인재양성관과 대학교 총장으로서의 인재양성관을 듣고 싶습니다.



A.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인재를 양성하는 것은 아마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가정에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습니다만 두 분의 역할은 때론 공유되면서도 분리되어 있지요. 인재를 키우려면 편모 또는 편부만 가지고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머니와 같은 자세로 인격을 두루 강조하며 제자들을 키우려고 노력했습니다. 또한 전문지식에는 아버지의 엄격함을 강조 하였지요 그런 가운데 인격적으로는 모나지 않고 함께 어울려서 일을 추진하는 것을 요구했었습니다. 특히 건축은 혼자서 할 수 없는 협업에 의한 부분이 가장 강조되는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총장이 되서는 제자들을 직접적으로 대면하기보다는 교수님들이 제자들을 잘 양육할 수 있는 운영시스템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평생 교수로서 재직할 경험은 큰 도움이 되고 있고 또 길지 않은 기간 동안 부총장직을 수행하면서 얻은 경험이 저에게는 자산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저의 역할이 교수, 부총장 그리고 총장으로 변화 하였을 뿐이지 인재 양성에 대한 철학의 바탕은 같다고 봐야 합니다.

Q. 일생을 한국의 건축구조 발전에 헌신하여 오셨는데, 기억에 남는 프로젝트나 에피소드가 있다면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A. 원래 건축과에 입학 했을때는 건축설계를 통해 멋있는 건물을 설계하려는 목적이 있었습니다만 저에게는 이 부분보다는 구조에 관심이 높았던 것 같습니다. 일본에 유학 시 우연히 고층건물에 관련된 연구테마를 받은 탓도 있습니다만, 이 연구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의 초고층건물의 구조설계나 시공기술에 관심을 갖게 되고 또한 실험연구에 접할 기회가 많았습니다.

귀국 후 이런 이유에서인지 40대초에 63빌딩 구조설계에 참여할 기회가 있었습니다만 경험이 부족한 저에게는 참으로 어려운 점이 많았던 것이 기억에 생생합니다.

우선 바람과 지진하중을 몇 년 주기로 어떻게 책정할 것인지? 해석 프로그램은 어떤 것을 활용할 것인지? 여의도의 모래 지반 위에 기초형식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이런 모든 것이 국내에서는 처음 시도되는 일이라 일본으로 지도교수를 찾아가 의논하고 국내기술진의 많은 지도와 협력으로 처리한 것이 기억에 납니다.

그 후 한국의 초고층건물 설계나 시공 시에는 이때 새로 도입된 기술들

이 폭 넓게 활용 되었지요. 그 예로 후판 60mm 이상 두께의 용접방법, 기초의 RCD(Reverse Circulation Drill) 공법, 외벽의 Mock-up시험 방법, 풍동실험 방법, 지진력의 정적·동적해석 도입 등이 있지요.

여하간 이런 연유로 건설교통부에서 초고층관련 연구프로젝트를 의뢰받아 연구한 결과를 130층의 건물에 활용하여 발표한 것이 최근 여러 초고층건물에서 설계에 조금이나마 활용되고 있는 것은 큰 보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Q. 올해의 건축문화인상 수상자로서 후배 건축인과 후학들에게 해주실 말씀이 있으시다면?

A. 제가 건축에 입문하여 보내온 시절에는 그 나름대로의 우리세대의 역할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열악하고 또 해야 할 연구와 후학을 기르는 일들에 정열을 가지고 일하였습니다. 요즘은 풍요 속에서도 더욱 힘든 건축환경을 부인하기 힘든 것 또한 사실입니다. 즉 외부환경은 그 때나 지금이나 만만치 않습니다. 또 언제나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겐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희망과 목표를 항상 품고 세계적인 규모에서 경쟁력이 있는 젊은 후배 건축인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우수한 두뇌와 신체적 대응함을 갖춘 우리 후배들은 이제 외국과 당당히 맞서 선의의 경쟁을 할 수 밖에 없고 또 해야 합니다. 스승보다 훌륭한 제자, 선배보다 나은 후배를 보는 것은 세상 큰 기쁨임을 부인하기 힘들 것입니다. 저의 이러한 희망이 제 자신만의 욕심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후배 여러분 새로운 시대에 주인이 되어 그 영광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인터뷰_백민석/대한건축사협회 이사)

»»» 이리형 청운대 총장 약력

· 1941	경기도 부천 출생	· 1995~2004	미국 UIUC에 STRESS연구소 설립/국제 공동연구 · SEminar etc.	· 2006.12	청운대학교 제4대 총장으로 취임
· 1964~1964	한양대학교 건축공학부 졸업	· 1994~1999	한양대학교 부총장(R&D담당)	수상경력	
· 1964~1966	ROTC 2기 육군공병장교	· 1996~현재	한국공학한림원 창립 정회원 / 명예회원	· 1992	한양대학교 백남학술상
· 1967~1968	일본 닛칸설계(주) 구조부원	· 1998~현재	대한상사 중재원 중재위원	· 1995	대한건축학회 학술상, 한국콘크리트학회 논문상
· 1968~1970	일본 동경대학 대학원 건축학과 공학석사	· 2000~2002	과학기술부 · 한국과학재단 지정 전국우수 연구센터(SRC/ERC) 소장 협의회 부회장, 회장	· 1997	국민훈장 동백장, 한양대학교 한양공로상, 미국콘크리트학회 학술공로상
· 1970~1974	동대학원 공학박사	· 2002~현재	미국 콘크리트학회(ACI), Fellow	· 1999	한양대학교 우수연구업적증, 한국전산구조공학회 공로상, 대한건축학회 우수 발표 논문상, '99건축문화의 해 공로상
· 1974~1975	동경대학 공학부 연구원	· 2001~현재	Honorary member, Hungarian Academy of Engineering	· 2000	한국콘크리트학회 학술상
· 1975~1977	미국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연구원	· 2004~2004	Co-chair, Council Tall Buildings and Urban Habitat 2004 Seoul Conference	· 2001	자랑스러운 한양건축인상
· 1977~2006	한양대학교 건축공학부 부교수, 교수	· 2004~현재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정회원	· 2003	한국콘크리트학회 공로상
· 1978~2000	대한주택공사자문위원	· 2004~2006	한국건축연합회 공동대표	· 2004	한국구조학회 작품특별상
· 1980~현재	대한건축학회 이사(연구담당), 부회장, 참여이사(현)	· 2004~2006	대한건축학회 회장	· 2005	한국구조물진단학회 특별상
· 1980~1985	63빌딩 구조설계	· 2004~2006	한양대학교 부총장(서울 Campus)	· 2006	대한민국 과학기술훈장 혁신장, 한국콘크리트학회 논문상
· 1989~1991	청와대 건설자문위원	· 2004~현재	한국제진면진협회 부회장, 회장(현)	· 2007	한국지반공학회 특별상
· 1990~1998	한국전산구조공학회 감사, 부회장, 회장	· 2005~현재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부회장		
· 1990~2002	한국콘크리트학회 이사, 부회장, 회장	· 2005~현재	문화재청 문화재 위원(건조물 문화재 분과)		
· 1991~1994	AC(미국콘크리트학회) 한국지부 이사, 회장	· 2006~현재	건설의날 포상후보자 평가위원회 위원장		
· 1993~현재	한양대학교 ROTC 총동문회 회장, 고문(현)	· 2005~현재	서울특별시 신청사 건립기금 관리위원회 위원		
· 1997~현재	한양대학교 총동문회 발전위원				
· 1993~1994	한양대학교 공과대학 부학장 및 건설연구소 초대소장				
· 1994~2003	과학기술부 구조시스템연구센터 지정 초대형구조시스템 연구센터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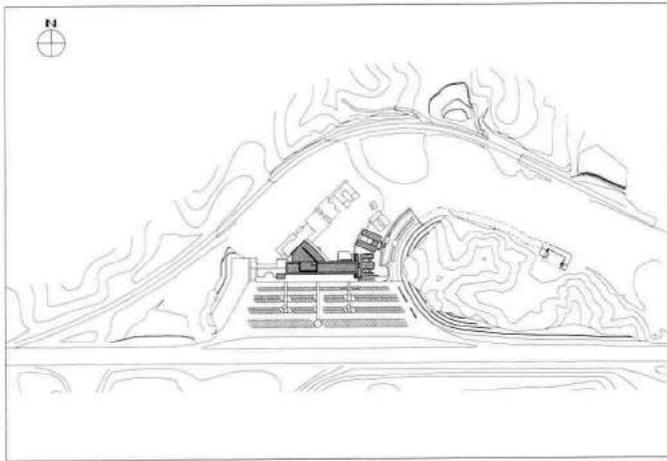
덕평자연휴게소

DeokPyeong Service Area

설계자 (주)종합건축사사무소 연미건축 | 인의식
 시공자 코오롱건설(주)
 건축주 덕평랜드(주)

● 배치도

● 건축개요



1 30 100 200m

- 대지위치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각평리 319번지 외 60필지
- 지역/지구 관리지역
- 대지면적 176,876㎡
- 건축면적 4,233,24㎡
- 연면적 5,265,64㎡
- 건폐율 24%
- 용적률 74%
- 규모 지상 5층
-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조
- 내부마감 폴리싱타일, 마천석톱날갈기, 방부목판재, 백색 V,P도장, 불연패널, MDF일판, 알루미늄 천정재
- 외부마감 방부합판 위 방부목, 복층유리, 마천석톱날갈기
- 구조설계 아크필구조기술사사무소
- 설비설계 미도설비기술사사무소
- 전기설계 코덕엔지니어링기술사사무소
- 설계담당 백문기, 이병호, 김용만, 곽지영, 김승훈



- Location 319, Gapyeong-ri, Majang-myeon, Incheon-si, Gyeonggi-do, Korea
- Site area 176,876㎡
- Bldg area 4,233,24㎡
- Gross floor area 5,265,64㎡
- Bldg coverage ratio 2,39%
- Gross floor ratio 2,42%
- Structure R,C+S,C
- Bldg. Scale B1, F3

- 1. 원경 야경
- 2. 전경 야경



Recess in Forest

인간은 자연에서 태어나 자연의 모든 것을 아름답고 편안하게 느끼도록 창조되었다. 모든 인공적인 요소들도 오랜 시간이 지나면 모두 자연의 일부로 변화되어 인공의 흔적을 잃어버린다.

그러한 맥락에서 이번 프로젝트의 디자인 개념은 자연 특히, 숲속의 나무형태에 주목하여 도출하였다. 자연과 조화를 이루고 적절한 위계를 갖춘 건축물은 항상 친근감을 주고 아름다워 보일 수 있다.

이번 휴게소는 전에 계획되었던 금강휴게소의 경우와 같이 대지가 갖고 있는 형상과 식생들이 건축물의 공간개념과 형태 도출에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상행과 하행의 진입도로 축에 의해 사선공간과 형태로 형성하였고, 외벽과 내벽에서 반복적으로 표현되는 수직 패턴은 대지 주변에 넓게 서식하며 수직으로 곧게 뻗은 리기다소나무 숲에서 유추하였다.

바위를 상징하는 중앙의 메스는 형태와 표면의 재질감이 그대로 내부로 관통이 되고 주변의 지붕과 천장으로 분절되어 주야간에 내, 외부 이미지와 빛이 교감되도록 하였다.

내부마감은 돌과 나무의 색상과 패턴이 반복되며 수직기둥과 창호에 설치된 목재 수직 루버에 의해 외부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였다.

화장실에서는 내부 중앙에 중정을 도입하고 거울을 통해 혹은, 창문 틈을 통해 자연과 하나되는 숲속의 화장실이 되도록 계획하였다.

장소는 물리적이지만 정신적일 수 있고, 주변 지형과 식생은 지리적이지만 건축적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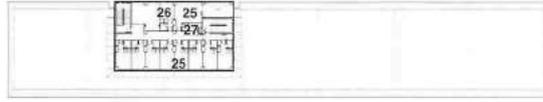
주변의 자연요소에서 유추한 건축물에 자연의 요소가 없다면 그만큼 감동을 줄 수 없다.

초기 계획에서 제안한 주차장에서부터 중정까지 건물을 관통하며 흐르는 리기다소나무 숲은 숲속에서 휴식을 보낸다는 상징성, 건물의 재질감과 패턴이 자연의 일부로 느껴지는 동질감, 반복되는 수직기둥과 창문의 수직 루버를 통해 보이는 수직 소나무 숲과의 조화 등의 여러 요소를 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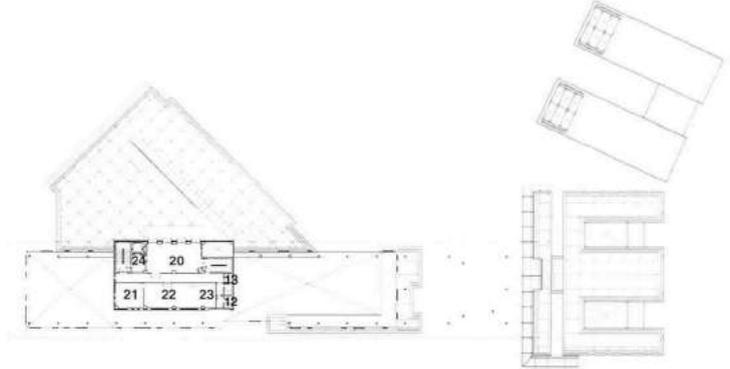
추후의 2단계 하행 휴게소에서는 자연과 건물이 하나의 모습으로 보여져 이용자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시설물이 되기를 기대한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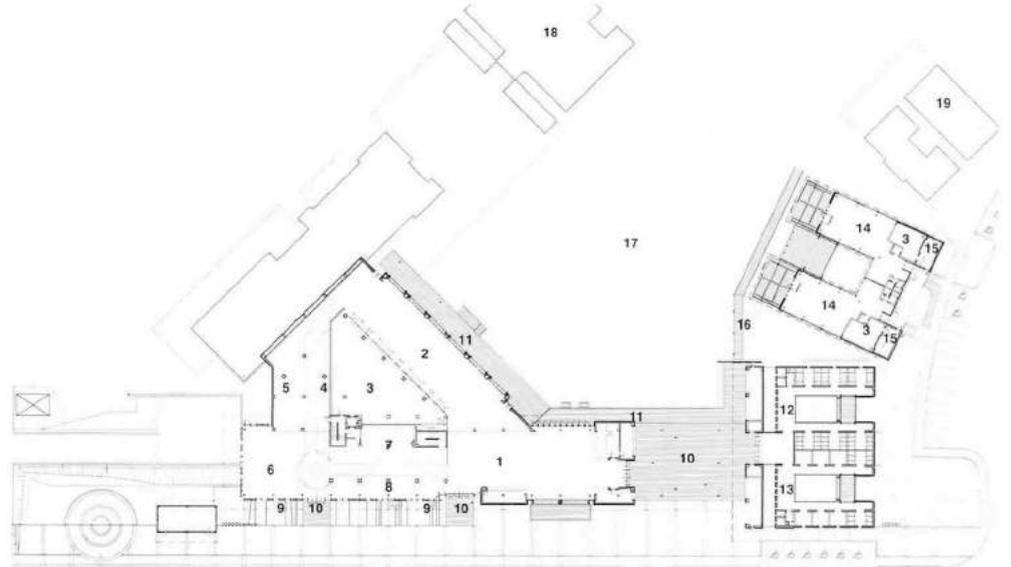
- 01. 간이식당
- 02. Food Court
- 03. 주방
- 04. 1000원 스푼
- 05. 쇼룸
- 06. 편의점
- 07. 건강용품/마사지
- 08. 팜도트산/도자기
- 09. 잔디 Deck
- 10. 마천석 Deck
- 11. 방부목 Deck
- 12. 화장실(여)
- 13. 화장실(남)
- 14. 홀
- 15. 야외작업장
- 16. 방부목보릿지
- 17. 중정
- 18. 하행유계시설(주유공사예정)
- 19. 전문식당동(주유공사예정)
- 20. 직원식당
- 21. 사장실
- 22. 사무실
- 23. 상환실
- 24. 간이주방
- 25. 직원숙소
- 26. 휴게실
- 27. 세탁실



3층 평면도



2층 평면도



1층 평면도

1 5 15 30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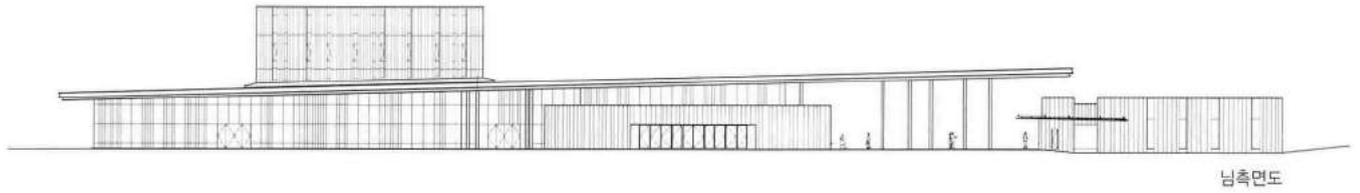


1, 2. 뒷마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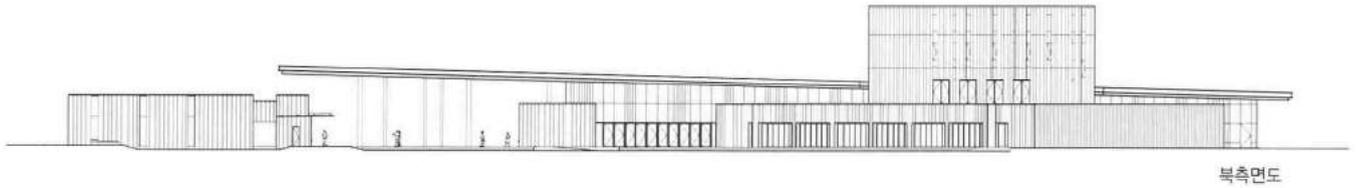
3. 테크 아경
4. Z-block 데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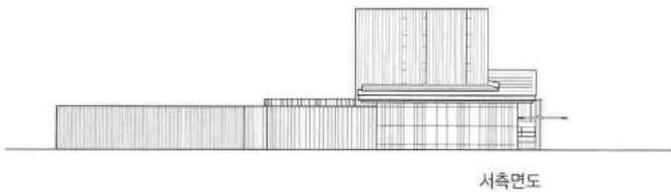




남측면도



북측면도



서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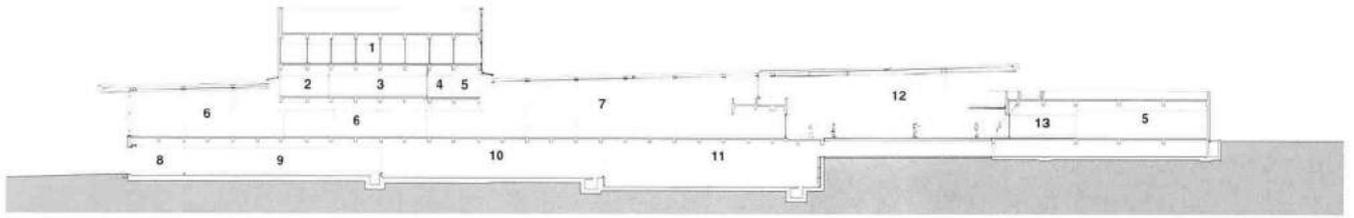


동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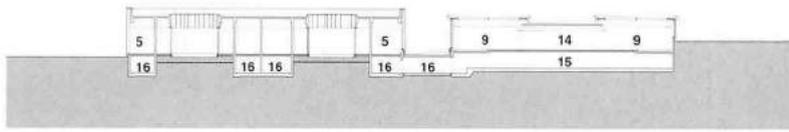
- 1. 1층
- 2. 2층
- 3. 옥외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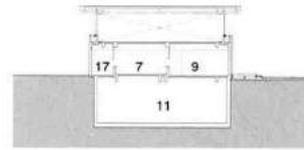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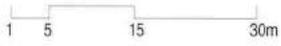
단면도 1



단면도 2



단면도 3



- | | | | |
|----------|----------|-----------|---------|
| 01_ 직원숙소 | 06_ 휴게시설 | 11_ 자수조 | 16_ 공동구 |
| 02_ 사장실 | 07_ 간이식당 | 12_ 야외데크 | 17_ 커피숍 |
| 03_ 사무실 | 08_ 주방전실 | 13_ 화장실전실 | |
| 04_ 상환실 | 09_ 주방 | 14_ 홀 | |
| 05_ 화장실 | 10_ 기계실 | 15_ PIT-2 | |

- | | |
|---------|------------|
| 1_ 대리실 | 8_ 무도코트 |
| 2_ 조명바탕 | 9_ 칩장 |
| 3_ 출장 | 4, 5_ 화장실 |
| | 6, 7_ 무도코트 |
| | 10_ 화장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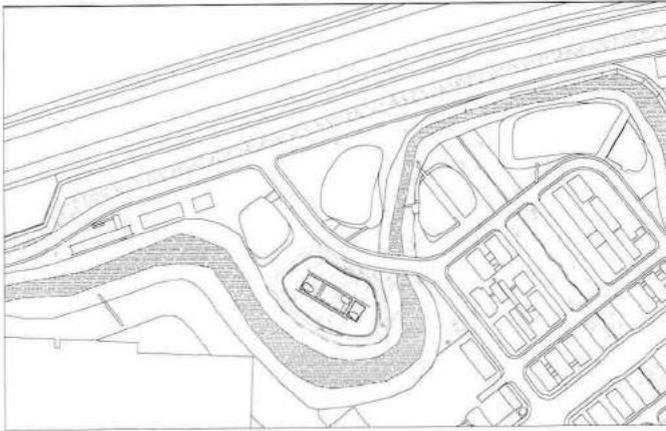
파주 응진씽크빅 사옥

Paju Woongjin Thinkbi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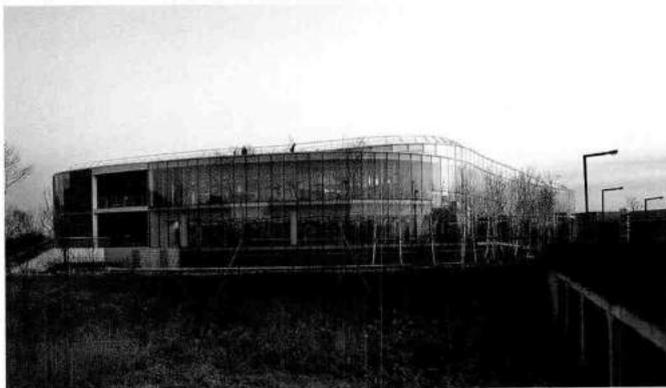
설계자 (주)건축사사무소 아르키움 | 정승권
 시공자 (주)웅진건설
 건축주 (주)웅진씽크빅

● 배치도

● 건축개요



대지위치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문발리 535-1
 지역 준공업지역
 주요용도 일반공장
 대지면적 6,642.8m²
 건축면적 3,226.93m²
 연면적 12,862.84m²
 건폐율 48.58%
 용적률 94.23%
 규모 지하 2층, 지상 2층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내부마감 T18 목재, 유공흡음패널, 수성페인트
 외부마감 T28 복층유리, T20 목재, U-glass
 구조설계 셉구조
 전기설계 협인전기
 기계설계 한일MEC
 설계담당 정용식, 강난형



Location 531-1, Munbal-ri, Gyoha-eup, Paju-si, Gyeonggi-do, Korea
 Site area 6,642.8m²
 Bldg. area 3,226.93m²
 Gross floor area 12,862.84m²
 Bldg. coverage ratio 48.58%
 Gross floor ratio 94.23%
 Structure R/C
 Bldg. Scale B2, F2



파주 웅진씽크빅 사옥의 형태는 파주 출판도시의 지침에 의해 바위 유형으로 정해진 것이다.

도시를 만드는 원칙에 동의한 이상 규정을 지키는 것은 규제를 받는 것과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오히려 건축의 시작을 형태로 접근해야 하는 일반론적인 프로세스로부터 놓여날 수 있다.

바위이지만 무겁게 박혀있는 것이 아니라 갈대밭 위에 떠있는 가벼운 바위를 상상했다. 무게를 덜기위해 건축은 투명한 질감으로 표정을 만들어야 했다.

출판사는 책을 만드는 곳이다. 책은 책 만드는 사람들이 만든다. 따라서 출판사는 책 만드는 사람들이 일하는 곳이다. 웅진씽크빅의 공간은 책 만드는 사람들을 위한 곳이다. 좋은 책을 만드는 공간이 어떤 모양을 해야 하는지 정해진 것은 없다. 다만 공간의 속성처럼 열려있으면 충분할 것이라 생각했다. 가능한 한 열어두고 닫을 곳은 최소가 되도록 했다. 구속되지 않는 공간의 흐름이 이루어지도록 칸막이를 치우거나 낮추고 투명하게 했다.

모양과 내용이 정해지면 그것을 어떤 의미로 채울 것인지 생각해야 한다. 의미는 곧 공간의 내용이 된다. 웅진씽크빅에는 커다란 마당이 있다. 내부로 둘러싸인 외부이다. 지붕이 없는 외부이지만 집안에 있으므로 한편으로는 내부이기도 하다. 내부와 내부를 이어주는 외

부는 그 역시 내부의 자세를 하고 있어야 한다. 공간의 일부가 되는 것이다. 마당을 사이에 두고 에워싼 공간들은 건너가고 건너오기도 하며 건너보기도하고 내다보기도 하게 된다.

건축의 공간은 바닥과 벽과 지붕으로 만들어진다. 대개 육면체를 이루지만 드러나 보이는 것은 전후좌우의 벽면만이다. 바닥은 땅에 접하므로 볼 수가 없고 지붕은 하늘을 향하므로 보이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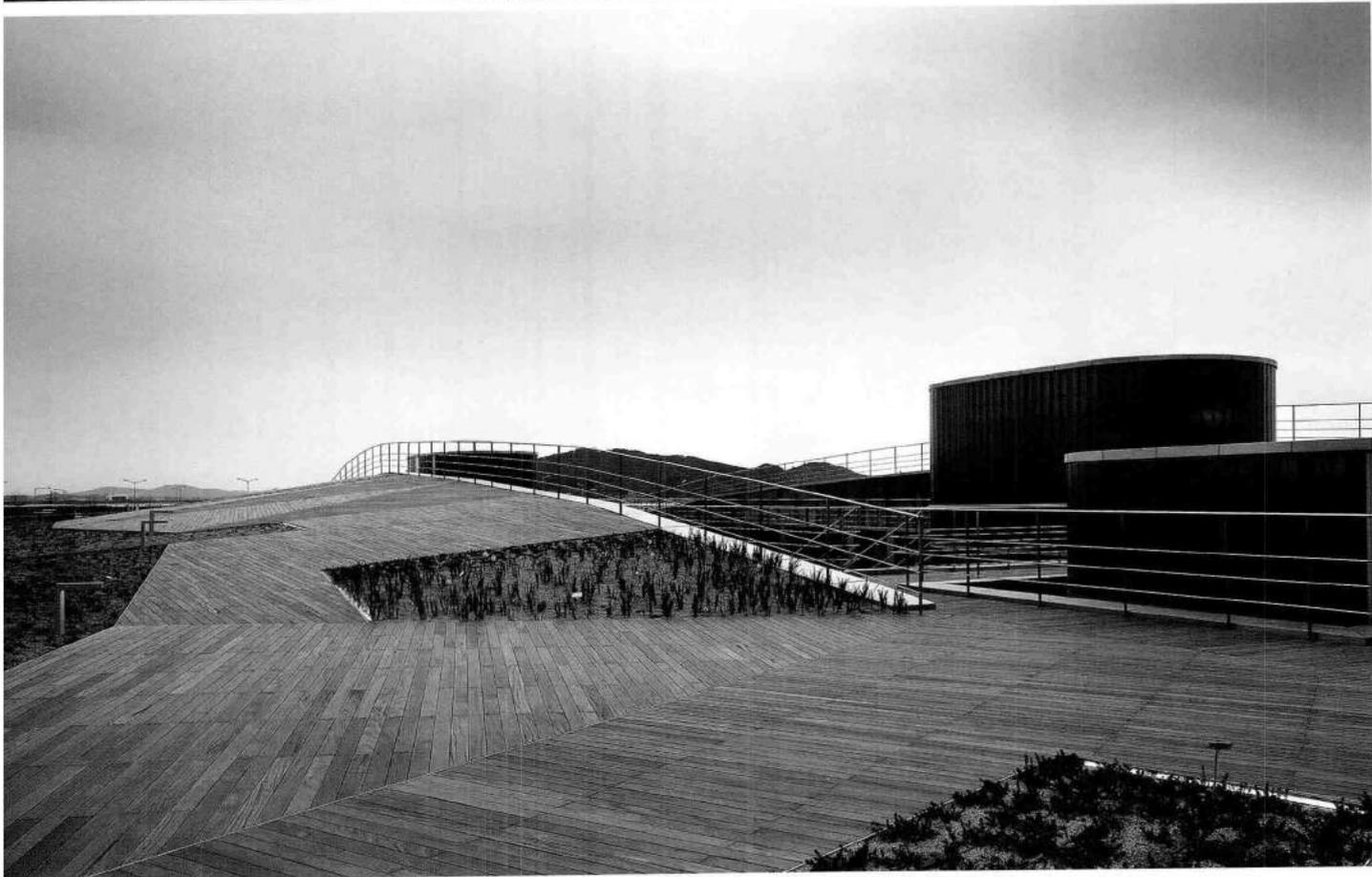
웅진씽크빅에는 정작 지붕이 없다. 지붕은 인공의 대지로 바뀌어 있다. 지붕에 올라 서성거리거나 기대앉아서 수로의 갈대와 멀리 한강을 바라보며 서해의 낙조를 감상할 수 있는 것은 지붕을 여유의 공간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웅진씽크빅의 공간을 절제되고 정제된 내용으로 꾸미려 했다. 공간의 주인인 사람과 책 만드는 일이 돋보이려면 건축은 배경으로만 존재해야 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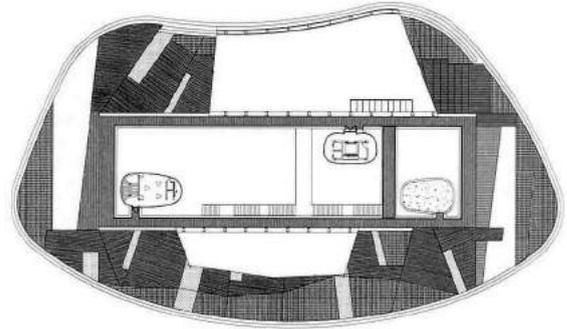
책의 메타포인 목재 루버의 갈피들이 연출해 보여줄 우연의 조합과 공간의 마디마다 놓인 웅진씽크빅의 컬렉션들이 자칫 건조할지도 모를 단조로움을 무마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채우기보다 비우기로 공간을 다듬는 것이 공간을 공간답게 만드는 것이라 믿는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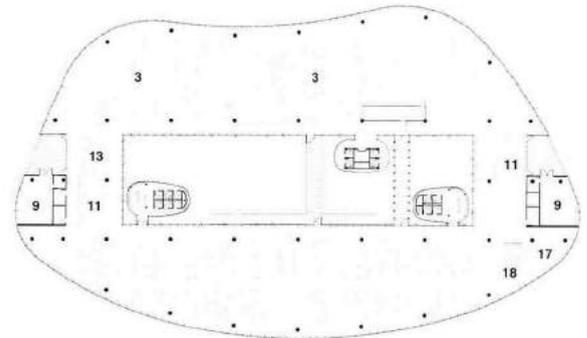




- 01_ 식당
- 02_ 창고
- 03_ 작업실
- 04_ 슬라이드 창고
- 05_ 스튜디오
- 06_ 조정실
- 07_ 세미나실
- 08_ 복도
- 09_ 관조실
- 10_ 주방
- 11_ 회의실
- 12_ 데크
- 13_ 휴게실
- 14_ 전기실
- 15_ 로비
- 16_ 자료실
- 17_ 접견실
- 18_ 대표이사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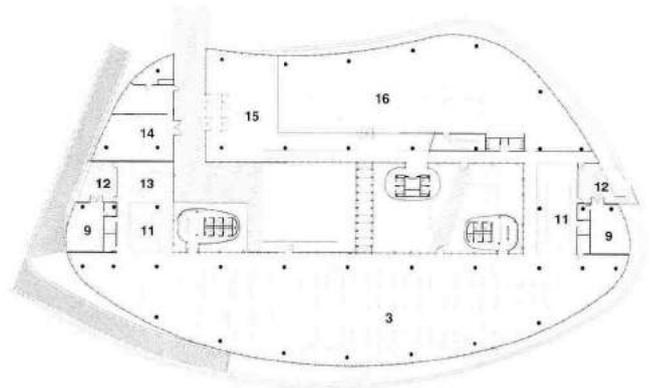


우탑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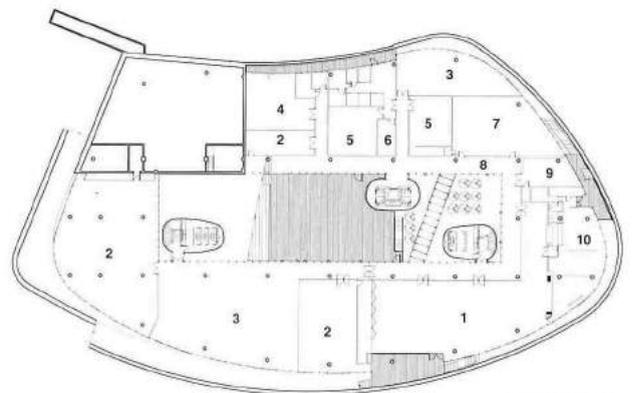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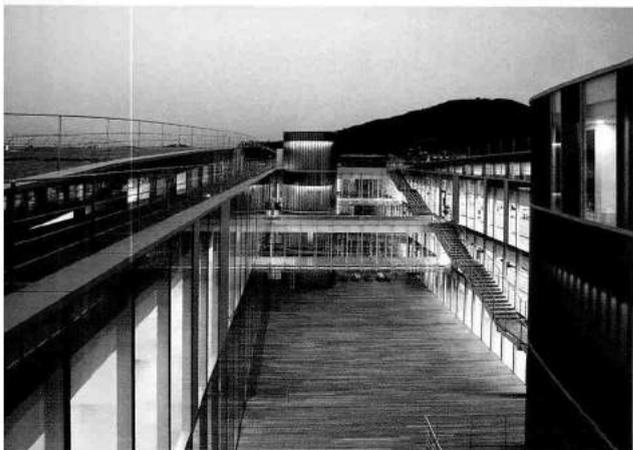


2층 평면도

- 1. 주출입구
- 2. 옥상정원
- 3~4. 내부마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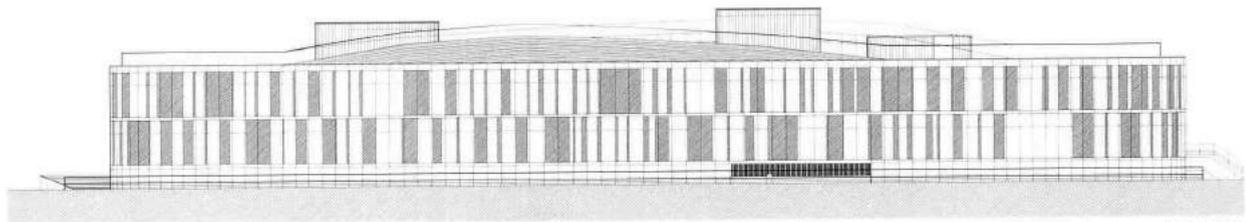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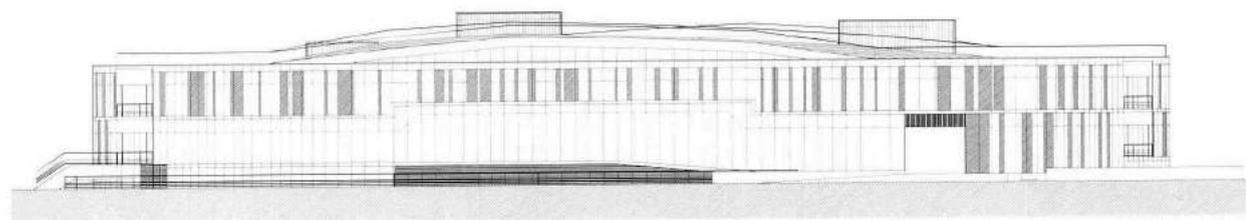


지하1층 평면도

0 1 2 4 8m



동측 입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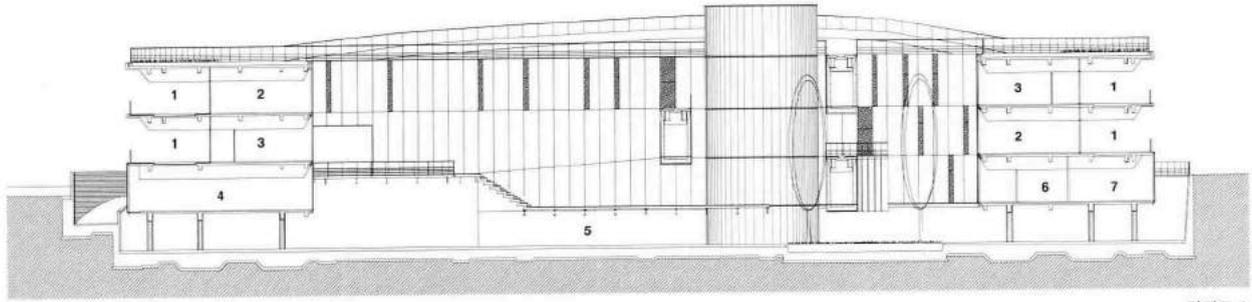
서측 입면도

0 1 2 4 8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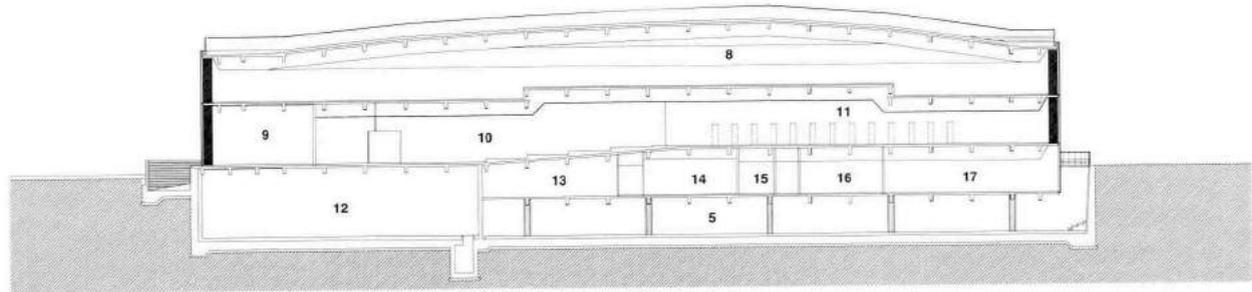




- | | | | |
|---|-----------|---|-----------|
|  | 1. 옥외 보양지 |  | 4. 내부마당 |
|  | 2. 지하 조경 |  | 3. 실내 보양지 |
|  | |  | 5. 옥외 보양지 |



단면도 1



단면도 2

0 1 2 4 8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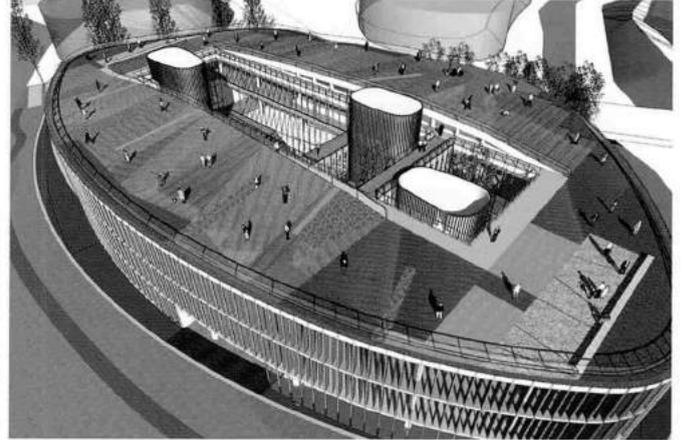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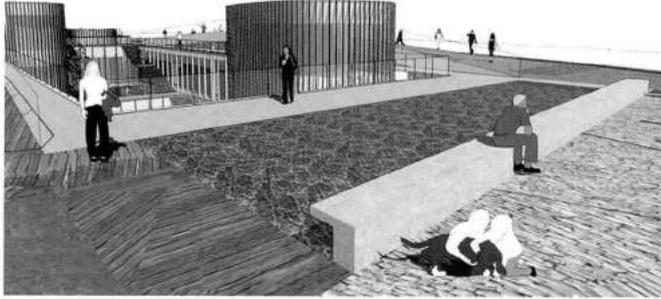


1. 실내전경

2~3. 컴퓨터 그래픽 실사 이미지
4~9. 실내전경

- | | | | |
|----------|---------|------------|-----------|
| 01. Deck | 06. 식당 | 11. 자료실 | 16. 스튜디오1 |
| 02. 휴게실 | 07. 주방 | 12. 기계실 | 17. 세미나실 |
| 03. 회의실 | 08. 작업실 | 13. 슬라이드창고 | |
| 04. 창고 | 09. 관리실 | 14. 스튜디오2 | |
| 05. 주차장 | 10. 로비 | 15. 조정실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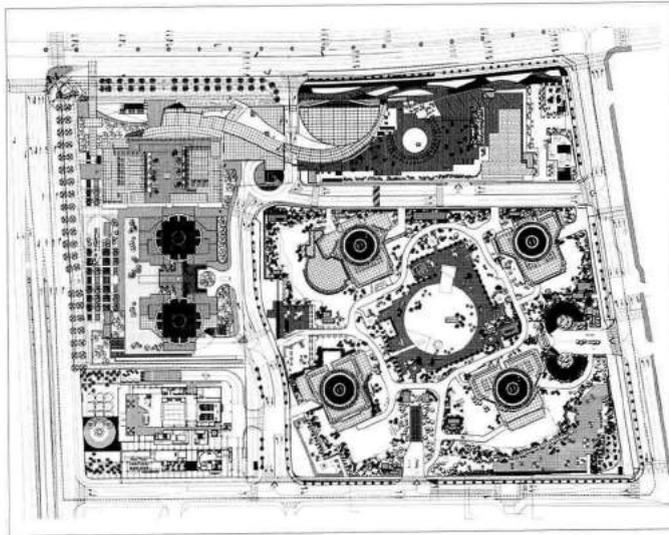
더 샹 스타시티

The # Star City

설계자 (주)종합건축사사무소 명선엔지니어링 | 박용민
 시공자 (주)포스코건설
 건축주 학교법인 건국대학교

● 배치도

● 건축개요



대지위치 건대입구 지구단위구역내 2지구 특별계획구역 (B블럭)
 지역지구 준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중심지 미관지구
 주요용도 판매 및 영업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오피스텔), 공동주택
 대지면적 62,505.20㎡
 건축면적 15,419.671㎡
 연 면 적 417,948.182㎡
 건 폐 율 25.60%
 용 적 률 414.90%
 규 모 지하 3층, 지상 58층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철근콘크리트조
 구조설계 (주)창·민우 구조 컨설턴트,
 (주)성진구조 안전기술단 건축사사무소
 설비설계 (주)삼우설비 컨설턴트, (주)태양 기술사사무소
 전기설계 (주)한양 티이씨, 청송 종합전기(주)
 설계담당 김진환, 박성열, 정재우, 이수경, 이유택, 장운영, 설민주,
 배효진, 김전길



Location 227-7, Jayang-dong, Gwangjin-gu, Seoul, Korea
 Site area 62,505.20㎡
 Bldg area 15,419.671㎡
 Bldg coverage ratio 25.30%
 Gross floor ratio 414.90%
 Structure R,C+S,R,C
 Bldg. Scale B3, F58

1. 평면
 2. 전경

The# Star City는 광진구의 재정자립 및 구민회관 건립부지 확보, 건국대학교의 대학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재정확충의 필요함이 그 목적이다.

기본배치는 향과 조망을 최우선하여 중앙광장을 통한 주민커뮤니티를 활성화하며 도로변 소음원으로 부터의 판매동으로 주거동을 보호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하고, 지상에는 주차가 없는 단지로 조성하여 친환경적 주거환경을 창출하도록 계획하였다. 일반적인 주상복합은 하부에 판매시설과 상부 주거부분이 위치하여 진출입 동선계획이 혼잡하지만 The# Star City는 판매시설과 주거부분을 분리하여 기존의 한건물 형식에서 벗어나 주거부분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지상에서의 혼잡함을 방지하였다.

주동계획은 정방향 또는 장방향에서 탈피한 Mass 계획으로 강북의 Landmark적인 건축물로서 호텔식로비와 프렌트 서비스가 가능한 평면과 Privacy보호 및 안정성, 기능성, 사용성을 고려하여 35, 45, 50, 58층의 주동형태로 한강변 Skyline을 고려하였다.

지하 1층에는 합인매장과 쇼핑몰, 주거 및 오피스텔 주차장이 있으며 지하 2, 3층은 각각 판매시설과 주거부분으로 분리하여 주차장과 기계, 전기실로 계획하였다.

단위세대계획은 입주자들의 다양한 요구를 최대한 수용할 수 있도록

각 층 7세대와 8세대를 기준층으로 가변형 평면개발과 세대간 Privacy 보장 및 가족간 Privacy를 위한 공간분리를 고려하였으며 전체 오피스텔 133세대, 주거 1,177세대로 계획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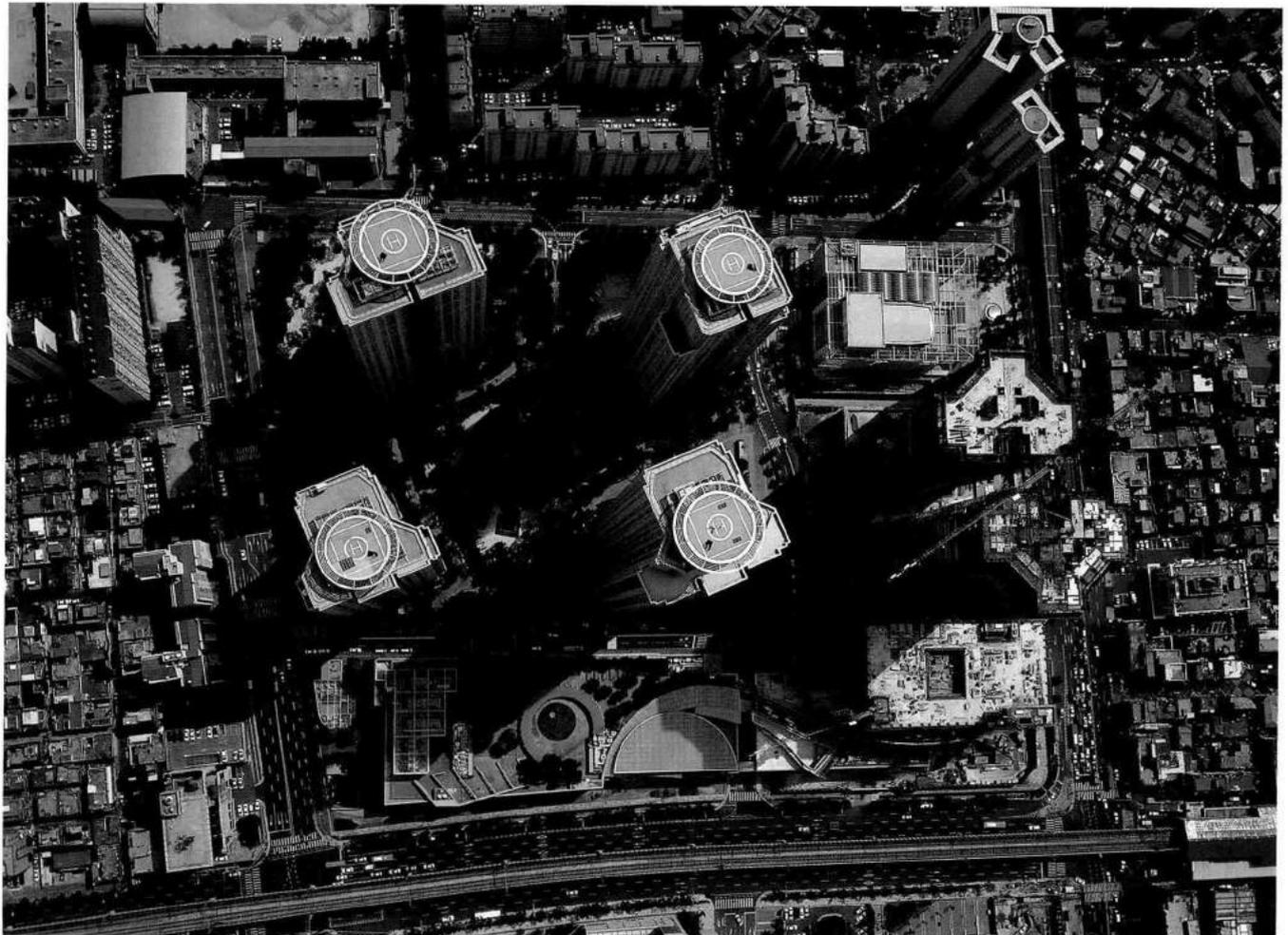
부대복리시설은 지상 1층 및 지하 1층에 다목적홀, 유아놀이방, 클럽하우스, 멀티미디어룸, 에어로빅실, 코인세탁실, 스튜디오, 독서실 등을 계획하였다

판매시설은 주거동 Privacy 방지를 위하여 지상건물 및 동선을 주거동과 분리하여 최소한의 기능적 연계만 고려하였으며 주거동과 별도의 차량 진출입 및 주차공간을 완전 분리 계획하였고 각 시설별 연계를 고려하여 지상, 지하의 다양한 접근로를 계획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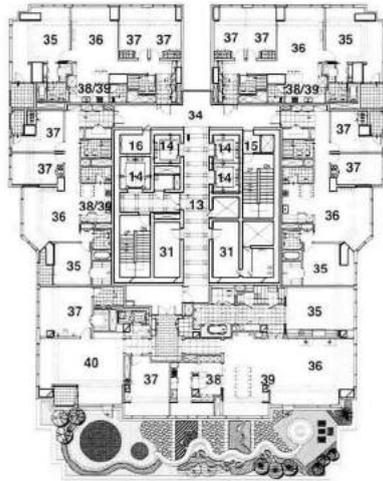
각 층별 용도로는 지상 1층에는 판매시설과 음식점, 2층과 3층은 롯데시네마와 부대시설이 계획되었다.

조경은 주민들에게 최대한의 쾌적성과 심리적 안정성을 제공하며 중앙광장을 중심으로 각 테마정원을 계획하여 주민 산책로 및 비상시 차량 진입에 문제가 없도록 동선계획을 하였으며 지하 부대시설과 연계하여 채광 및 이동이 가능하도록 선근을 계획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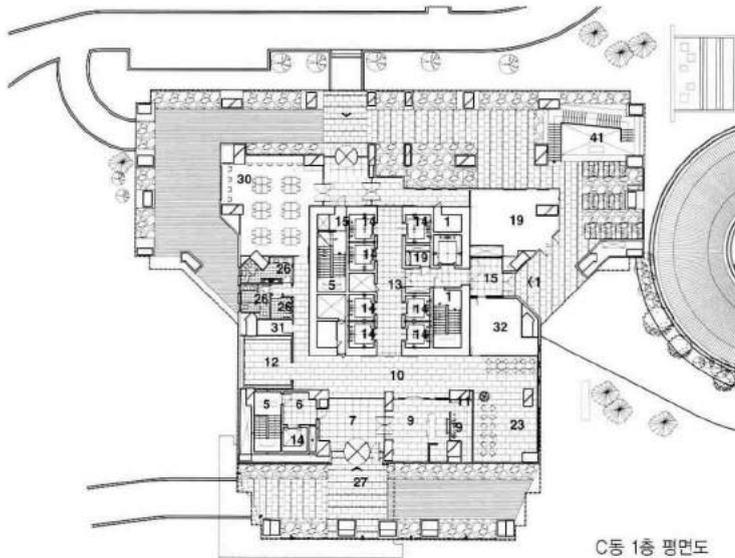
또한 미래지향적이고 친환경적으로 빗물이용시설을 계획하여 차후의 대형건축물의 기준이 되게 하였으며, 이 시설을 이용하여 조경수, 청소용수로 사용하며 폭우 시 빗물을 저장하여 지역의 배수량감소를 유도함으로써 재난방지에도 기여하였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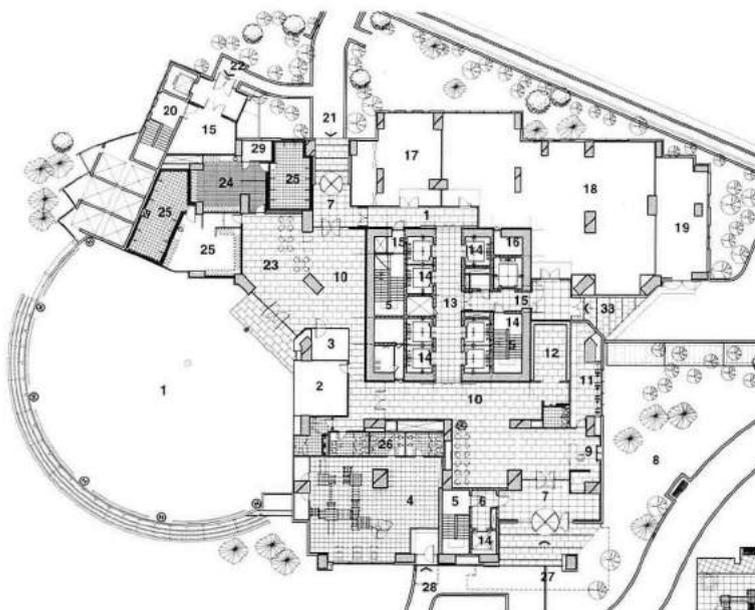




D동 42층 평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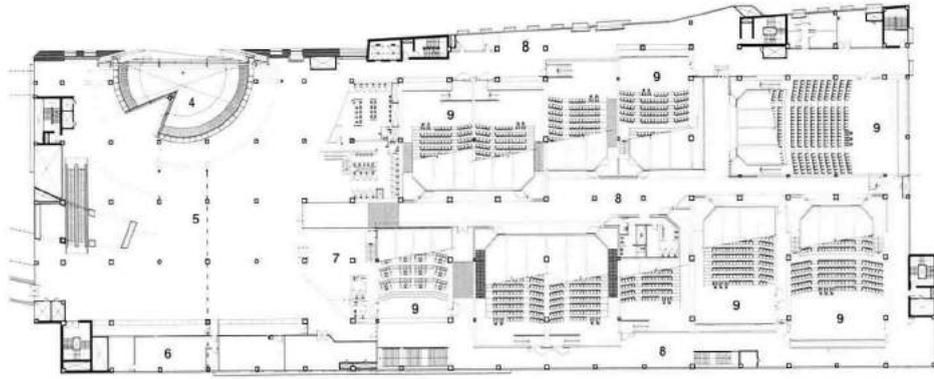
C동 1층 평면도



A동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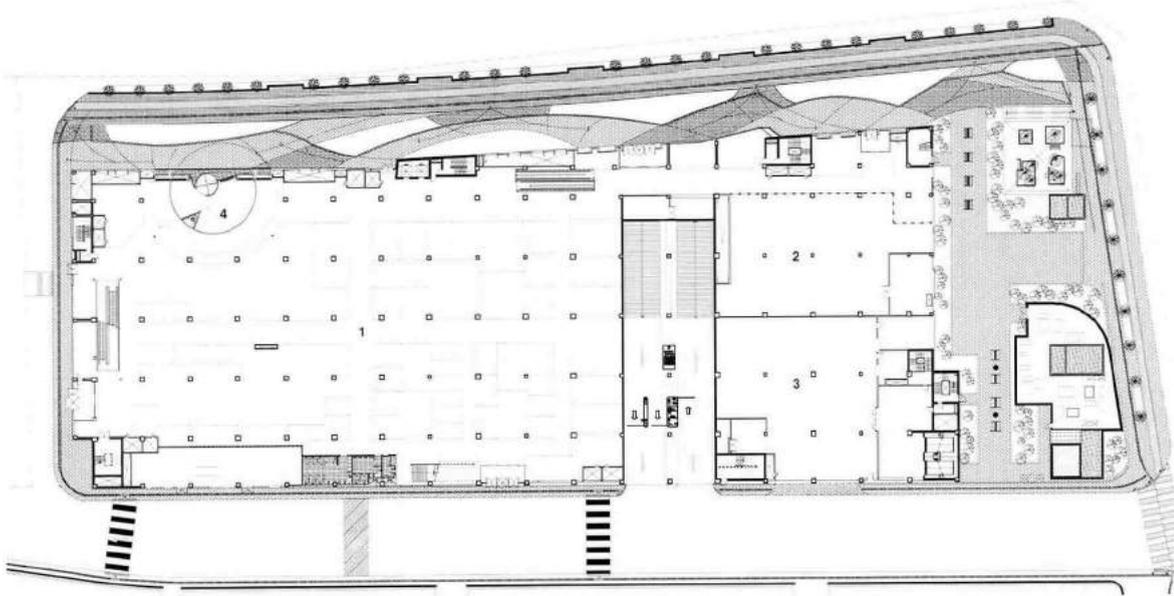
- 01. 운동시설
- 02. 사무실
- 03. 유품점
- 04. 유아놀이방
- 05. 계단실
- 06. 서플크아
- 07. 방품실
- 08. 부속실
- 09. 안내
- 10. 로비
- 11. 택배보관소
- 12. 우편물 취취실
- 13. ELEV.출
- 14. ELEV
- 15. 전실
- 16. 통신실
- 17. MDF실
- 18. 방재실
- 19. 쓰레기 재활용보관함
- 20. 옥외계단
- 21. 부출입구(운동시설)
- 22. 운동시설 출입구
- 23. 휴게실
- 24. 락카룸
- 25. 샤워실
- 26. 화장실
- 27. 주출입구(아파트)
- 28. 출입구
- 29. 보일러실
- 30. 독서실
- 31. 창고
- 32. 관리사무실
- 33. 부출입구(이삿짐입구)
- 34. 복도
- 35. 안방
- 36. 거실
- 37. 침실
- 38. 주방
- 39. 식당
- 40. 기록실
- 41. 선문





- 01. 쇼핑센터
- 02. 은행
- 03. 하역장
- 04. 퍼포먼스코트
- 05. 대기홀
- 06. 티켓박스
- 07. 라운지
- 08. 복도
- 09. 영화관

판매시설 2층 평면도



판매시설 1층 평면도

- 1. 야외로 출입구
- 2. 단차내 정원
- 3. 다목적 전경
- 4. 퍼포먼스코트소입구
- 5. 중앙영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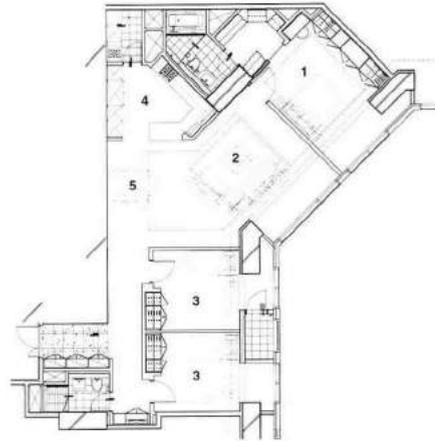




- 01_ 안방
- 02_ 거실
- 03_ 침실
- 04_ 주방
- 05_ 식당
- 06_ 가족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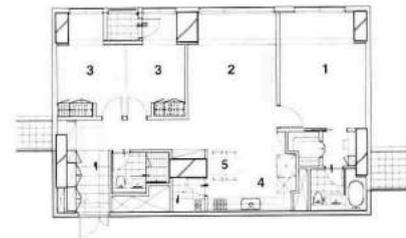
'A' type 단위세대 평면도



'B' type 단위세대 평면도



'C' type 단위세대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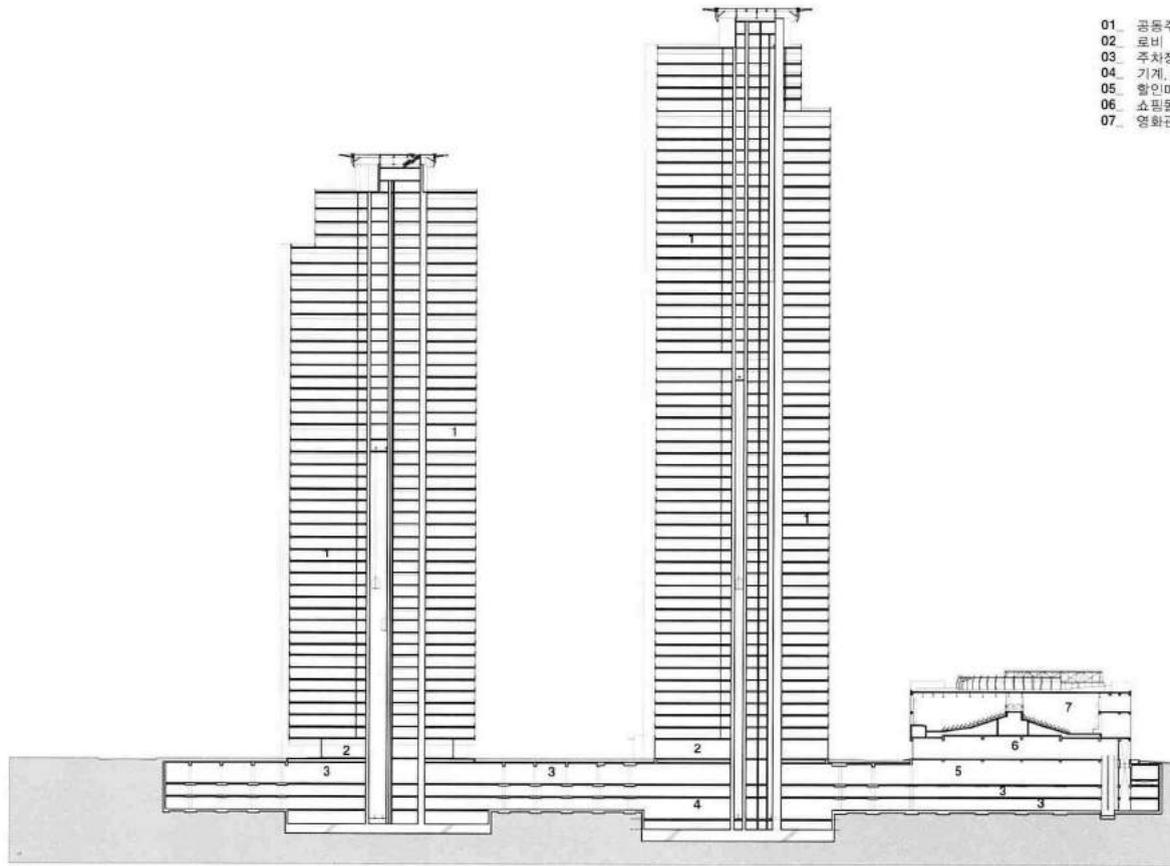


'D' type 단위세대 평면도

1. 내부 조경물과 풍경어귀

2, 3, 4. 내부 조경물과 풍경
5. 아파트 로비 전망 실내 데스크





- 01. 공동주택
- 02. 로비
- 03. 주차장
- 04. 기계, 전기실
- 05. 합인매장
- 06. 쇼핑몰
- 07. 영화관

대지 종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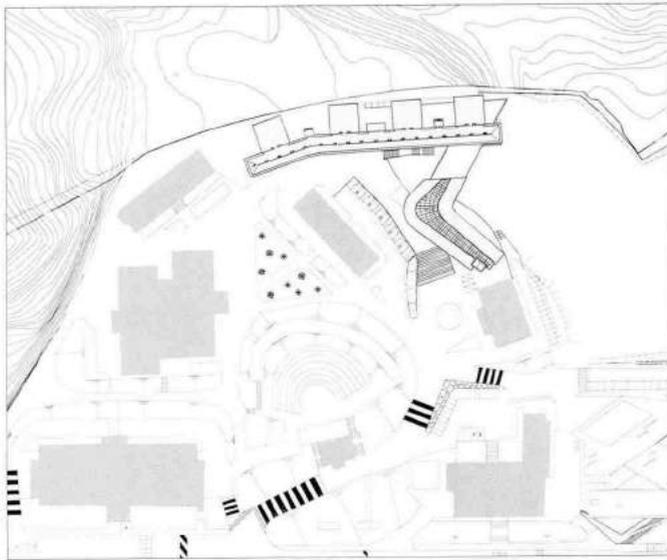
배재대학교 국제언어생활관

P.A.I.T.E.L

설계자 (주)아이아크 건축사사무소 | 박인수
 시공자 현대건설(주)
 건축주 학교법인 배재학당

● 배치도

● 건축개요



대지위치 대전광역시 서구 도마동 439-6번지 외 4필지
 지역/지구 제2,3종일반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 최고고도지구(20m)
 주요용도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기숙사)
 대지면적 206,774.90㎡
 건축면적 2,933.67㎡
 연 면 적 18,274.80㎡
 규 모 지하 2층, 지상 5층
 구 조 철근콘크리트 구조
 주요마감 노출콘크리트, 커튼월시스템, 천공알미늄스크린
 감 리 단 (주)유성건축-사중기, 이기필
 구조설계 창,민우 구조
 기계전기 하나기연
 토목설계 다산이앤지
 설계담당 신승현, 이 훈, 목영민, 조성문, 김여현, 임선진, 박세원,
 김지용, 김진구, 김정삼



Location 439-6, Doma 2-dong, Seo-gu, Daejeon, Korea
 Site area 206,774.90㎡
 Bldg area 2,933.67㎡
 Gross floor area 18,274.80㎡
 Structure R/C
 Bldg. Scale B2, F5

1. 기숙사 초입도 2. 기숙사 전망동측



배재대학교 기숙사설계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기존의 여러 기숙사를 접하게 되었다.

최근의 여러 대학 기숙사를 답사하고 도면들을 검토하면서 아직도 열악한 환경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많은 학생들을 만날 수 있었다. 그 학생들은 변화를 요구하고 있었으며, 다양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HOUSING' 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최근 여러대학에서 기숙사 신축을 경쟁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특히 지방대학일수록 그 경쟁은 치열하다. 기숙사 확보율이 학생유치의 절대 좌표가 된 것이다. 이렇게 하다보니 자칫 그 수용인원에만 치우쳐 대학의 기숙사가 해야할 역할을 간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 대학의 기숙사는 '수용'의 개념에서 탈피해야 한다. 자유로운 삶을 영위하면서 서로의 가치관을 교류하는 교육의 연장선으로서 이해되어야 한다. 즉 단순한 '도미토리'형 기숙사 아닌, 다양성과 선택

의 자유가 열려있는 'HOUSING' 이어야 한다.

배재대학교의 주문은 간단한 것이었다. 학생들이 자유로이 모여 서로의 언어를 배우고 정보를 공유하며 학습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었다. 이외에 미리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아이디어는 '배재 빌리지'를 제안하였다. 공간적으로 이미 3개동의 기숙사가 덩성덩성 흠어져 있었는데, 이것을 적절히 모으고 분배하면 배재대학교 부지내에 살기좋은 '마을'을 형성할 수 있겠다는 아이디어였다. '마을'에는 여러종류의 집이 있다. 같은 집이라도 놓여진 위치나 방향에 따라 모두가 다른 집이 된다. 언덕을 오르면 또다른 마을도 보인다. 골목길도 있다. 골목에서 마주치면 인사를 한다. 구멍가게도 있다. 학교도 있고 음식점도 있다. 일상생활이 곧 대학생활인 것이다. 채택되었다.

배재대학교 기숙사는 배치도 상에서 볼 수 있듯이 기존의 3개 기숙사를 신 기숙사가 통합하고 있다. 각 동에서 서로 호응할 수 있는 적



절한 거리를 유지한다. 자신의 방에서 자신의 건물을 바라보는 즐거움, 또 옆 건물을 바라보고, 선큰광장을 바라보고, 식당을 내려다 보는 즐거움이 있다. 또한 여러 경로를 통해 커뮤니티 공간에 다다를 수 있다. 각 동의 학생들은 선큰광장에서 만난다. 또 선큰광장에서 헤어진다. 대형 계단으로 내려오거나, 건물을 관통하는 경사로로 내려오거나 언제든지 이곳에서 만난다. 이 만남은 '빌리지형 기숙사'를 완성시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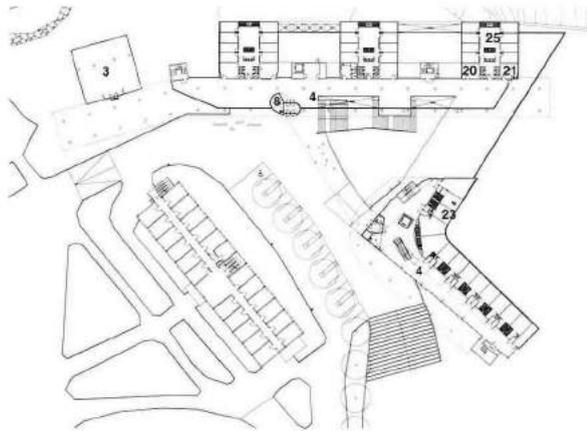
배재대학교 기숙사는 신개념의 유닛플랜(기숙실)으로 이루어 졌다. '국제언어생활관'이라는 건물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곳은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이 모여 서로의 언어를 학습하며 생활하는 기숙사이다. 커뮤니티공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아이아크는 '거실개념'을 도입하였다. 각 기숙실마다 그 크기에 맞는 적절한 거실을 두었다. 기존 기숙사들의 복도나 서비스공간으로 좁게 형성된 부분들을 한곳에 집약시켜 거실을 만들었다. 배재대 기숙사에는 그래서 복도가 없다. 공

간이 있다. 이 공간은 다분히 통합적이며 합목적적이다. 기숙실 내에서 가장 다양하게 쓰이는 곳이며 생활언어가 시작되는 학습의 장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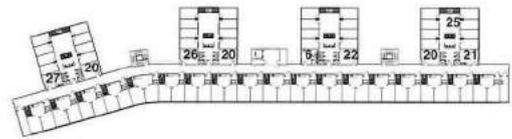
정해진 면적에서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변기 및 세면대, 샤워실 등 서비스공간의 동시 사용률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고안해 냈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다. 그것은 각 요소를 독립시키는 것이었다. 이로써 얻어진 공간이 거실이 되었다.

배재대학교 기숙사는 아주 단순한 건물이다. 건물 매스가 아주 단순하다. 건물의 주 재료도 아주 단순하다. 기숙실 구성도 아주 단순하다. 건물 배치도 아주 단순하다. 그러나 그속에는 다양성이 있다. 학생들이 다양하며 삶의 방식이 다양하다. 만남의 형식이 다양하다. 움직임에 따라 보이는 선이 다양하다. 더욱이 단순한 입면은 항상 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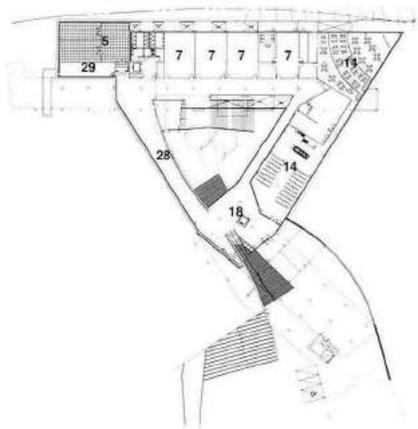
이러한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학생들에게 더욱 다양한 생각들이 담기기를 기대한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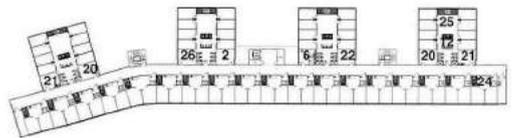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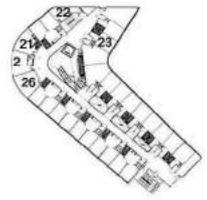
5층 평면도



지하 1층 평면도



2층 평면도



- 01. 기숙실
- 02. 세미나실
- 03. 레크레이션
- 04. 홀
- 05. 전산실
- 06. 공동회장실

- 07. 어학실습실
- 08. 사강실
- 09. 계단강의실
- 10. 기계실
- 11. 기자재실
- 12. 샤워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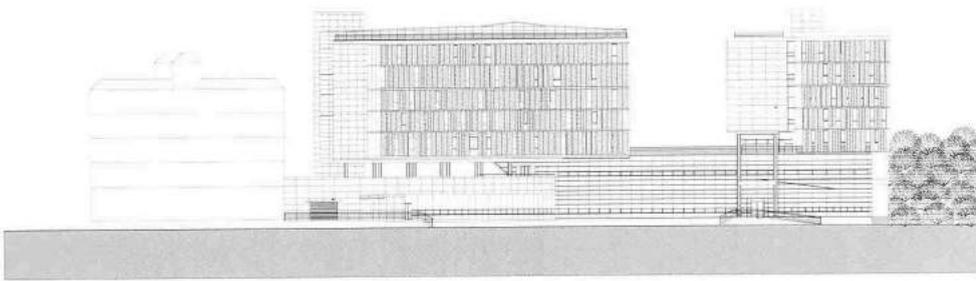
- 13. 체력단련실
- 14. 부대급식실
- 15. 배식실
- 16. 공동기실
- 17. Bridge
- 18. 로비

- 19. 전기실
- 20. 인터넷실
- 21. 휴게실
- 22. 세탁실
- 23. 4인실
- 24. 6인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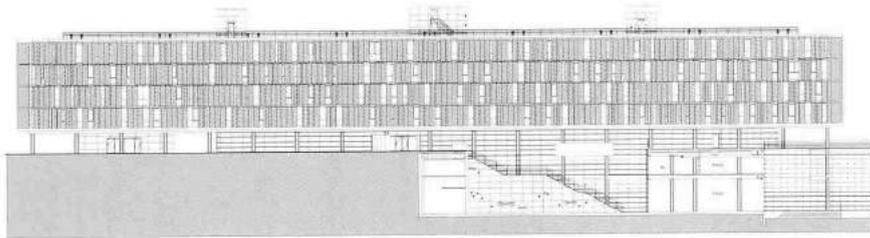
- 25. 16인실
- 26. 학습실
- 27. 게스트룸
- 28. 전시실
- 29. 자료실

- 1. 주진입 전경
- 2. 여자 기숙사
- 3. 여자 기숙사 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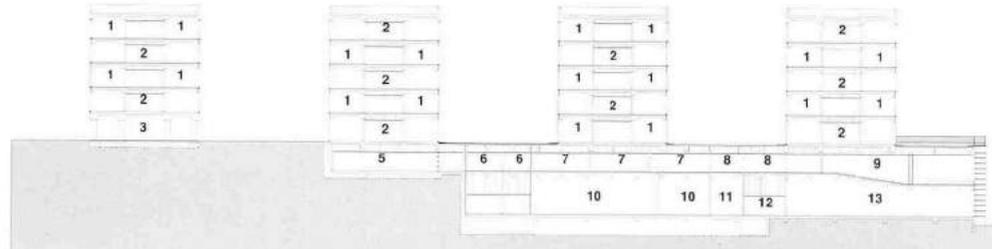
북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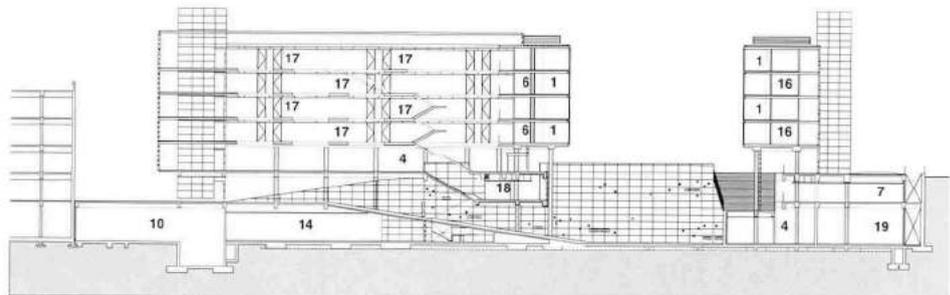
동측면도

- 1. 여자 기숙사
- 2. 선문 광장
- 3. 외부 계단
- 4, 5, 6. 남자 기숙사





단면도 1



단면도 2

- | | | | | |
|----------|-----------|-----------|------------|---------|
| 01. 기계실 | 05. 공동화장실 | 09. 기계실 | 13. 부대급식실 | 17. 전기실 |
| 02. 세미나실 | 06. 어학실습실 | 10. 기자재실 | 14. 공동거실 | |
| 03. 홀 | 07. 사감실 | 11. 사원실 | 15. Bridge | |
| 04. 전산실 | 08. 계단강의실 | 12. 채력단련실 | 16. 로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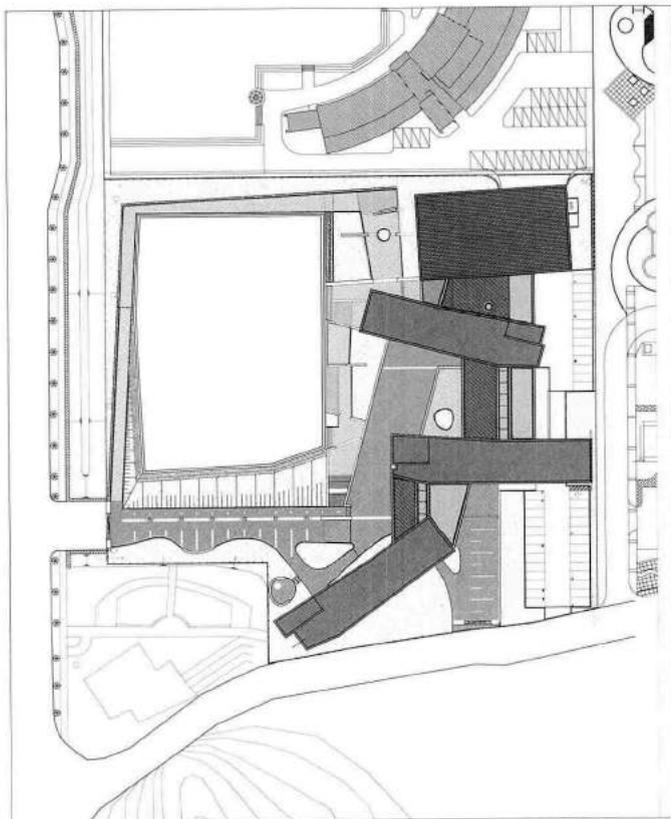
대룡중학교

Daeryong Middle School

설계자 (주)정림건축 종합건축사사무소 | 김정철
 시공자 (주)대현
 건축주 강원도 교육감

● 배치도

● 건축개요



대지위치	강원도 춘천시 퇴계동 1036-1
지역지구	제2종 일반주거지역, 학교용지
주요용도	교육연구시설
대지면적	14,030.5㎡
건축면적	352,165.5㎡
연면적	9,942.8㎡
건폐율	24%
용적률	74%
규모	지하 2층, 지상 5층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외부마감	붉은벽돌, THK18복층유리(투명)
내부마감	THK30테라조 타일, 카펫타일
전기설비	정우전기
구조설계	(주)크로스구조연구소
소방설비	(주)남도소방설비
토목	성원기술개발
조경	솔토조경(주)
설계담당	백문기, 이병호, 김용만, 광지영, 김승훈



Location	1036-1, Toegye-dong, Chuncheon-si, Gangwon-do, Korea
Site area	14,030.5㎡
Bldg area	352,165.5㎡
Gross floor area	9,942.8㎡
Bldg coverage ratio	24%
Gross floor ratio	74%
Structure	R,C
Bldg. Scale	B2, F5

1. 주출입구 2. 전경

대룡중학교는 현재 공사중인 대룡초등학교와 인접되어 있으며 남쪽 야산방향으로 레벨이 5m 이상 높아서 일반적인 배치에서 향의 불리함을 안고 있다. 대지는 2개의 도로와 인접되어 있는데 그 중 전면 25m 완충 녹지띠가 형성되어 있고 어린이공원과 야산으로 녹지축을 연장하고 있다.

남측 8m도로에서는 보행 및 차량 진출입이 이루어지며 향후 25m 도로에서 보행자 주진입이 이루어질 것이다.

계획이 방향은 크게 2가지로 설정하였다. 먼저 프로그램으로 접근하여 일반 교실과 특성화 교실의 Zoning을 구분하고 일반 교실은 조용한 학습 분위기를 형성하며 특성화 교실은 다양성 및 창의성을 길러 줄 수 있도록 공간계획을 했다.

다른 한가지는 배치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주변 Context에 대한 해석이다.

대룡초등학교의 배치 형태와 주변 녹지환경, 아파트 주거단지와의 조화를 최우선으로 배치계획의 방향을 삼았다.

그래서 두개의 학교가 하나의 학교부지로써 공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였다.

세계의 교실동과 한개의 다목적실로 건물동이 운동장 뒷쪽으로 남향으로 배치되어 각각 독립적인 자연 조망과 일조를 교실동에 확보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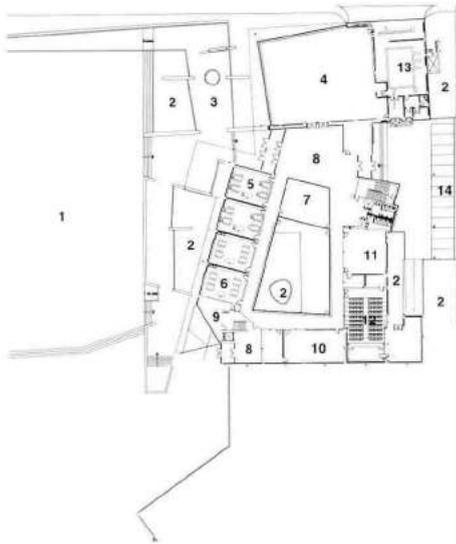
였으며 각각의 교실동은 학년별로 분리되며 독립된 코어를 가지며 양질의 학습공간을 조성하였다.

또한 교실동 사이에는 편의시설과 교육연구시설의 기능으로 이루어져서 유기적 기능을 가능하게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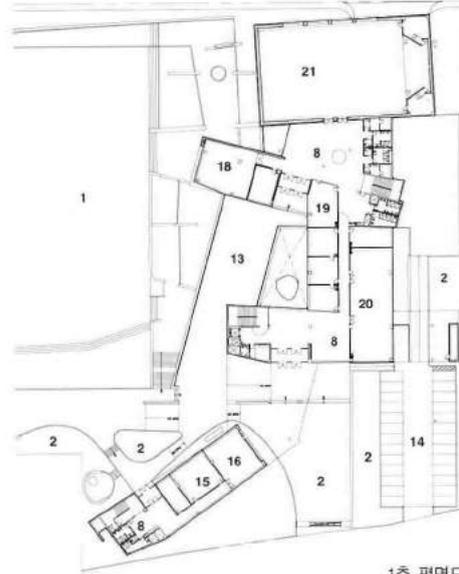
다양성과 창의성을 길러줄 수 있도록 외부공간과 적극적으로 연계된 특별교실들은 운동장과 접지되어 배치되었다.

교정 내에서 건물 사이공간들은 외부 휴게공간과 녹지공간으로 채워져서 아이들의 감성적인 소양을 도모하도록 외부환경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이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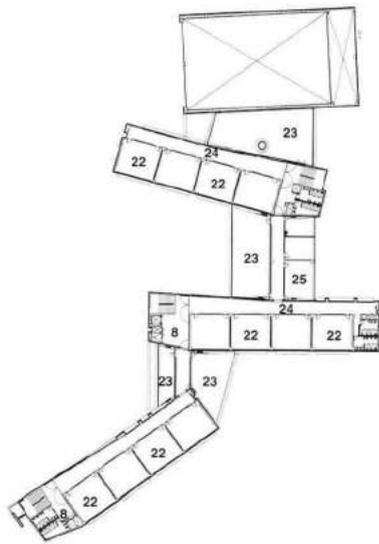
지하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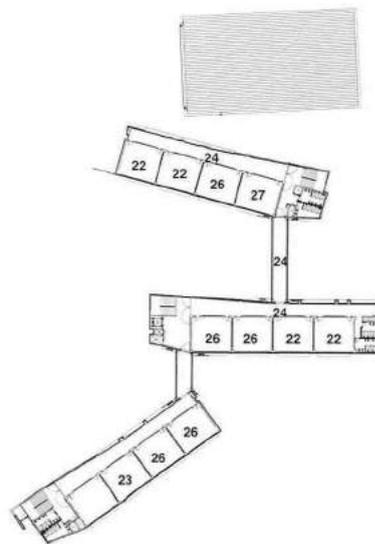
1층 평면도

- 1 운동장 주 출입 환경
- 2 B동 측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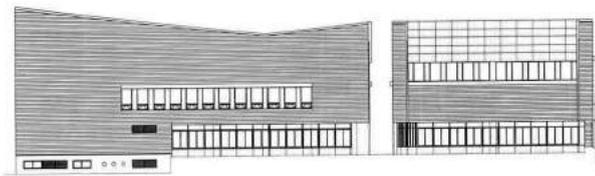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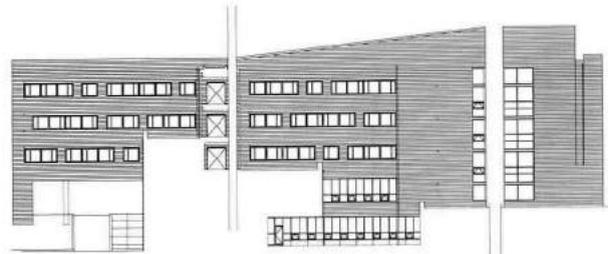
4층 평면도

- 01. 운동장
- 02. 화단
- 03. 휴게마당
- 04. 식당
- 05. 가사실
- 06. 미술실
- 07. 도서실
- 08. 홀
- 09. 서고
- 10. 컴퓨터실
- 11. 음악실
- 12. 시청각실
- 13. 주방
- 14. 회의주차장
- 15. 사회교과실
- 16. 미학실
- 17. 중앙마당
- 18. 도서실
- 19. 보건실
- 20. 교무실
- 21. 다목적실
- 22. 교실
- 23. 복도
- 24. 교재제작실
- 26. 다목적교실
- 27. 상담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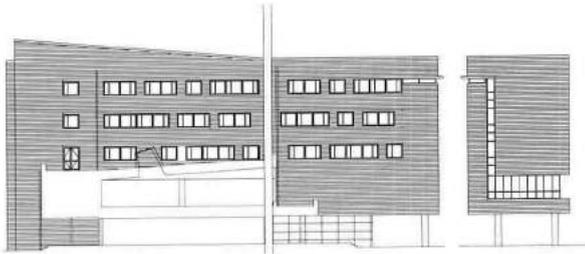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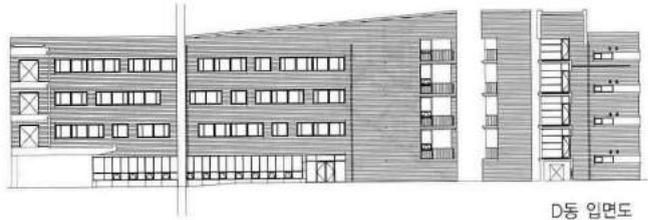
A동 입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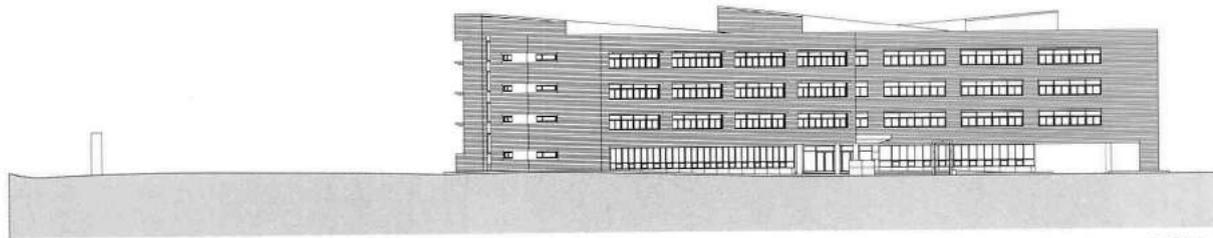
B동 입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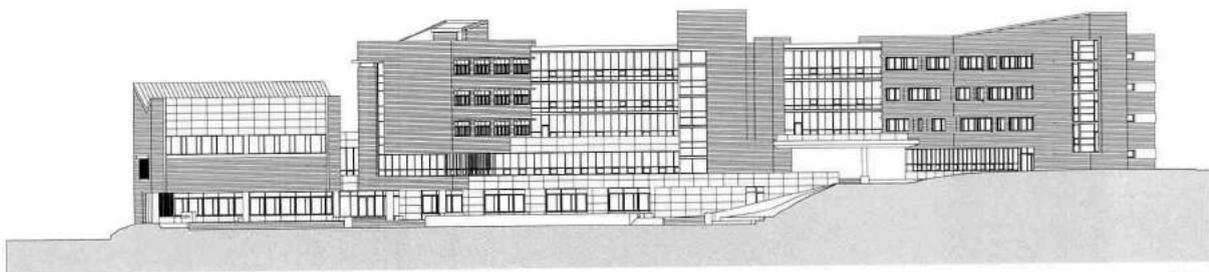
C동 입면도



D동 입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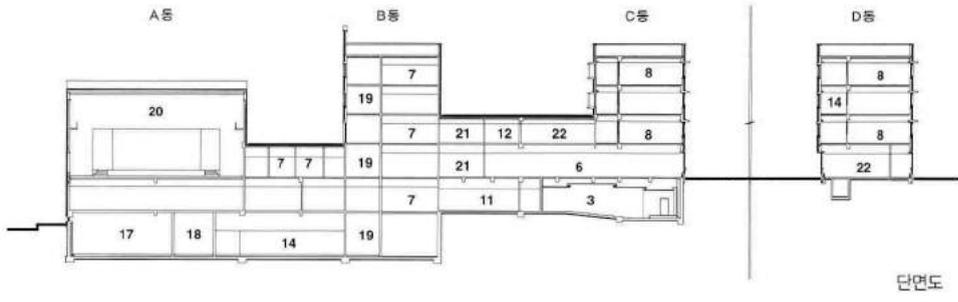


우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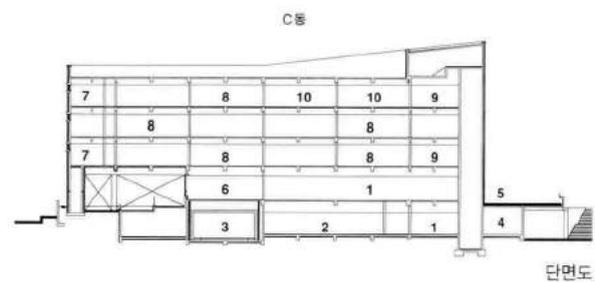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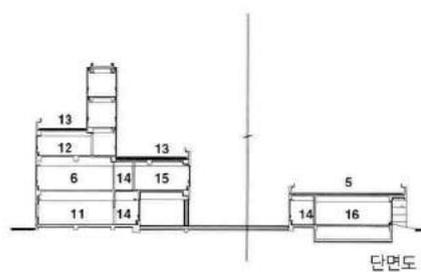


- 01. 출
- 02. 컴퓨터실
- 03. 시청각실
- 04. 세고
- 05. 중앙마당
- 06. 교무실
- 07. 화장실
- 08. 교실
- 09. 전실
- 10. 디딤터실
- 11. 음악실
- 12. 교사연구실
- 13. 옥외데스크
- 14. 복도
- 15. 교장실
- 16. 기사실
- 17. 발전기실
- 18. 전기실
- 19. 계단
- 20. 다목적실
- 21. 교사연구실
- 22. 교재제작실
- 23. 사회교과실

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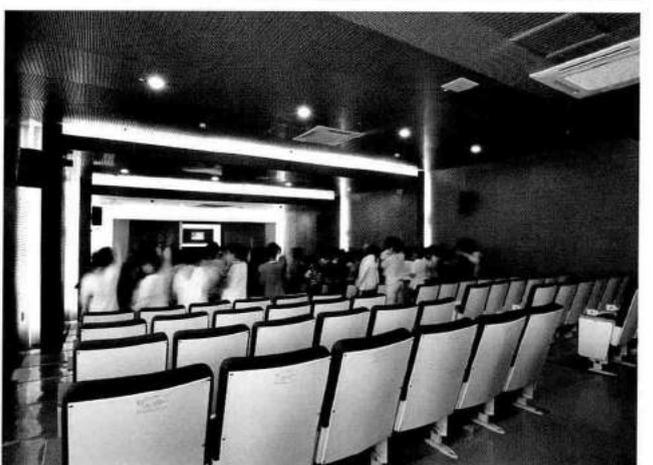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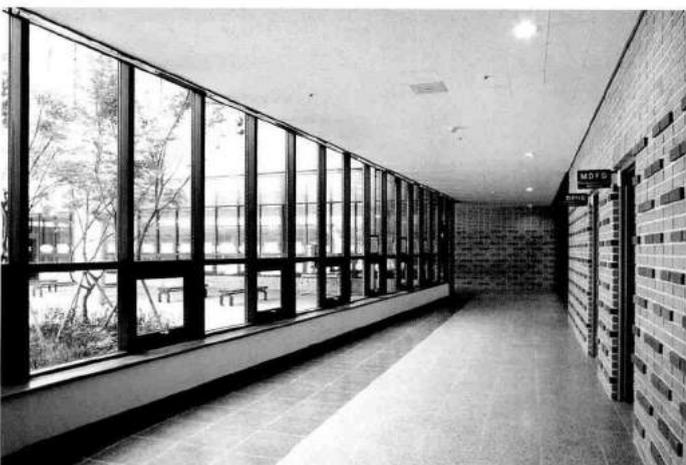


단면도



단면도

- 1. B동 정면
- 2. 조례대
- 3. D동 정면
- 4. 중정
- 5. 옥외교실 복도
- 6. 시청각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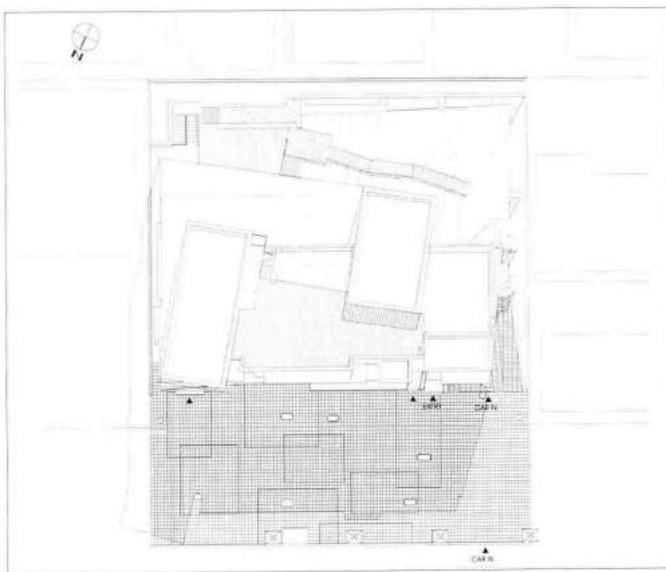
논현동 의화빌딩

7th Heaven Building

설계자 (주)종합건축사사무소 시건축 | 류재은
 시공자 장학건설(주)
 건축주 세븐헤븐

● 배치도

● 건축개요



대지위치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60-4,5
 지역/지구 일반상업지역, 3종일반주거지역, 중심미관지구
 대지면적 1,145.5㎡
 건축면적 572.34㎡
 연 면 적 4,971.53㎡
 건 폐 율 49.96 %
 용 적 률 249.29 %
 규 모 지하 3층, 지상 6층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내부마감 T20 이베, 벽·천장-물탈 위 도장
 외부마감 T4 AL, 복합패널, 유리대리석, T24 복층유리, T12 강화유리, ZUAI 스톤
 구 조 (주)AIG구조
 기 계 (주)유원설비
 전 기 (주)우신전기
 설계담당 김상현, 강부미, 장승현, 이경석, 이동신

0 13.5 10m



Location 60-4,5 Nonhyeon-dong, Gangnam-gu, Seoul, Korea
 Site area 1,145.5m²
 Bldg. area 572.34m²
 Gross floor area 4,971.53m²
 Bldg. coverage ratio 49.96%
 Gross floor ratio 249.29%
 Structure R,C
 Bldg. Scale B3, F6

1. 건축 원경
 2. 전경

투사된 다원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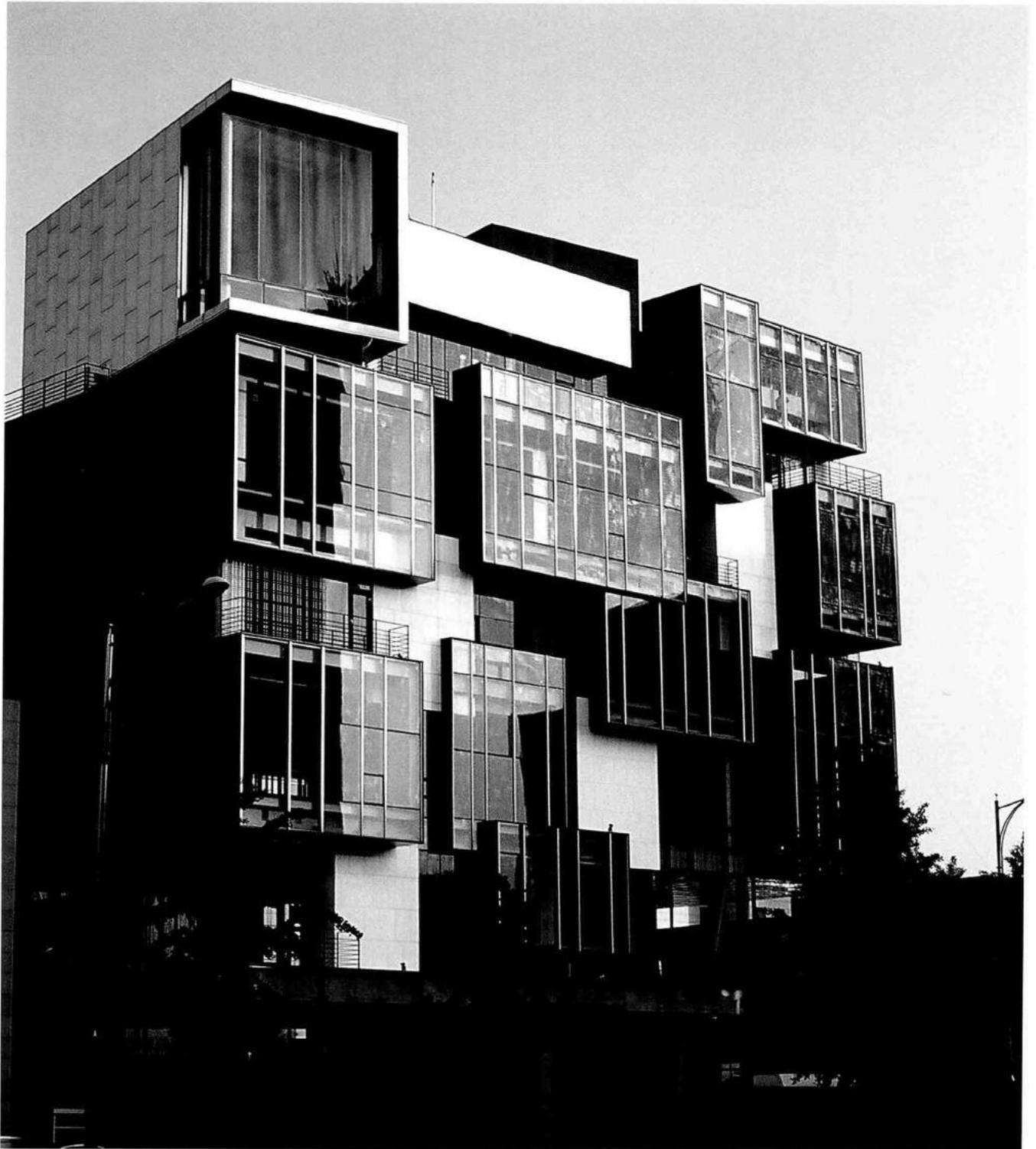
7th Heaven은 임대용 상업건물이다. 이런 상업건물의 사용자들은 공간을 자신에게 적합하게 바꾸고, 독특하고 다양한 그들의 개성을 건물에 표현하려 한다.

건물의 외부에 투사된 사용자들의 개성은 평면화되고 이미지화 된다. 결국, 상업용 건물의 실제적인 파사드는 이러한 이미지들이 균집된 형태이다. 그들은 계속 변화하며, 예측 불가능하고, 소멸되지 않음

며 통제하기 어렵다. 이런 현상은 상업적 밀도가 높을수록 심해진다. 그렇다면, 사용자들의 이러한 특성을 긍정하는 다원적 시각에서의 건축은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

중첩

사용자들의 특성이 투사되어 형성된 파사드에는 '중첩'이라는 형태적 특징이 나타나며, 이는 곧 다원성이 형상화한 특징이기도 하다.



다원성을 구현하기 위해 '중첩'의 방법을 택했다. 건물의 외피를 몇 가지 성질로 유형화 하였으며, 이들을 다양한 크기와 형태의 박스로 만들었다. 투명하며 반사되는 유리 박스는 사용자의 개성이 외부에 투사될 수 있게 하고, 불투명하고 비물질적인 백색 박스는 자신의 특질을 감추며 사용자의 활동을 감추 수 있다. 거리에 근접하여 매달린 빨간 박스는 보행자들과 교감하고, 가장 높은 곳의 초현실적인 금속 박스는 최상의 장소를 암시한다.

이렇게 유형화한 박스들을 여러 형태와 크기로 중첩시키며 쌓아 올려 다양한 성격의 공간과 형태를 만들었다. 천정 높이가 다르거나, 평면 형태가 다르게 되었다. 6층의 일부 바닥을 들어올려 5층의 천정에도 높이의 변화를 주었으며, 공간감에도 특성을 주었다. 2, 3, 6층에 설치된 데크는 독특함을 더하며, 건물 전면에는 작은 발코니들을 배치하여 공간에 활기를 주도록 하였다.

파사드는 박스에 의해 형성된 프레임들이 중첩되어 구성된다. 다양하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사용자들의 개성이 이들 프레임 속에서 이미지화하며 건물의 파사드를 이룬다. 쌓아 올려진 박스를 채우는 사용자들이 이 건물의 주인공이 되며, 그들의 일상이 이 건물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이다.

소통

도시공간은 고밀화된 건물들에 의해 단절되어 있다. 박스를 중첩시키며 곳곳에서 틈새를 만들었고, 이들은 분리된 도시 공간들을 시각적, 물리적으로 연결해준다. 도시공간들 간의 소통이 가능해진다.

건물의 후면에 배치할 수 밖에 없는 녹지공간을 가로에 연결하기 위해 주출입구, 지하층 출입계단, 선큰가든, 주차통로 등 건물을 관통하는 공간들을 한 곳에 모았다. 선큰가든 위에 걸쳐진 브릿지를 건너 주출입구가 있고, 연이어 건물 후면의 녹지공간으로 연결된다. 선큰가든과 주차통로는 공간을 공유하여 한정된 공간감을 최대화하며, 건물 후면의 녹지 둘레에 뚫린 공간들을 통해 지하층은 지상화되고, 녹지공간은 부유하는 듯한 느낌을 얻는다. 도로에 면한 선큰가든을 통해 1층의 유리매스는 지하층으로 연속되고, 지하공간은 자신의 존재를 드러낼 수 있다.

가로변에 매달린 빨간 박스로 이끌린 보행자의 시선은 2층 전면의 데크로 이어지며, 그 곳의 사용자들, 또, 도시공간들과의 소통을 느낄 수 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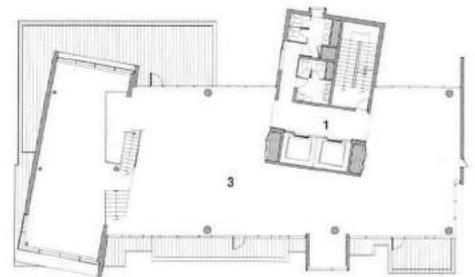
1, 위쪽 바리 본 전망
2, 외부 정면 전망
3, 2층 정면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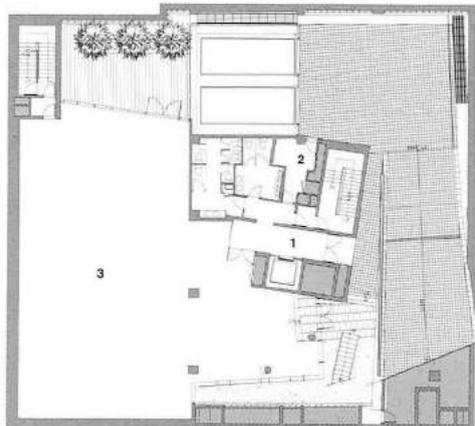
- 01. 홀
- 02. 관리실
- 03. 사무실
- 04. 전시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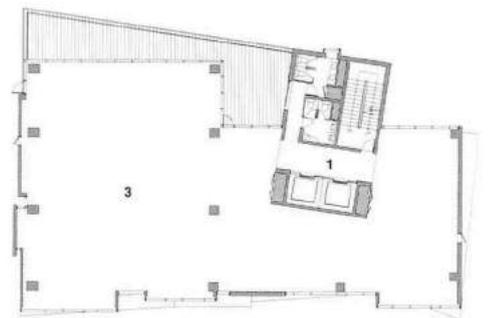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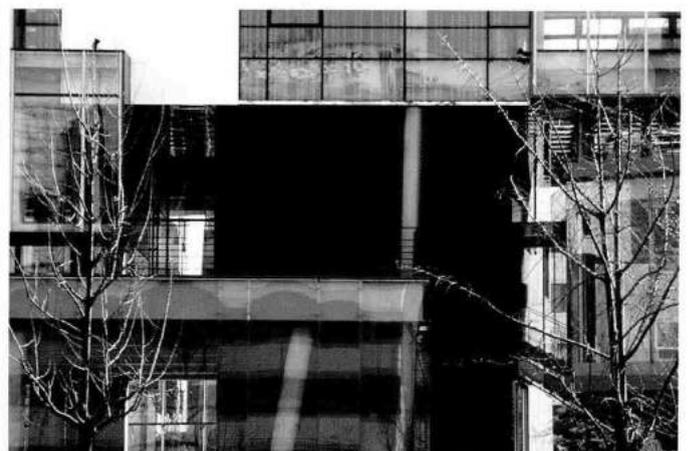
6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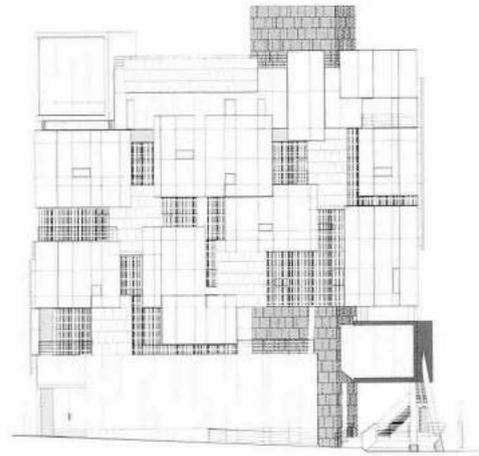


지하 1층 평면도



3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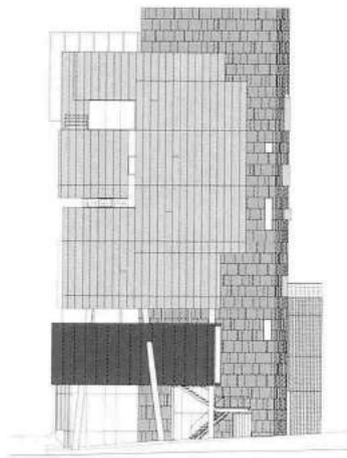


복층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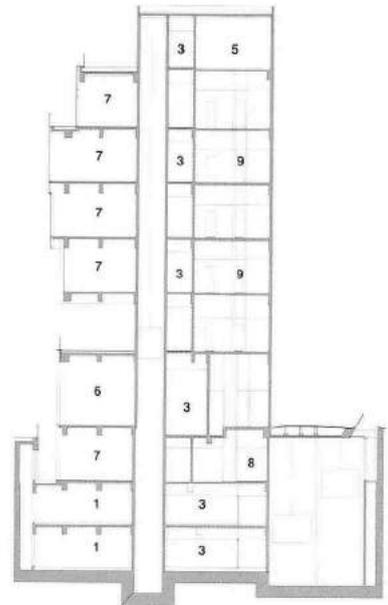
- 1. 휴먼 계단실
- 2. 전경
- 3. 주차장 진입부
- 4. 간담 지평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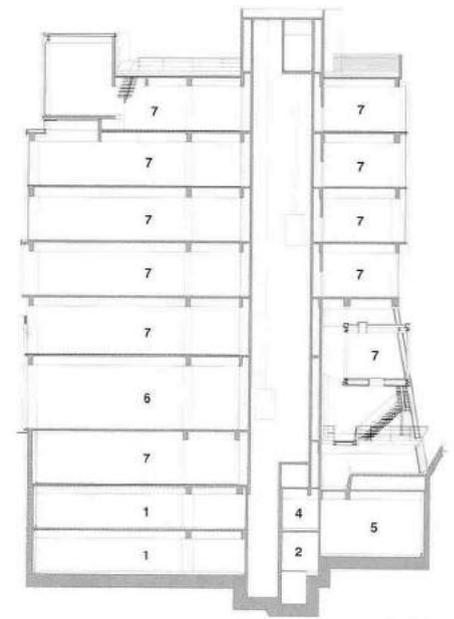
- 01 주차장
- 02 창고
- 03 홀
- 04 MDF
- 05 동명크
- 06 전시실
- 07 사무실
- 08 관리실
- 09 피싱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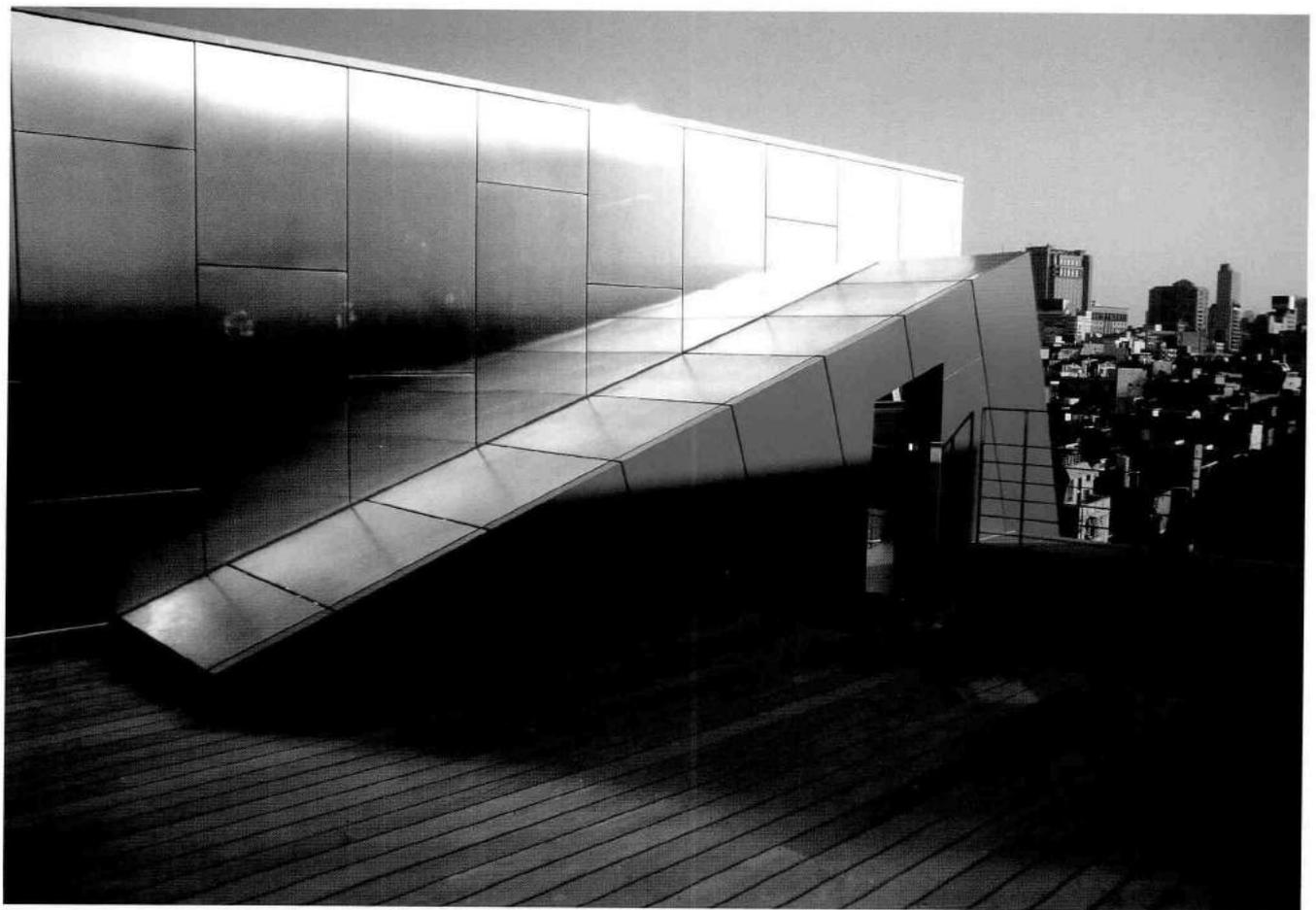
서측면도



중단면도



횡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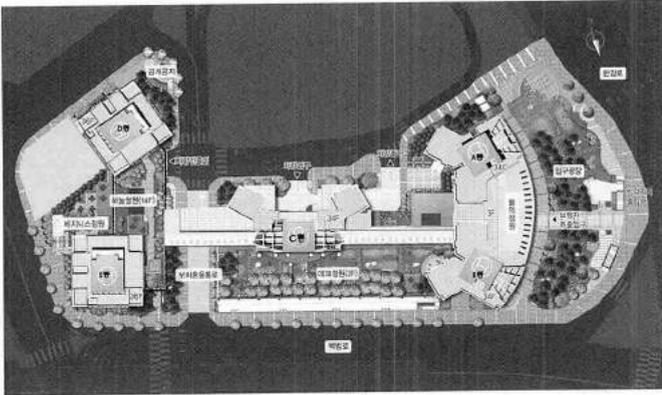
용산 파크자이

Yongsan Park X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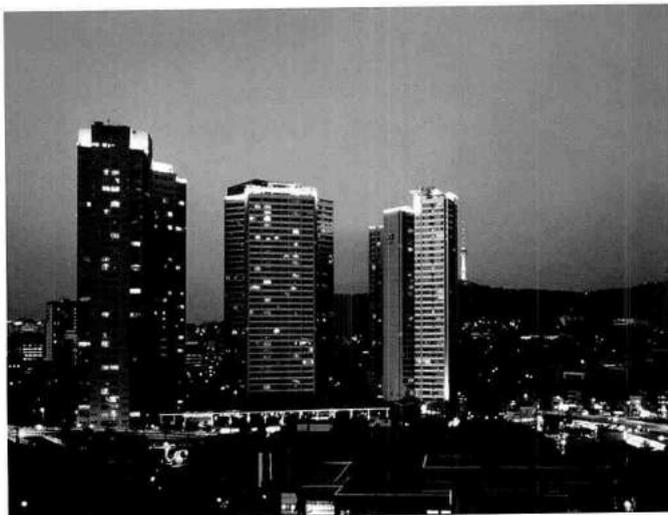
설계자 건축사사무소 우도 | 이원교
 시공자 지에스건설(주)
 건축주 (주)모간아담스 코리아

● 배치도

● 건축개요



대지위치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1가 50-1외 16필지
 지역지구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중심미관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주요용도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
 대지면적 13,505.5m²
 건축면적 7,248.07m²
 연 면 적 149,043.01m²
 건 폐 율 53.67%
 용 적 률 789.89%
 규 모 지하 5층, 지상 34~36층
 구 조 철골철근콘크리트 구조
 내부마감 WOOD FLOORING, 지정벽지마감
 외부마감 THK30화강석, 아연도패널, 실리콘메인트, THK22복층유리
 구조설계 (주)창·민우 구조 컨설턴트
 설비설계 나우 설비기술(주)
 전기설계 (주)한양 티이씨
 설계담당 유기봉, 김영기, 윤정미, 최정수, 임미나, 최용석



Location Yongsan Park Xi, Hangangno1-ga, Yongsan-gu, Seoul, Korea
 Site area 13,505.5m²
 Bldg area 7,248.07m²
 Gross floor area 149,043.01m²
 Bldg coverage ratio 53.67%
 Gross floor ratio 789.89%
 Structure S,R,C
 Bldg. Scale B5, F34~36

1. 원경, 야경
 2. 한강목에서 바라본 전경



옛글에 군군신신부부자자(君君臣臣父父子子)라는 말이 있다. 이는 각자의 소임된 역할이 있고, 그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다. 예전부터 우리의 조상은 수전병을 불인지병(不仁之病)이라 하였다. 손이 해야 할 소임을 제대로 행하지 못함으로 어질지 못한 것으로 생각하였다. 나의 명제는 '주거는 주거다워야 한다'는 것이다. 일차적으

로 밝고, 편안하고, 표정과 이야기가 있는 다정다감한 주거가 되어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 특히 과밀하고 상업적인 목적이 우선되는 주상복합의 한계 내에서 이것을 어떻게 다루어 나가야 하는 것은 개인의 명제를 넘어 시대적 명제가 될 것이다.

밖에서/도시경관

사업지는 삼각지 교차로의 상징적 위치에 놓여 있다. 용산개발의 사회적 여건에 맞추어 새로운 도시경관의 수준에 부응하는 계획안을 제시해야 함과 함께 우리의 기억 속에 잔존되어있는 '돌아가는 삼각지'의 아스라한 상징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부담감도 함께 작용하였다. 밖에서 보여 지는 모습은 원경·중경·근경 그리고 야경으로 구분하여 접근하였다.

원경은 분할 배치된 동간 거리를 최대한 이격하여 시각통로를 확보하였으며, 한강로에서 남산경관이 저해되지 않도록 전면 셋백하고 공개공지를 배치하였다. 중경은 삼각지 교차로의 상징성이라는 측면에서 두 개의 타워로 상징성을 강화하면서, 입면 및 코너부를 분절하여 휴먼스케일을 보완하였으며, '돌아가는 삼각지'의 부드러움에 맞도록 전면 라운드 처리를 하였다. 근경은 생활과 표정이 있는 거리가 연출될 수 있도록 한강로 변에는 늘푸른 적송으로 교차로 경관을 보완하고, 백범로 변은 테라스가든으로 일상적인 생활의 모습이 가로 표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특히 삼각지 교차로의 야경을 강화하기 위해 야간 경관조명을 특성있게 연출될 수 있도록 하였다.

안에서/거주자경관

계획자가 아닌 실제 거주자에게 있어 주거의 본질은 밝고 쾌적함이 제일이다. 값비싼 재료나 시설수준이 아무리 고급이라 하더라도, 일상 속에서 시야의 답답함이나 그늘진 정원이라면 우리의 일상을 쾌적하게 하여주는 데 한계가 있다. 배치계획의 주안점은 첫째로 양호한 향과 전망을 확보함에 두었다. 가능한 모든 세대가 넓은 시야와 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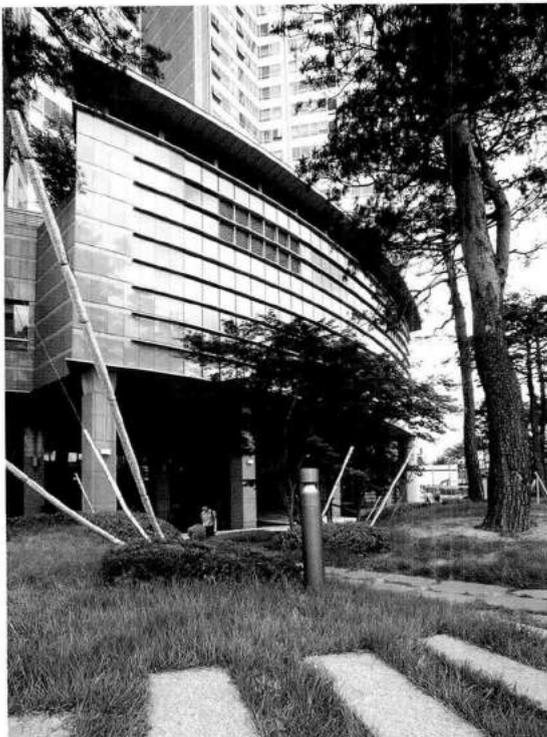
망 그리고 밝은 햇살을 취할 수 있도록 동 배치계획을 수립하였다. 또 하나의 주안점은 개방적이고 그늘이 없는 자연친화적 외부공간의 제공에 역점을 두었다. 도심 주상복합의 외부공간은 때로는 폐쇄적이고 그늘진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의 극복을 위해 외부공간을 건물의 전면에 배치하여 항상 밝은 햇살과 쾌적한 바람과 새소리라는 본연의 모습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였다.

밖에서 안으로/단지내 공용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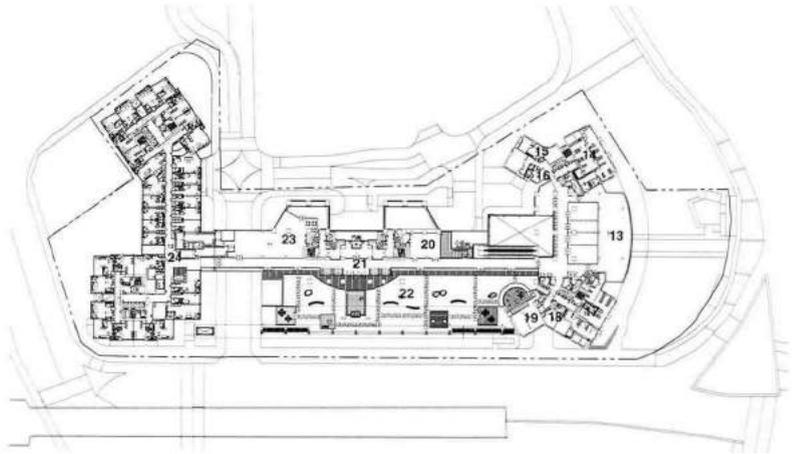
우리의 일상은 나의 집에서 출발하여 우리의 동네를 거쳐 직장이나 학교로 갔다가, 다시 동네를 거쳐 집으로 돌아오는 과정이다. 편안하고 안정감 있는 주거란 들어가고 나오는 과정 하나하나가 일상 속에서 소속감있는 의미를 지니고 존재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주민의 동선이 집결되는 '동서횡단의 보행축'을 설정하고, 입구광장~물의 정원~빛의 로비~보행회랑/데크정원~비즈니스로비/비즈니스정원을 연속 배치하여 이야기가 있는 거리가 되도록 하였으며, 이를 거점으로 외부공간/예술작품/주민커뮤니티 공간을 연계 배치하여 자연과 문화와 생활이 일체화된 유기적 네트워크로서의 보행축이 되도록 하였다.

단위세대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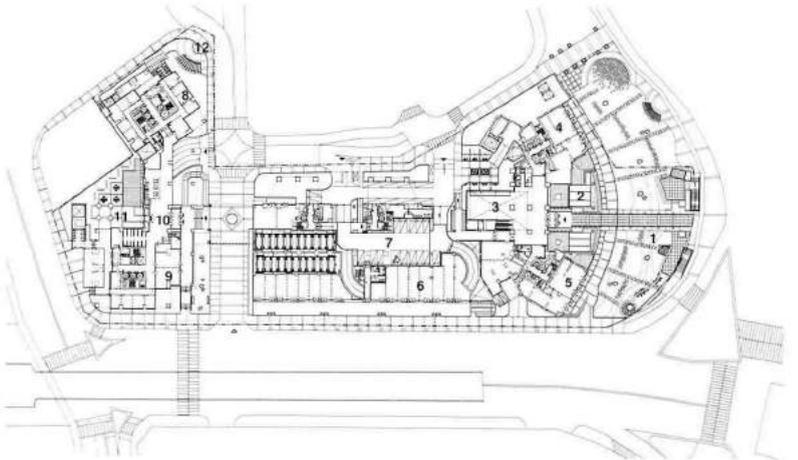
초고층 타워형 평면의 단점을 지양하고, 모든 세대가 가능한 남향을 취하면서 맞풍풍 가능하도록 계획하였으며, 평형별 특성에 맞는 평면을 제공하여 거주자의 다양한 입장을 수용하고, 쾌적하고 안락한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세대별 평면계획을 수립하였다. ㉠



- 01. 입구광장
- 02. 물의정원
- 03. 빛의로비
- 04. A동 상가
- 05. B동 상가
- 06. C동 상가
- 07. 주차장
- 08. D동 상가
- 09. E동 상가
- 10. 비즈니스 로비
- 11. 비즈니스 정원
- 12. 공개공지
- 13. 공동주택 휘트니스
- 14. 여자사우나
- 15. 노인정
- 16. 게스트 하우스
- 17. 남자 사우나
- 18. 주민공동시설
- 19. 유치원
- 20. 주민공동시설
- 21. 회관
- 22. 데크 정원
- 23. 오피스빌 휘트니스
- 24. 오피스빌 객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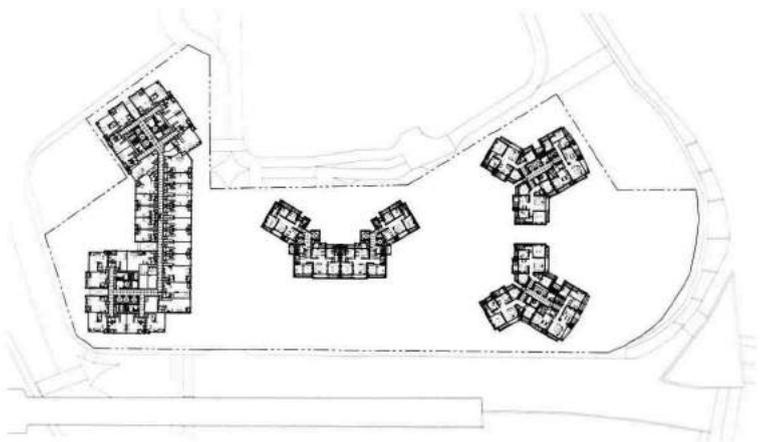


2층 평면도



1층 평면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기준층 평면도

0 5 10 20 50m



- | | | |
|------------|-----------|------------|
| 1. 입면도 | 4. 보행화랑 | 7. 강관 조명 |
| 2. 비즈니스 정원 | 5. 박람회 전경 | 8. 보자운동 도로 |
| 3. 데크 정화 | 6. 테라스 가든 | 9. 테라스 가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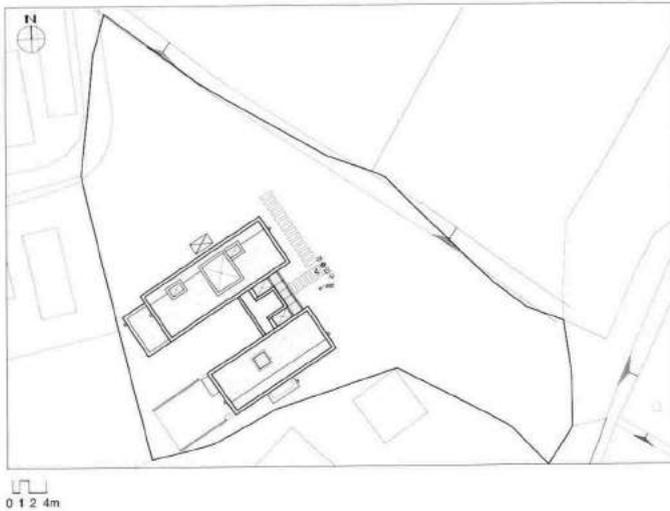
양익재(兩翼齋)

Yang-ik jae

설계자 (주)종합건축사사무소 온고당 | 안우성
 시공자 윤은자
 건축주 윤은자

● 배치도

● 건축개요



대지위치 경기도 여주군 금사면 전북리 278
 지역지구 관리지역
 주요용도 단독주택
 대지면적 992㎡
 건축면적 186.48㎡
 연 면 적 186.48㎡
 건 폐 율 20.23%
 용 적 률 20.23%
 규 모 지상 1층
 구 조 철근콘크리트
 내부마감 천연벽지, 온돌마루, 비닐계 시트
 외부마감 노출 콘크리트, 적삼목, 방부목
 구조설계 미래 ENC
 설비설계 세아 ENG
 전기설계 하나 에치텍



Location 278, Jeonbuk-ri, Geumsa-myeon, Yeosu-gun,
 Gyeonggi-do, Korea
 Site area 992m²
 Bldg area 186.48m²
 Gross floor area 186.48m²
 Bldg coverage ratio 20.23%
 Gross floor ratio 20.23%
 Structure R,C
 Bldg. Scale F1



대지

건축주와 건축주의 형제자매들은 모두 결혼하여 서울에 거주하면서 십시일반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부모님을 위한 주택을 신축하게 되었다. 부모님은 부지좌측 구옥에 80여년이 넘게 살면서 동네 사람들과 동고동락 하였으며 농사를 지어오고 있었다. 건축주를 비롯한 형제 자매들도 모두 이 집에서 태어나 이 마을에서 자랐으므로 누구보다도 이 마을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다.

프로그램

이제는 부모님만 살게 된 집을 60여평이 넘게 계획하게 된 것은 장성한 자녀들의 주말 주택으로서 머물 방들이 추가로 3~4개 필요함에 따라 집의 규모가 커지게 되었다. 주말에만 이용하게 되므로 칠순이 넘은 노모가 집을 관리하기 쉽게 1층으로 계획하게 되었고 자녀들이 주말에 지낼 방들은 굳이 남향을 고집할 필요가 없었다. 마을사람들과의 위화감을 줄이기 위하여 건물을 높지 않게 하며 건물도 크지 않게 보이게 위하여 매스를 분절되도록 하였다.

마을을 품는 집

양익재는 마을의 초입에 위치한 집으로서 마을의 중심을 이룬다. 이 마을은 전형적인 계곡 지형으로 동에서 서로 진입하는 형상이다. 동측에는 남한강이 흐르고 마을의 남측과 북측에는 마을을 감싸는 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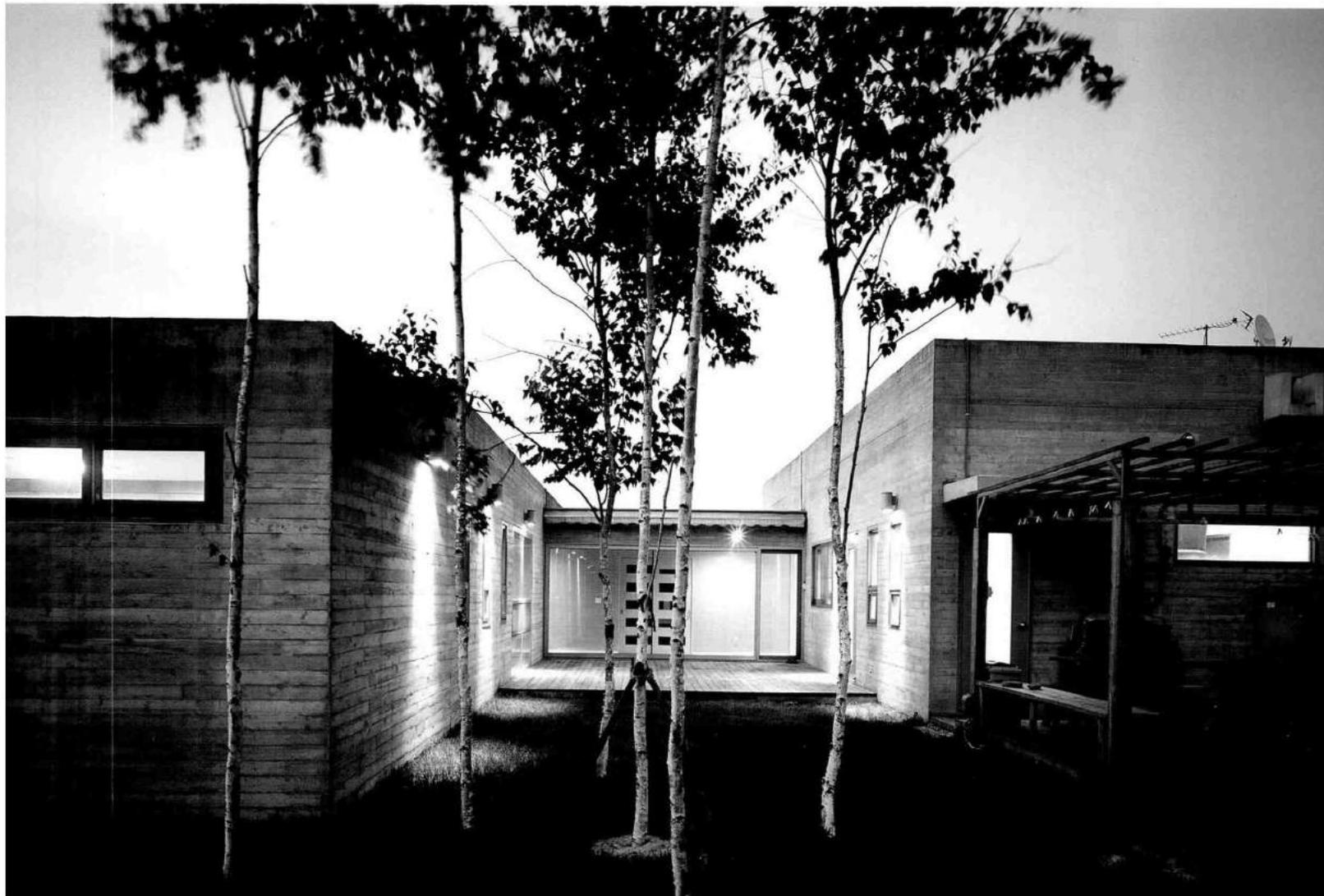
등성이와 서측에는 계곡의 끝으로서 산봉우리가 위치한다. 주로 논 밭농사를 소규모로 경작하여 왔으므로 마을의 산들은 수목보존상태가 양호하여 주택에서 남, 북, 서측 방향으로의 조망을 가장 우선시하여 계획하게 되었다.

우선 마을을 감싸는 남과 북의 산등성이를 닮은 두개의 매스(날개)를 두어 남측에는 거실과 식당, 주방, 다용도실을 두고 북측에는 방과 화장실을 배치하여 북측 산등성이를 품게 하였다. 동측에 현관을 배치하고 문을 열면 바로 서측의 산봉우리를 조망하는 중정을 두어 좌우날개를 이어주는 매스를 두었다. 결국 마을을 둘러싸는 남, 북, 서의 봉우리를 모두 품는 집이 되었다.

매스 및 재료

산으로의 조망을 위하여 남측매스는 높이고 북측매스는 조금 낮게 설정하고 북도공간은 연결매스로서 가장 낮게 두었다. 일부 북측에 중정과 식당매스를 덧붙이고 빼고 하여 단조로운 매스에 활력을 주고자 하였다. 가장 오래 생활하는 주방과 다용도실, 외부 작업공간을 남측매스에 두어 실용적으로 배치하였다.

외부재료는 주로 송판노출 콘크리트와 적삼목을 사용하여 따뜻하고 온화한 건축주의 품성을 나타내었고 주방 상부에 조그만 천장을 설치하였다. 내부에는 주로 천연재료 벽지를 사용하여 친환경적인 느낌을 주도록 배려하였다. ㉮





- 01. 거실
- 02. 식당
- 03. 주방
- 04. 다용도/세탁실
- 05. 보일러실
- 06. 화장실
- 07. 정원
- 08. 인선방
- 09. 손님방
- 10. 조카방
- 11. Deck
- 12. 인방
- 13. 현관
- 14. 중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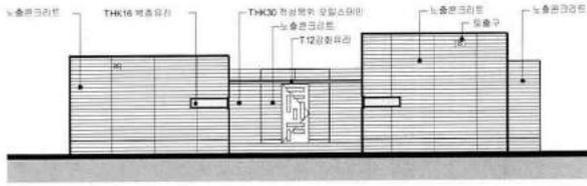
0 1 2 4m

지상 1층 평면도

- 1. 주출입구
- 2. 외부전경
- 3. 외부전경
- 4. 외부전경
- 5. 중정
- 6. 중정



| 5,400 | 6,000 | 4,800 | 2,4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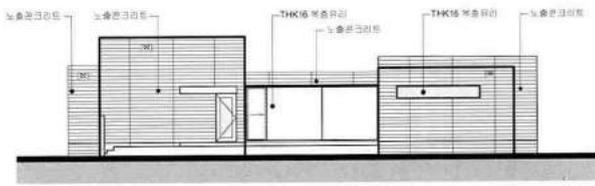
정면도

| 4,500 | 3,600 | 6,3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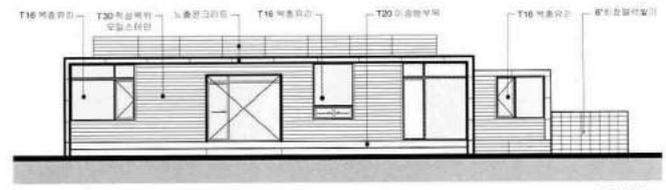
좌측면도

| 2,400 | 4,800 | 6,000 | 5,400 |



배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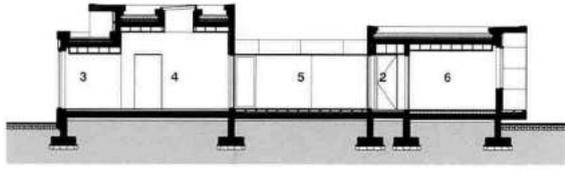
| 5,700 | 3,600 | 3,000 | 4,800 | 3,3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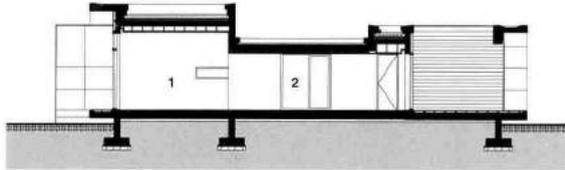
우측면도



- 01. 거실
- 02. 복도
- 03. 식당
- 04. 주방
- 05. 중정
- 06. 조카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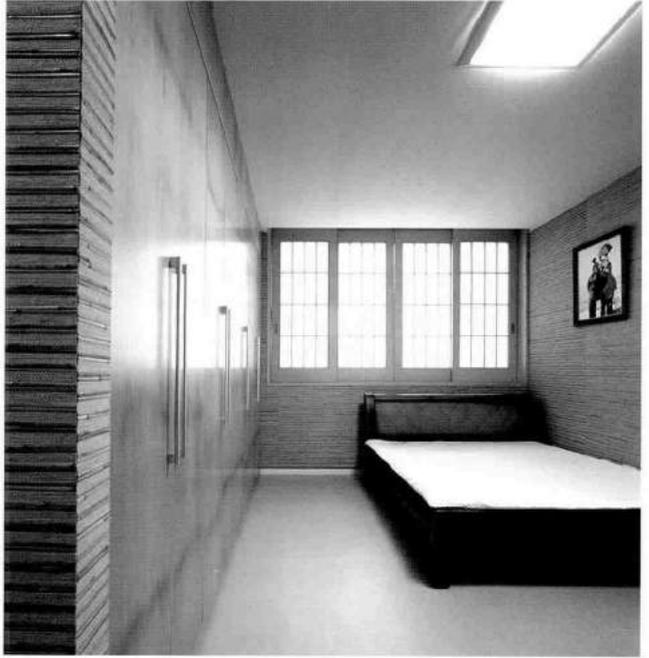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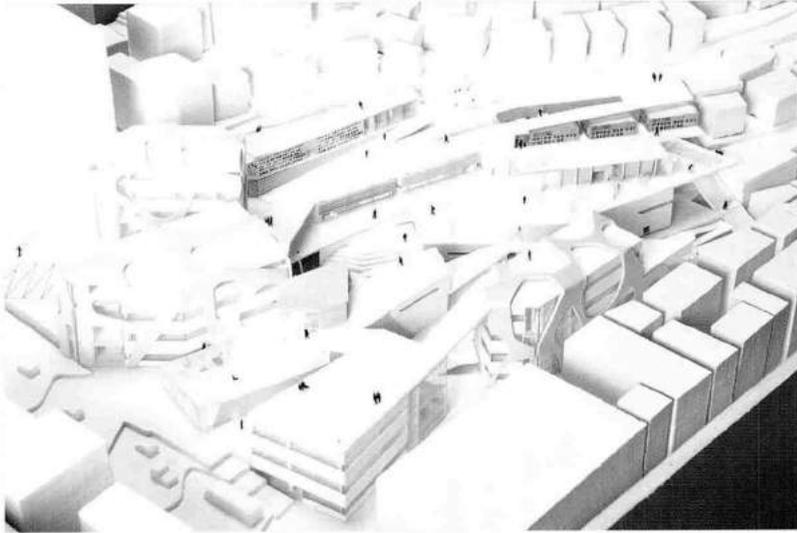
단면도



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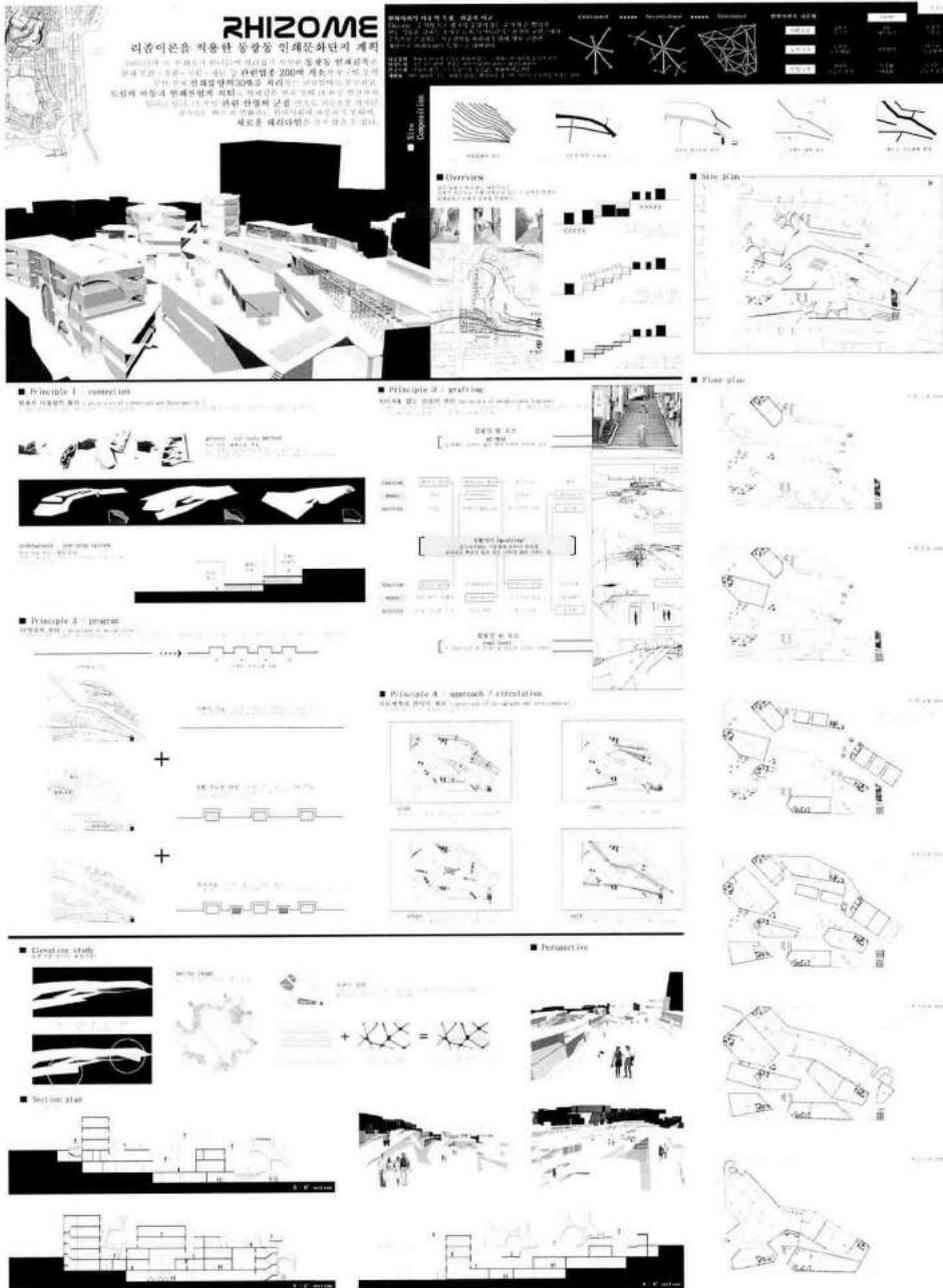
- 1. 복도에서 중정을 바라 본 전경
- 2. 안방
- 3. 중정
- 4. 거실
- 5. 거실
- 6. 거실





Rhizome. 리좀이론을 적용한 동광동 인쇄문화단지 계획

이수영 / 부경대학교 건축학과



동광동 인쇄골목의 공간과 리좀체계의 가장 큰 차이점은 연결고리에 있다.

리좀체계에서는 독립적인 각각의 요소들이 다른 모든 요소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다른 요소로 가는 길이며, 다른 요소의 환경이 되고, 다른 요소들로 넘어가도록 촉발하는 표지판이기도 하다. 이러한 연결고리를 갖는 것과는 달리 대지속의 각 점포들은 제각각의 모습으로 그저 같은 위치에 있다는 것만을 공유하고 있을 뿐, 아무런 관계성을 가지지 않는다. 지속적으로 자생하기 위해서는 상호작용을 위한 연결고리를 형성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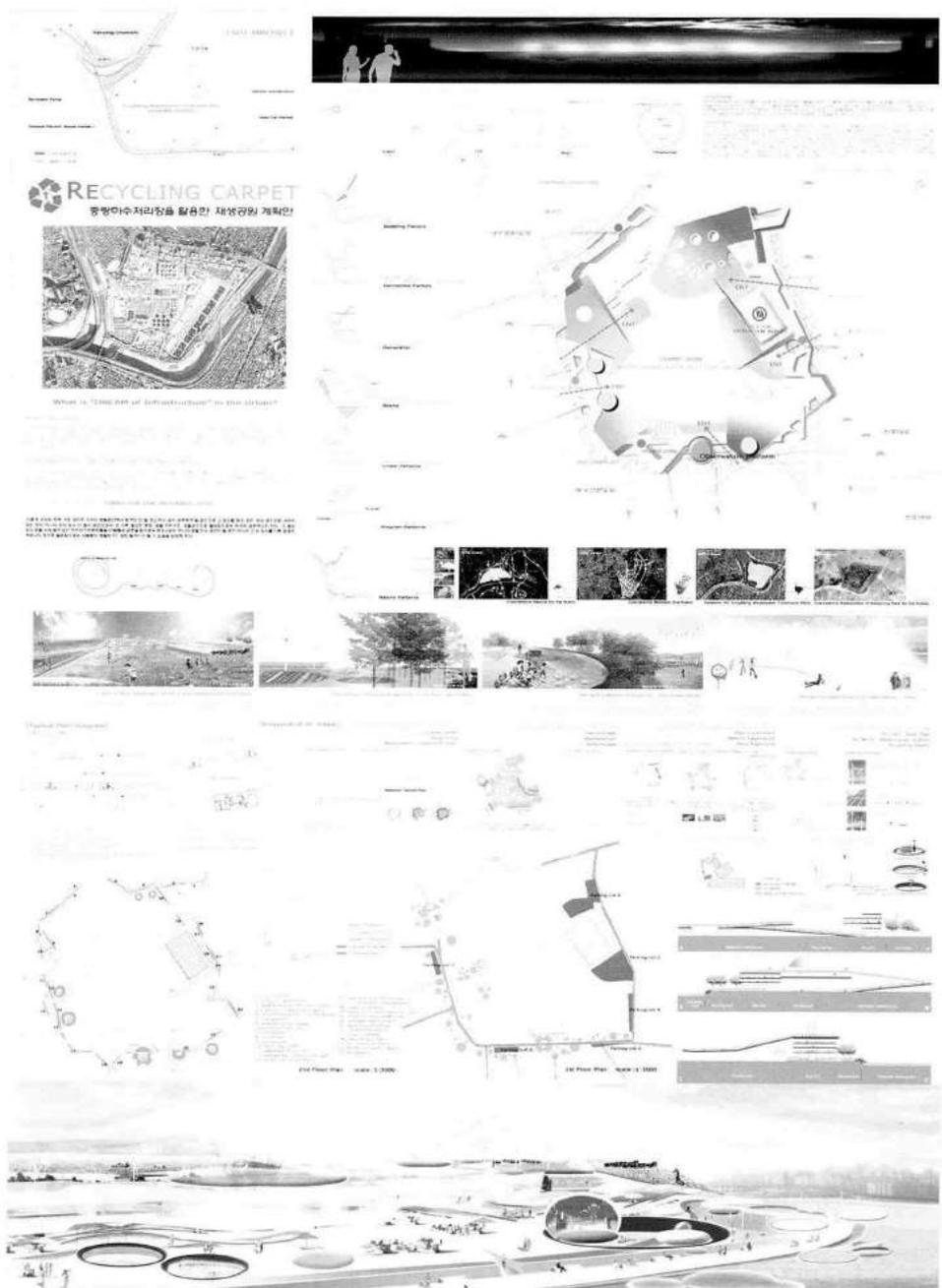
Recycling Carpet. 중랑하수처리장을 활용한 재생공원 계획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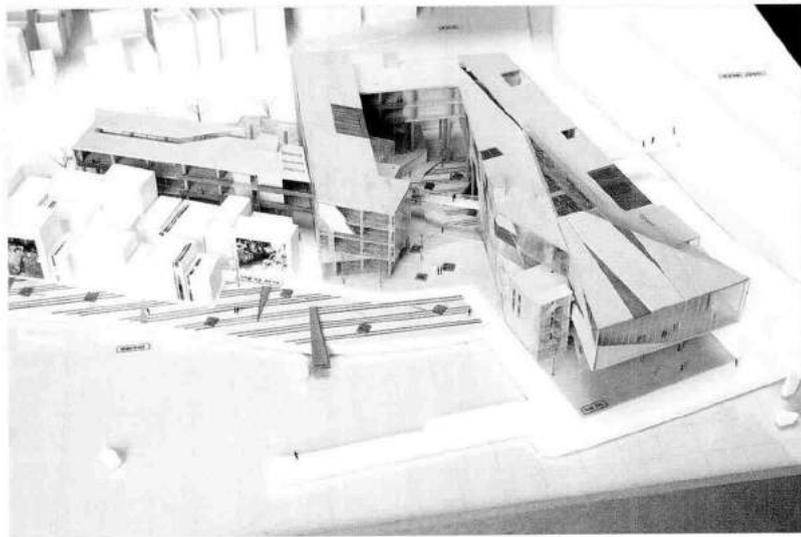


박성수, 최상웅, 박정선 /
한양대학교 건축대학원 건축설계전공

도심속에 고립된 땅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해서 먼저 프로그램들을 대지의 경계부분에 고리 모양으로 배치시키고자 하였다. 그리고 단지 내부에 자연스러운 녹지 공간이 흘러 들어올 수 있도록 저층부를 띄우고 상층부에는 인공경사를 만들었다. 1. 체험을 위한 공간 2. 도심속의 인공 자연 3. 새로운 형태의 대지 4. 에너지의 재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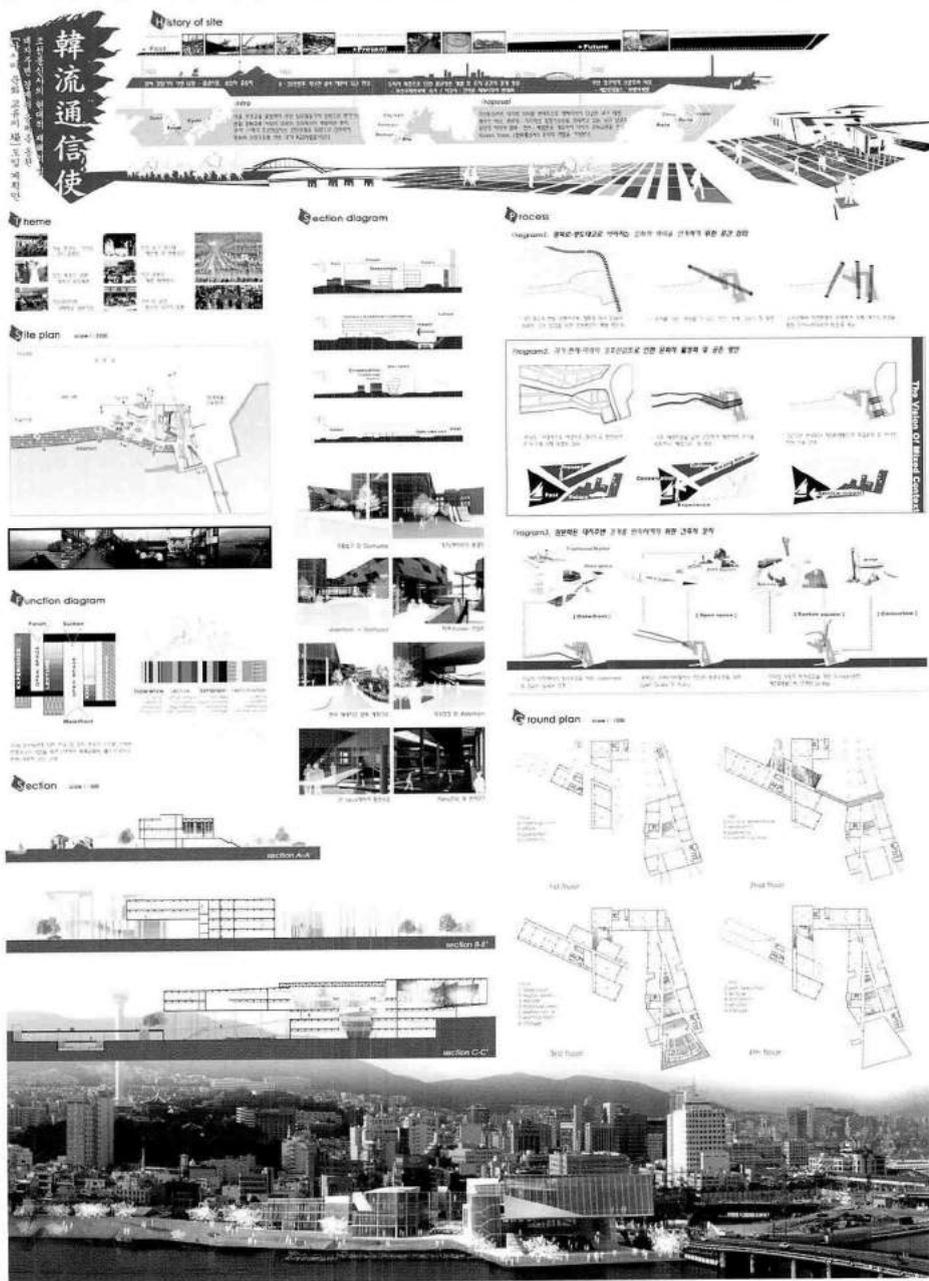
거대한 단지 내에서 놀이와 문화를 함께 즐기며 자연 속에서 걸어다니는 느낌을 연출하기 위해서 인공 언덕과 다양한 연못, 그리고 새로운 공간(republic space)들을 프로그램들 사이사이에 삽입시키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런 republic space들은 사람과 동·식물들을 자연스럽게 단지 내부로 유입시키는 역할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재생단지내의 사람들로 하여금 새로운 경험과 풍요로운 삶을 누리는 혜택을 제공해 줄 것이다.





韓流通信使. 조선통신사의 현대적 재해석 및 대지주변 경계의 융해를 통한 아시아 문화 교류의 장 도입 계획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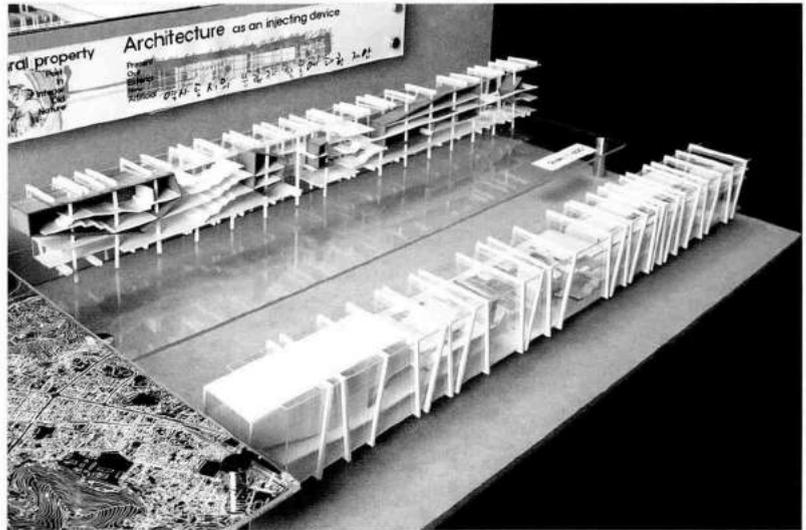
김성산, 손희진, 정일향 / 부경대학교 건축학과



부산 남포동의 Context를 분석하여 그 문화적 특성을 대지 내로 유입시키고, 공간적으로 분절된 과거-현재-미래적인 경계를 융해시키고 공존하기 위해 중첩과 상호관입의 프로그램으로서 도시와 도시, 사람과 사람 간에 소통을 위한 공간을 적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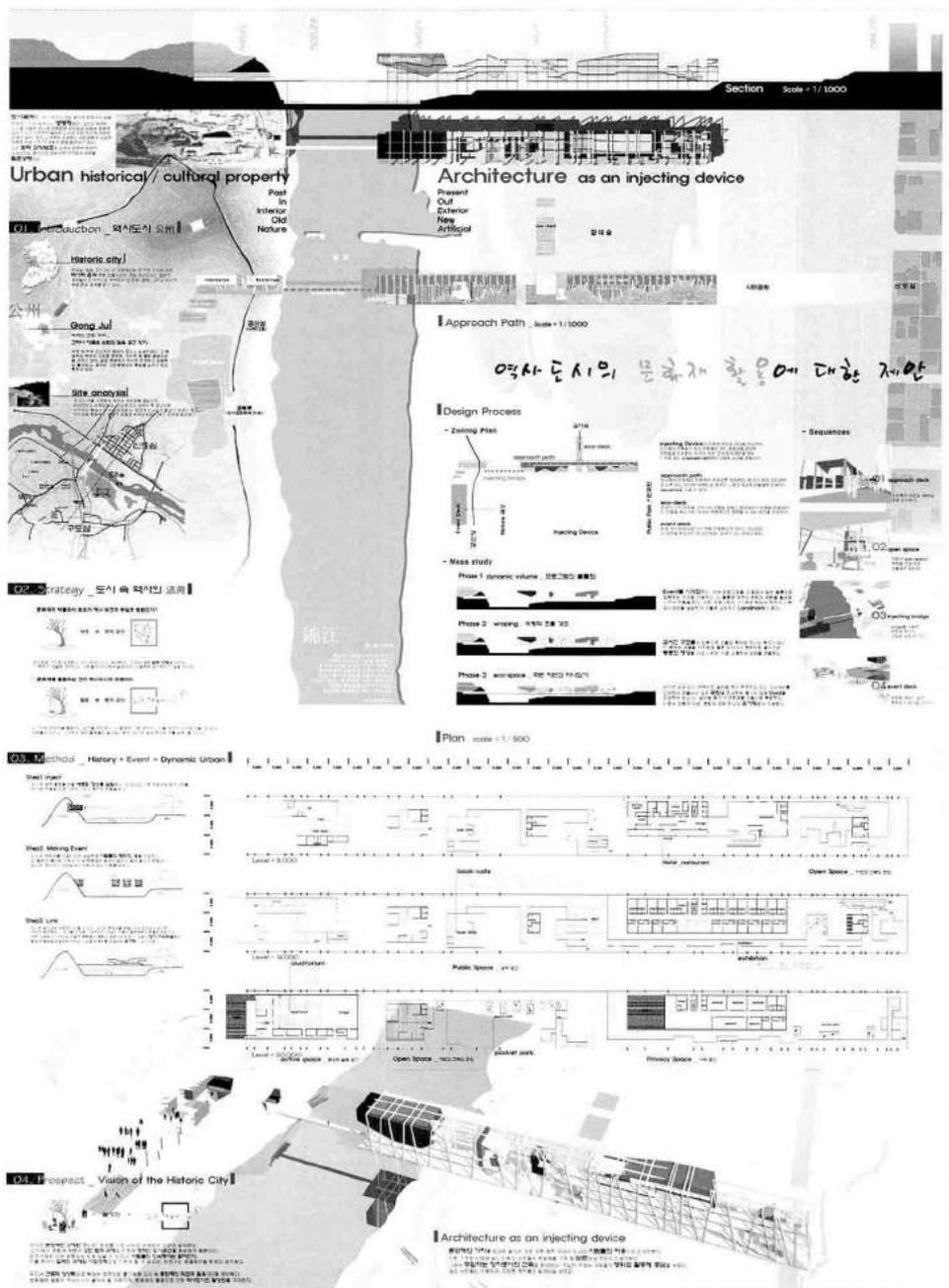
기본적으로 조선통신사 행렬 재현형사를 담을 수 있는 공간을 포함하여, 문화체험·학술·전시·공연 등의 '국가간 문화교류의 장'으로서의 기능을 계획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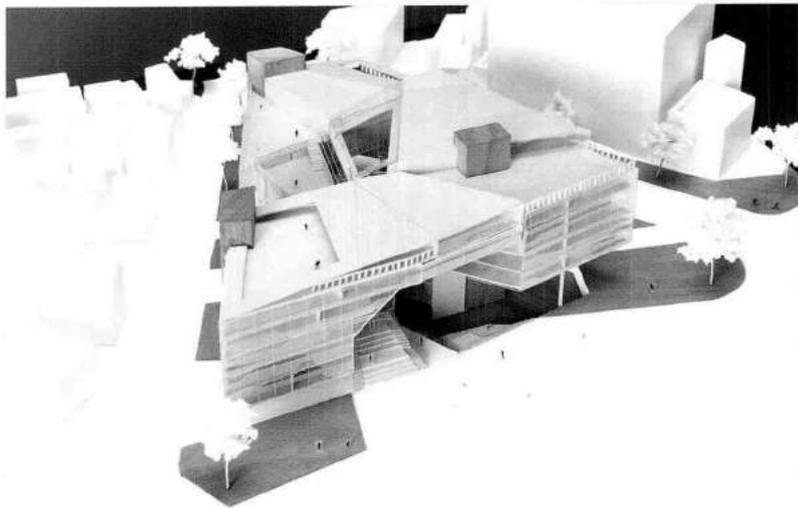
역사도시의 문화재 활용에 대한 제안



이신화, 권구인, 김채윤 / 공주대학교 건축학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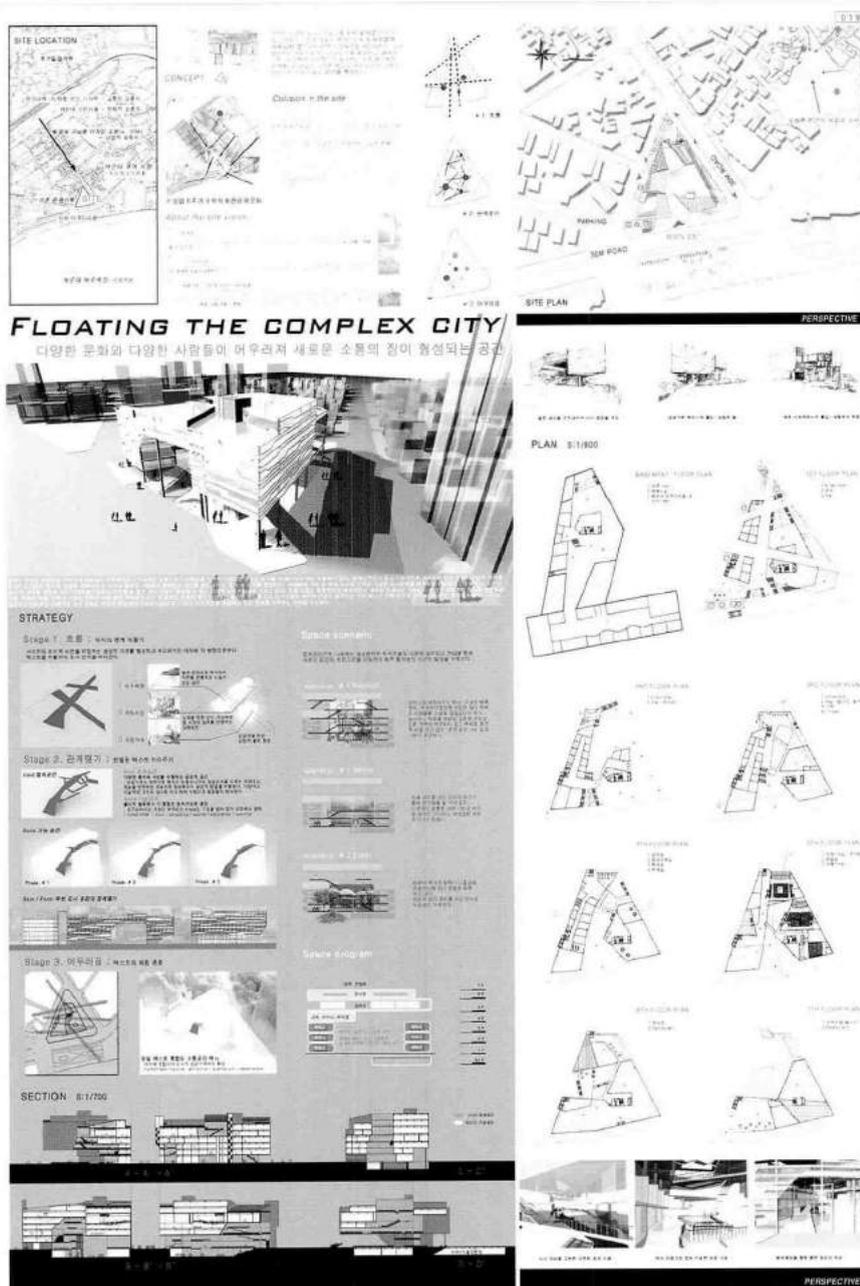
우리는 문화재란 '오래된 것이며, 현재를 사는 나와는 관계가 없는 것' 이라 생각한다. 그 이유는 문화재 주변이 강한 법적 규제에 인하여 도시공간이 정적으로 변했기 때문이다. 그것으로 인하여 문화재는 보호 받을 수 있으나, 사람들의 인식에서는 멀어진다. 이를 현재는 법적인 규제와 사회정책으로 인하여 할 수 없지만 언젠가는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우리의 건축적 상상력은 현재는 불가능한 도시 속 문화재의 직접적 활용(안)이다. 문화재 활용은 역사도시가 풀어야 할 과제이며, 문화재의 활용으로 인하여 역사도시의 활성화를 기대한다.





Floating the complex city. 다양한 문화와 다양한 사람들이 어우러져 새로운 소통의 장이 형성되는 공간

오수희 / 부경대학교 건축학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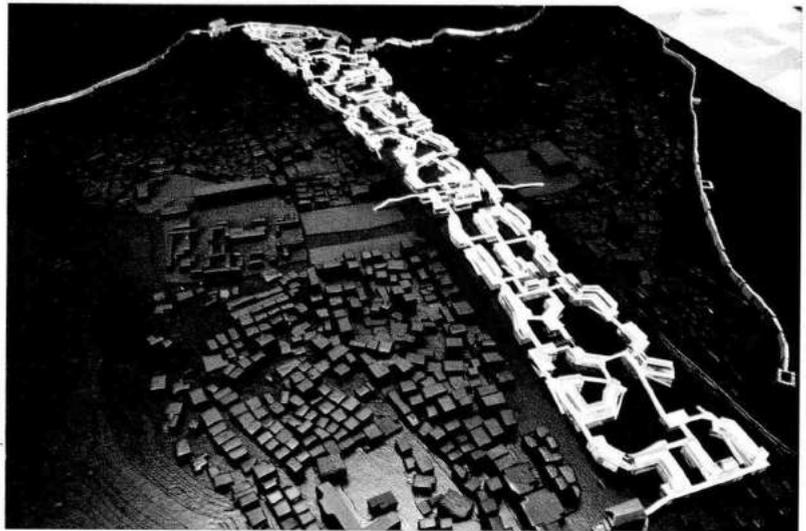
해변이라는 자연을 즐길 수 있고 다양한 이벤트가 열리는 대지는 계절변동에 따라 유동인구의 변화량이 매우 크므로 계절에 관계없이 모여들 수 있는 공공공간이 적기 때문에 '공적으로 열린공간'이 되는 장소를 제공하여 사시사철 자연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자 한다.

해운대의 상업성이 짙은 곳에 재래시장이 위치한다. 새로 생겨나는 상업적 텍스트와의 융합을 통한 재래시장의 문화화장은 도시민들에게 일상의 이벤트를 제공할 것이다. 기존 재래시장 문화를 발전적인 방향으로 유도하는 공간을 제시한다.

구남로거리축제를 비롯하여 부산국제영화제와 각종 해변축제 등이 소통하고 유입되는 커다란 도시적 축이 될 도로의 성격을 수용하고 관광, 상업, 문화가 혼재되는 대지 주변의 흐름과 연결성을 갖는 공공공간을 제공한다.

An Expansion of a Boundary by Duplex Layers.

수원 화성 내 도시공간의 현대적 재해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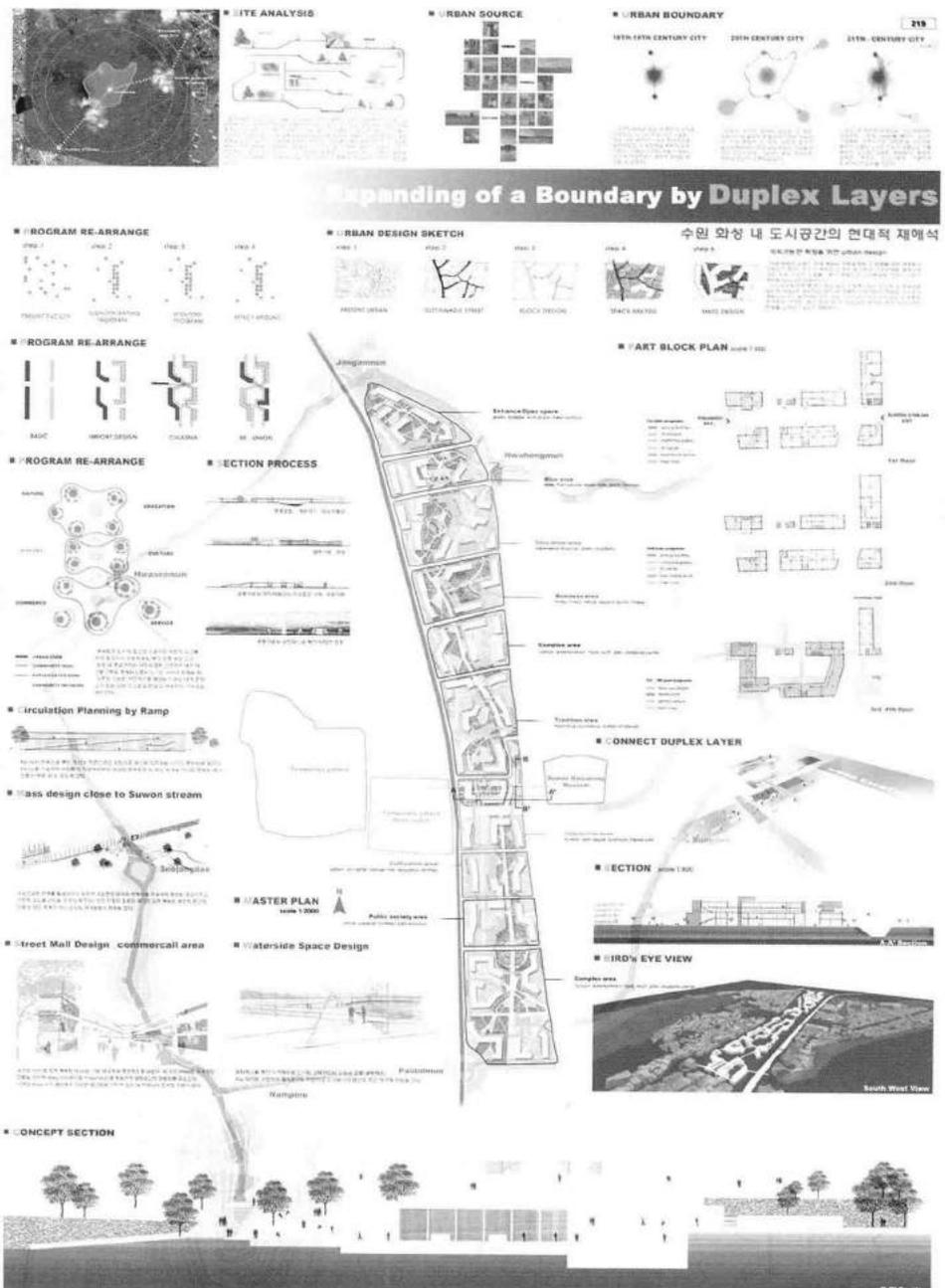


정희석, 양기인, 정지원 / 아주대학교 건축학과

죽어가는 화성을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

화성의 성곽과 물리적 경계는 도시 확장을 저해하고 있으며, 도시 구성 요소의 무질서한 혼재로 인해 도시 시스템의 위계가 붕괴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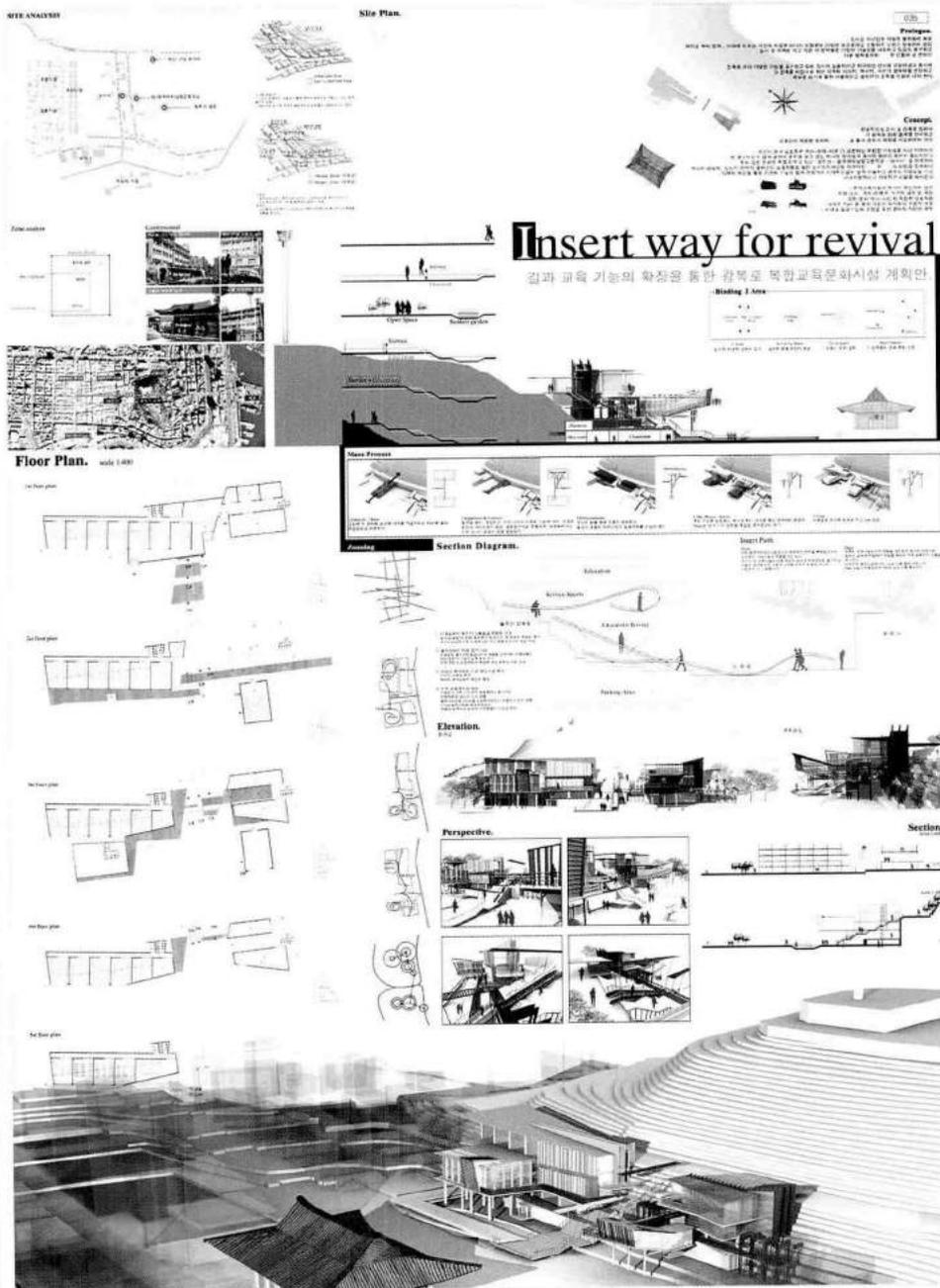
따라서 수원 화성 내의 도심은 지속가능하기 위해 방향성을 가진 두 개의 축을 이용하여 집중 개발, 점진적인 확장을 도모하여 물리적 경계의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하였다. 물꼬를 트면 물이 드나들 듯이 고여 있던 수원 화성 내의 저개발지대에 활력소 제공을 위해 계획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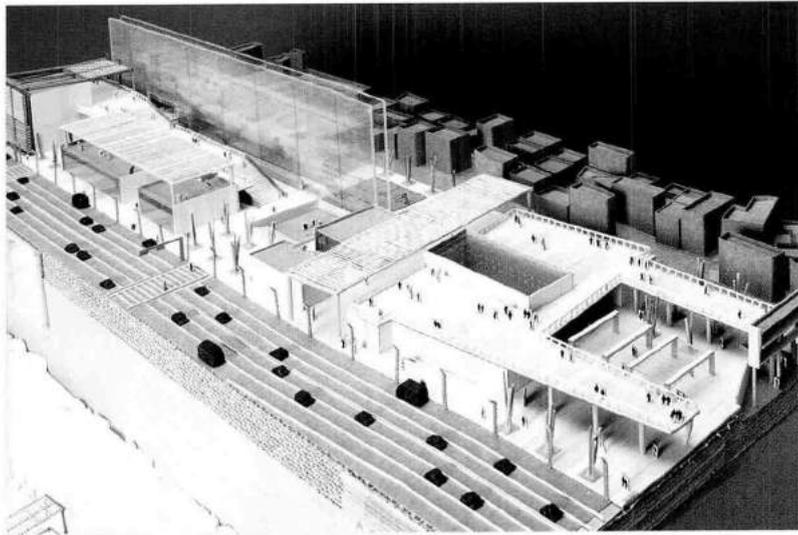


Insert way for revival. 길과 교육기능의 확장을 통한 광복로 복합교육문화시설 계획안

황헌해, 신주영 / 부경대학교 건축학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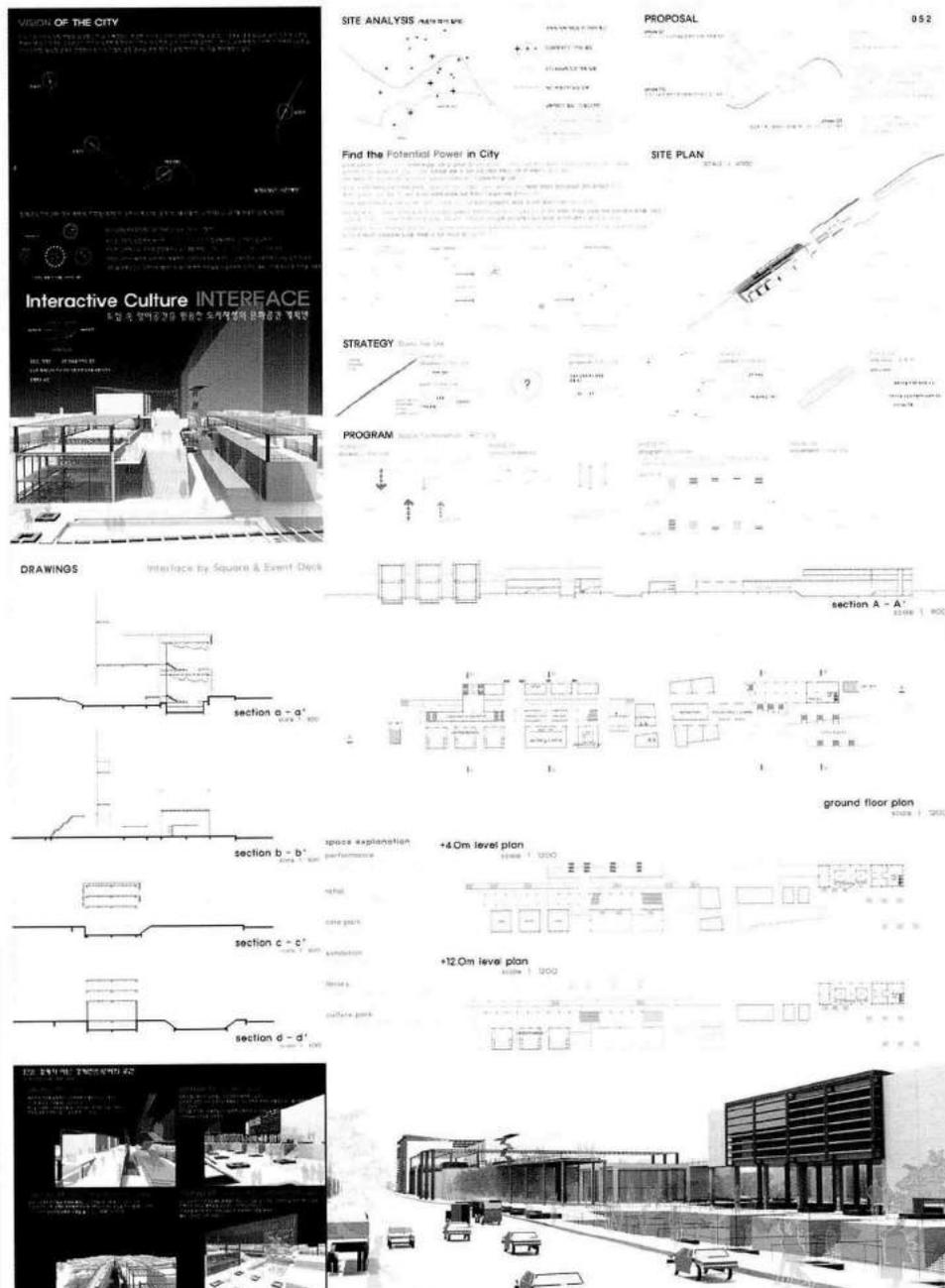


대각사와 용두산을 연결하는 강한 축이 대지내로 관통하여 새로운 접근로가 된다. 또한 시각적으로 개방하여 열린 공간임을 나타낸다. 저층부에서의 레벨차이를 통해 학교의 장소성과 서비스존의 장소성을 구분 지어준다. 경사로, 계단을 통해 용두산 공원의 산책로로 연결되고, 창과 연결된 데크를 통해 각각 새로운 공간으로 연결된다. 저층부의 Open space와 고층부 Mass에서는 서로 교류하며 공유할 수 있으며 때로는 분리되기도 한다. 정면부의 Mass는 저층부를 비워 시각적으로 개방된 느낌을 부여하고 Community를 유발시키는 화합의 장을 형성한다.



Interactive Culture Interface. 도심 속 잉여공간을 활용한 도시재생의 문화공간 계획안

장성희, 박영철 / 부경대학교 건축학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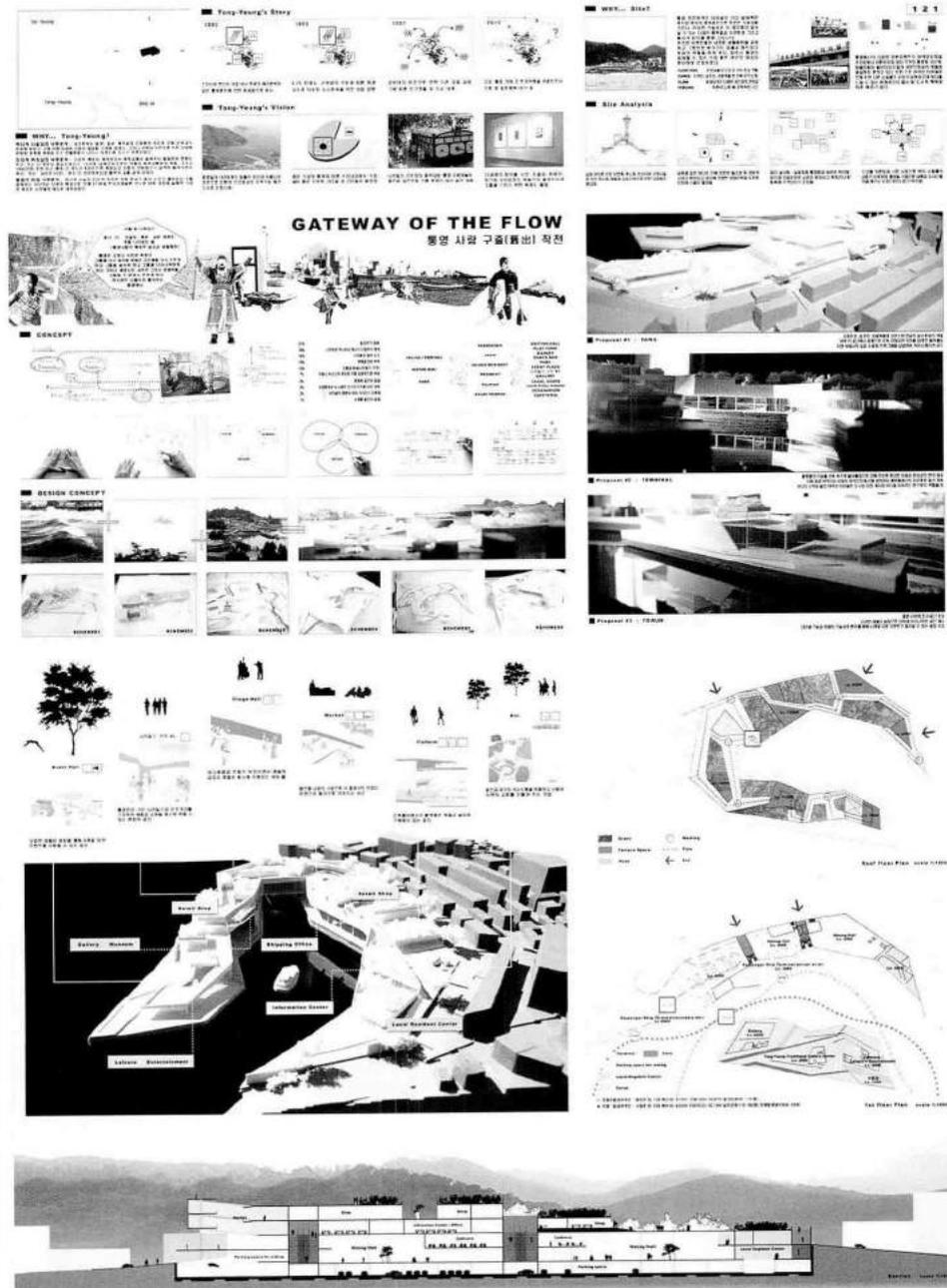


도시적 비전이란 우선 그 도시의 지역적 특성을 가장 잘 살리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부산의 해운대는 다양하고 특징적인 콘텐츠를 가지고 있음에도 세계적인 도시로 알려져 있지는 않다. 그만큼 지역성을 살릴 수 있는 프로그램의 부족이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현재 해운대 역사의 이전이라는 도시계획에 의해 역사 일대의 부지가 잉여공간이 될 상황이다. 해수욕장이라는 콘텐츠는 이 일대가 계절적인 특성을 강하게 만든다. 그래서 여름이 아닌 다른 계절에는 찾는 인구가 상당히 줄어든다. 이것은 이 일대 상가뿐만 아니라 지역적인 큰 손실을 가지고 오게 된다. 한 계절에만 국한되지 않도록 다양한 콘텐츠를 가지도록 하여 beach라는 특성과 더불어 문화의 도시라는 또 하나의 지역색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본 계획안의 주안점이라 할 수 있다.



Gateway of the Flow. 통영사람 구출작전

정민규, 이준석, 윤지환 /
홍익대학교 건축공학부 건축학전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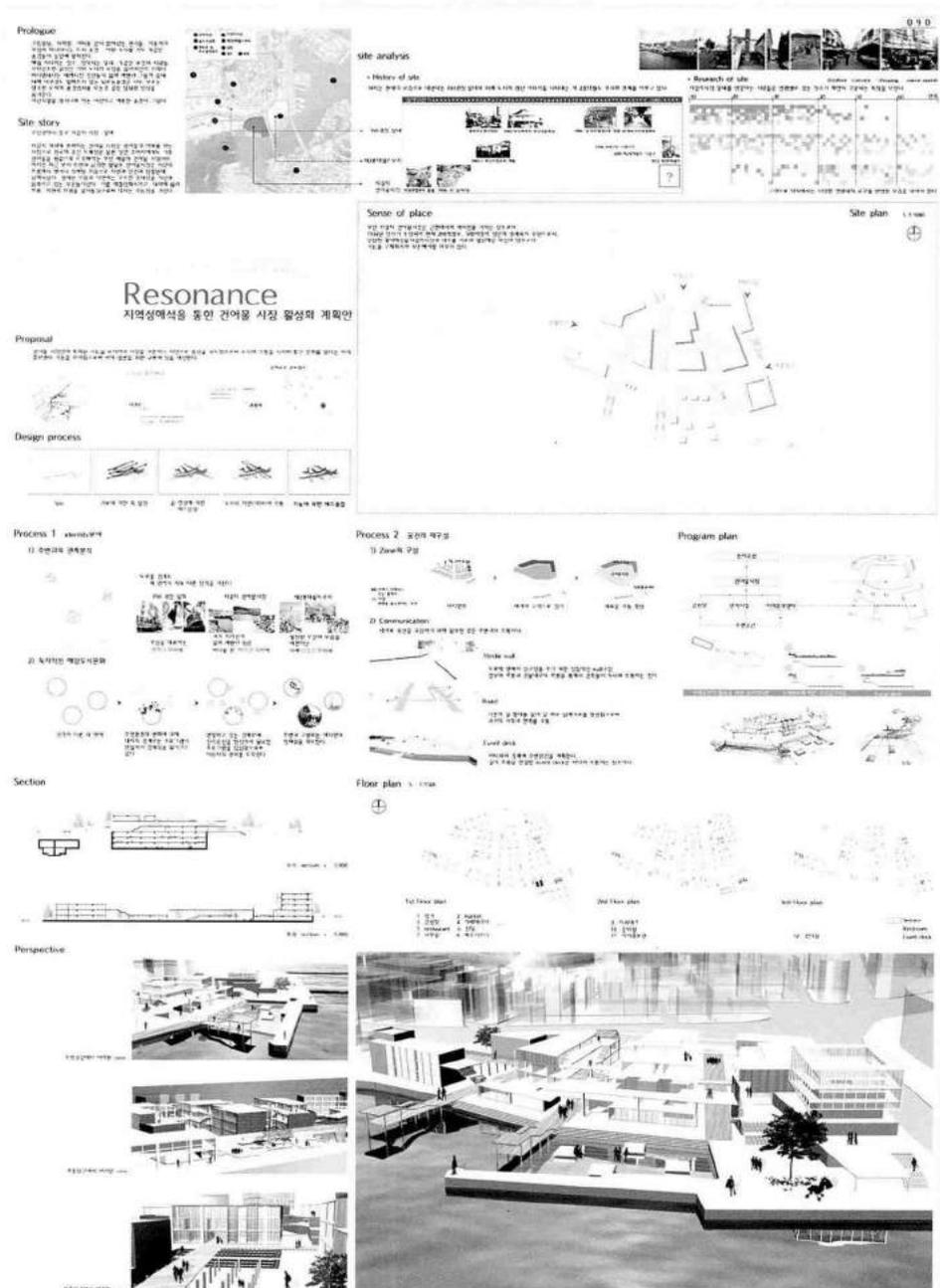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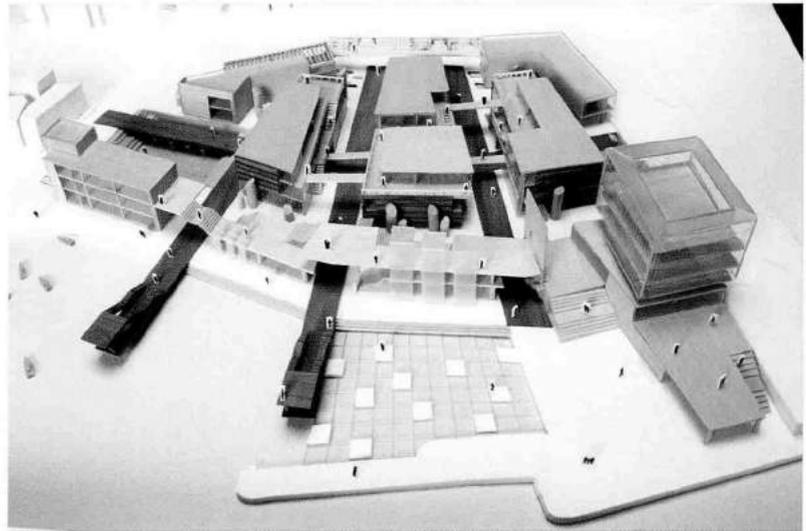


'터미널·수로·포럼'
경제와 문화가 역동적으로 펼쳐지는 공간으로 계획한다. 여객선 터미널만이 가지는 특수한 환경을 공원과 연계하고, 포럼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이벤트를 시각적으로 연계하여 자연과 프로그램의 참여를 유도한다. 여객선을 터미널과 포럼 사이의 수로를 통해 끌어들이므로써 기능에 따른 조닝과 동선계획으로 이용과 관리상의 편의를 제하고, 수로에 의한 다양한 건축적 경험을 통해 생활패턴의 변화 및 다이내믹한 행위를 제시한다. 통영의 특수한 문화와 이벤트, 그리고 역사가 담긴 다양한 레벨의 길과 광장을 구성하여 지역주민과 섬주민, 관광객들의 커뮤니케이션을 유도한다.

Resonance. 지역성 해석을 통한 건어물 시장 활성화 계획안

김혜경, 김희백, 박찬숙 / 부경대학교 건축학과

건어물 시장만의 특화된 기능을 유지하여 시장을 보존하고 자연으로 동선을 유도함으로써 도시와 소통을 시키며, 중구 문화를 알리는 지역 홍보센터 기능을 부여함으로써 지역 발전과 교류의 장을 제안한다.



민 윤 기
정회원, (주)건축사사무소 신도시21, 전주대학교 건축과 겸임교수
by Min, Yoon-ki, KIRA

미국 뉴욕 건축기행(2)

Contemporary Architecture in New York

지난달의 미국 뉴욕 건축기행(1)에 이어 이번에는 지역별로 정리해 놓은 목차 중 맨하탄 미드타운 지역의 건축물을 둘러보기로 하자. 편의상 미드타운은 북쪽으로 타임스퀘어 주변까지만 정리한 것이며 이곳은 뉴욕과 뉴저지의 다른 지역에서 맨하탄으로 들어오는 교통의 허브역할을 하는 곳으로서 철도와 지하철을 연결해주는 펜 스테이션(Penn Station)과 대규모의 버스 터미널이 있고,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있는 34번가를 따라 유명한 메이시(Macy) 백화점과 크리스마스 트리도 유명한 록펠러 센터 광장이 있는 곳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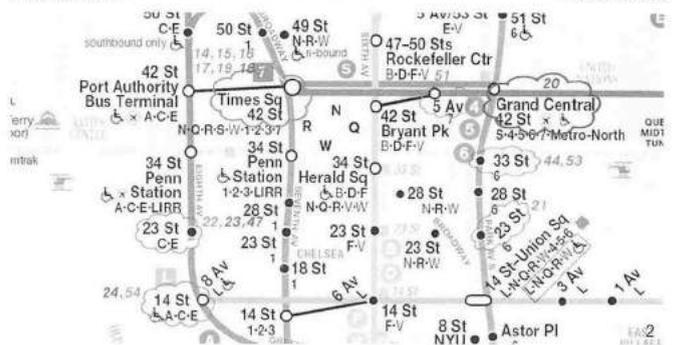


1. 타임스퀘어에서 한 블록 서쪽에 있는 버스 터미널
2. 철도와 지하철의 환승역인 펜 스테이션
3. Macy 백화점 쇼핑도구의 크리스마스 장식
4. 허드슨강에 남아 있는 옛부두 허부 나무말뚝기초의 흔적

맨하탄 미드타운 지역의 건축물 목차

14. Westin Hotel, Times Square 270 W43rd St, New York NY 10036
15. US Armed Forces Recruiting Station, Times Square New York NY
16. The Reuters Building, 3 Times Square New York NY
17. Conde Nast Building, 4 Times Square Broadway 42nd & 43rd St, New York NY
44. Pierpont Morgan Library Expansion, 36th & 37th St, Madison Ave, New York NY
19. New 42nd Street Studio, 229 W42nd St, New York NY 10036-7299
53. Scandinavia House, 36 Park Ave., between E37th St, and E38th St, New York NY
21. Academic Complex(The City University of NY Baruch College), One Bernard Baruch Way(55 Lexington Ave.) New York NY
22. IAC/InterActiveCorp Headquarters, 20th St, 11th Ave, New York NY
54. The Porter House, 366 W15th St./60 9th Ave, New York NY
51. 505 Fifth Avenue, 505 5th Ave, New York NY 10017-4917

23. Eyebeam Institute, 540-548 W21st St, New York, NY (공사전)
47. New Museum of Contemporary Art, 556 W22nd St, New York, NY 10011 (공사전)
24. Carlos Miele Flagship Store, W14th St, New York NY(미방문)
20. Ford Foundation, 320 E43rd St, New York NY(예전에 방문)
18. Conde Nast Cafeteria, 4 Times Square Broadway 42nd & 43rd St, New York NY(접근불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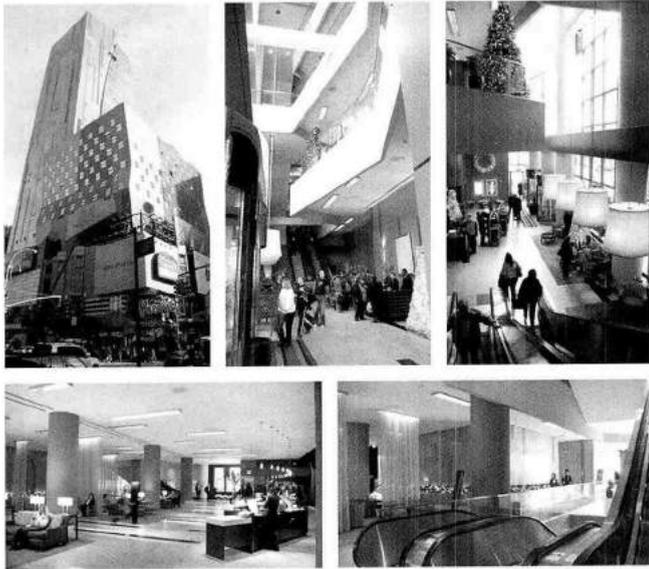
1. 미드타운 확대지도
2. 미드타운 지하철확대지도

14. Westin Hotel - by Architectonica

작가의 이름만으로도 충분히 post-modern적이라는 생각이 드는 이 건물은 Times Square에서 Bus Terminal 쪽으로 향하다 보면 분주한 길가에 바로 면해 입구가 보이게 된다. 역시 Business Hotel의 전형에서 볼 수 있듯이 lobby의 폭은 좁았으며, 평면적인 공간의 답답함을 해소하기 위해 좁고 높은 단면 opening으로 공간의 폐쇄성을 해결하려 하였고 에스컬레이터로 연결된 상층부의 lounge는 부족한 자연채광을 인공조명으로 해결했다. 과감한 입면의 분절 그리고 색상, 수직과 수평요소의 자유로운 구사, 이런 것들로 인해 post-modern적이지만 획일적인 glass building의 skyscraper와 비교하면 창의적 design으로 보이기는 하나 곧 싫증이 나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이 드

는 facade design이었다. 이 곳 lounge에서 잠시 쉬며 커피도 한잔 하고 재떨이도 하나 샀다. Bronx에 있는 Arquitectonica의 다른 작품 Bronx Museum of the Arts와 견주어 보면 작품성은 떨어지나 상업적으로는 성공적인 작품인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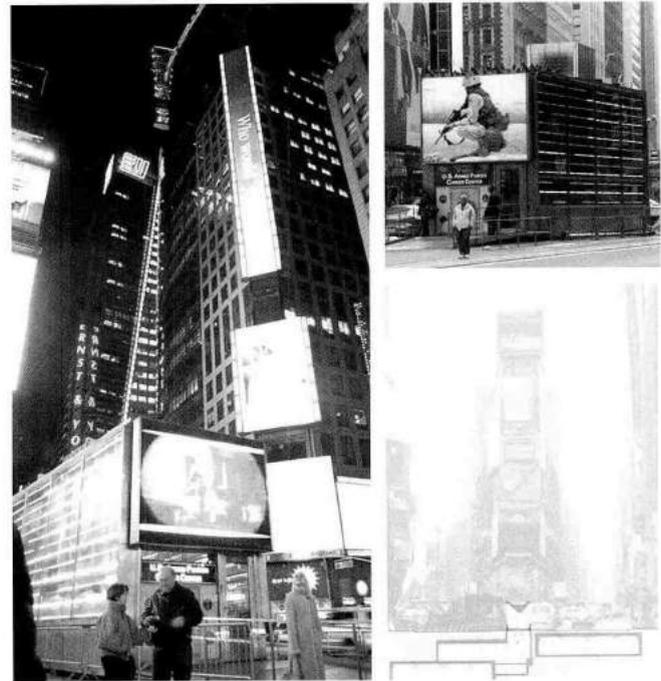
주소 : 270 W43rd St. New York NY 10036 / 준공년도 : 2002



15. US Armed Forces Recruiting Station - by Architecture Research Office

10년 전 New York을 방문했을 때는 이곳에 무엇이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만큼 미국적인 정서에 알맞은 미국인다운 건물이었다. 애국심이 하늘을 찌르는 나라, 자부심이 대단한 국민들... 그들에게 미군이 되어 세계평화를 지키라는 동영상이 끊임없이 건물의 측면을 다 차지하고 있는 VCR에서 계속 나오고 있었으며, 수많은 상업주의 광고판들 사이에서의 연한 모습으로 그것들과 같은 어휘로 이루어진 성조기 전면, 후면 facade는 칭찬해 줄 만한 아이디어였다. 하지만 그림으로 인해 오히려 일반 관광객들에게는 수없는 광고판이 난무하는 Times Square의 분위기에 그냥 묻혀져 보이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실제로 저녁에 Mamma Mia를 보기위해 미국에 사시는 형님 그리고 형남친구분 내외와 같이 이곳을 지날 때 그분들은 전혀 이 건물의 존재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고 내가 알려주자 그제서야 이 건물을 인지했다. 밑의 사진에서 미군병사의 VCR위로 날아든 평화의 상징인 비둘기 때도 이 건물위로 날아들어 세계평화를 수호하자는 건물의 program을 고조시키고 있는 듯...????

주소 : Times Square New York NY / 준공년도 : 1999



16. The Reuters Building - by Fox & Fowle Architects

Times Square를 향해 7번가를 북쪽으로 걷다보면 현란한 광고판이 눈에 띄게 되고 위쪽으로 시선을 돌리면 Reuters Building 꼭대기에 있는 썬기 모양이 눈에 들어온다. 시선을 내려오면 다른 모양의 저층부의 원형 광고판이 건물을 압도하고 있으며 건물을 지나쳐 Times Square에서 보게 되면 또 다른 선형의 광고판이 수직으로 건물의 모서리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아래로는 각형의 또 다른 광고판이 현란하게 보인다. 그리고 동쪽 모서리를 돌아 Times Square를 뒤로하고 나가다 보면 건물의 입면은 내가 바라보았던 건물이 이 건물이었나 하는 착각이 들 정도로 전혀 다른 격자형 입면을 보게 된다. 다양한 facade가 여러 개성을 표현하며 조화를 이루고 있는 듯 하나, 주변의 정신없음을 오히려 더욱 가중시키는 인상은 지울 수 없다.

건물 표피에 덕지덕지 붙어 있는 광고판이 보여주듯 상업주의 건축물의 전형이 느껴지고 값비싼 땅의 건물인 만큼 로비는 상당히 협소하였으나, 수직으로 open된 유리 커튼월의 로비 바깥으로 Times Square의 광경을 잘 끌어 들였고 빛의 유입도 잘 이루어 졌다.

주소 : 3 Times Square New York NY / 준공년도 : 2001



44. Pierpont Morgan Library- by Renzo Piano & Beyer Blinder Belle(local architectural firm)

도서관의 휴무일이어서 내부는 기웃거리다가 왔어야 했다. 허나 휴무일이 아니더라도 내부에서 사진은 못 찍게 한다고 한다. 붉은 돌 mass의 기존건물과 어울리는 새로운 glass mass의 삽입에서 건축사의 고민을 충분히 읽어 볼 수 있었고, 격자형 입면을 부분적으로 solid로 막은 이유는 내부 프로그램에 의한 이유인 것 같았고, 기존과의 접합부에 입구와 계단실 등을 두고 Glass 커튼월로 처리해서 일체가 아닌 다름을 보여주며,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주소 : 36th & 37th St, Madison Ave, New York NY / 준공년도 : 2006

17. Conde Nast Building - by Fox & Fowle Architects

Reuters Building과 같은 건축사의 작품이며 Reuters Building 보다는 준공연도가 이르고 훨씬 차분한 분위기의 통일된 어휘를 가지고 있었다. 또 Conde Nast의 위치는 Reuters의 위치보다는 Times Square와 소통이 안되는 위치였다. 2001년 911테러로 사라진 World Trade Center를 대신해서 2003년 110m의 안테나가 세워져 broadcast station을 갖고 있다. 건물의 로비는 선형으로 한 개의 블록을 통과하고 있었으며 바깥의 캐노피와 어울린 로비의 천정이 인상적이었다.

주소 : 4 Times Square Broadway 42nd & 43rd St, New York NY / 준공년도 : 1999





19. New 42nd St. Studio - by Platt Byard Dovell



상업건물들이 늘어서 있는 Manhattan의 한복판에 metallic한 분위기의 facade를 가지고 있는 10층 규모의 자그마한 건물은 충분히 눈에 띄었다. 전면 facade의 metal louver는 낮에는 sun shade 역할을 하고 밤에는 층마다 설치된 색색의 조명을 받아 경관조명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었다. 그런 facade는 광고판으로 도배된 facade보다 건물의 생명력을 충분히 더해주고 있었으며 도시의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켜 주는 듯 보였다. 잠깐 들어가 본 건물내부의 detail 역시 무채색으로 정리되어 있고 강화유리로 된 계단디딤판 등 유리과 금속, 그리고 무채색의 조화로 건물은 한층 더 미래를 지향하고 있었다.

주소 : 229 W42nd St. New York NY 10036-7299 / 준공년도 : 2000

53. Scandinavia House - by Polshek Partnership Architects

Park Ave.를 따라 북쪽으로 올라가다보면 영화의 장면에서 New York을 상징하는 과거의 Pan Am bldg.(현재는 Met Life bldg.)이 언덕에 우뚝 솟아있고 그 건물을 우회하면 uptown으로 연결된다. 그리고 36번가의 서측 편에 New York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제법 높은 건물들의 입면 사이로 조용히 자리 잡은 이 건물을 볼 수 있게 된다. 전면 facade의 정갈함이 오히려 인지도를 높이고 있었으며, 나지막한 캐노피(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참 하부를 이용)를 통해 건물로 진입하게 해준다. 금속 패널과 glass, 그리고 목재루버로 마감된 입면은 수직과 수평이라는 요소로 적절히 안배되어 있었으며, 단지 목재루버의 유지관리가 잘 되지 않아 마감상태가 퇴색된 것이 아쉬웠다.



1층 부분은 cafeteria가 자리하고 있었으며, 전면에 2층 전시실로 향하는 계단이 슬직하게 자리하고 있었다. 건물 후면 2층 옥상에는 조그만 정원이 마련되어 있었으며, 후면 계단실에서 정원을 바라보며 움직일 수 있게 계획되었고,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의 상부에도 조그마한 천장으로 빛을 유입시켰다. 좁은 폭의 전면에 대한 단점을 잘 정리했고, 건물 내부의 분위기도 포근했고 편안했다. Brooklyn Museum의 Entry Pavilion & Plaza와 함께 Polshek의 절제되고 정리된 design 세계를 읽을 수 있었으며, detail한 감각을 볼 수 있었다.

주소 : 36 Park Ave. between E37th & E38th St. New York NY / 준공년도 : 2000



21. Academic Complex(Baruch College) - by KPF

한 개의 block전체가 대학건물이었고 대학 campus였다. 학생 수도 상당히 많았으며, 별로 좋은 학교가 아니어서인지 학생들의 행실은 그리 좋은 편이 아니었다. 긴 가로 of 양측으로 입구가 위치하고 있었으며 지하철역이 가까운 한쪽 입구는 그 모퉁이에 위치하고 있었고, 다른 입구의 전면으로는 제법 넓은 폭의 외부공간이 학생들에게 쉼터를 제공해주고 있었다.

두 입구는 내부에서 관통하여 학생들의 이동을 돕고 있었고, 수직 open되어 있는 공간의 개방감과 빛의 유입으로 인해 상당히 밝은 분위기였다. 건물의 외부 facade design은 주변 text에 맞추기 위한 재료의 선택과 mass와 면의 분절이 돋보였으나 거친 마감과 유지관리가 잘 안되어서인지 벌써 많이 퇴색되었다.

주소 : 55 Lexington Ave. New York NY / 준공년도 : 2002



22. IAC Headquarters - by Gehry & Partners

아직 준공은 다 되지 않았으나, 건물의 형태와 외벽재료는 다 갖추고 있었다. 또 한번 Gehry의 curve를 보게 되었는데, 갖은 재료에 대한 본인의 curve를 실행하는 의도는 실험적이지만 Vilvao의 Guggenheim이나 LA의 Disney Center에서 보여준 금속판의 curve보다 어색해 보였다. 외벽재료는 단열glass(마치 compressor로 paint를 뿌린 듯 하지만 실은 도자기 원료로 무늬를 냈다고 함.)로서 하얀 curve는 항해중인 커다란 배의 형상을 은유한다고 한다. 강변에 위치하고 있어 바람이 몹시 불고 추워서 빨리 벗어나고 싶었다.

주소 : 20th St. 11th Ave. New York NY / 준공년도 : 2007



54. The Porter House - by SHoP

서울의 마장동같은 지역으로서 주변은 Meat Market지역이어서 인지 아직도 hudson강 옛 부두에서 이곳으로 향하는 거리의 분위기는 정리되지 않았으나, 9번가를 지나서 부터는 정돈된 거리분위기가 있다. 검은zinc의 외벽재가 주변의 벽돌건물의 외피와 대비되어 리모델링으로 건물의 orientation은 확실히 해주고 있었으며 저녁에는 조명에 의해 인지는 더욱 높았다. 하지만 zinc의 검은 색이 주변의 기존건물과 함께 가로분위기를 어둡게 만들고 있었다. 이 condo의 penthouse 3-bedroom의 가격이 약 36억을 호가하는 호화콘도라는 사실이 내부를 보지 않고 외관과 주변으로만 판단해서는 좀 실망스러웠고 다른 한편으로 manhattan의 비싼 주택가격의 실체를 보여주고 있었다.

주소 : 366 W15th St./60 9th Ave. New York NY / 준공년도 : 20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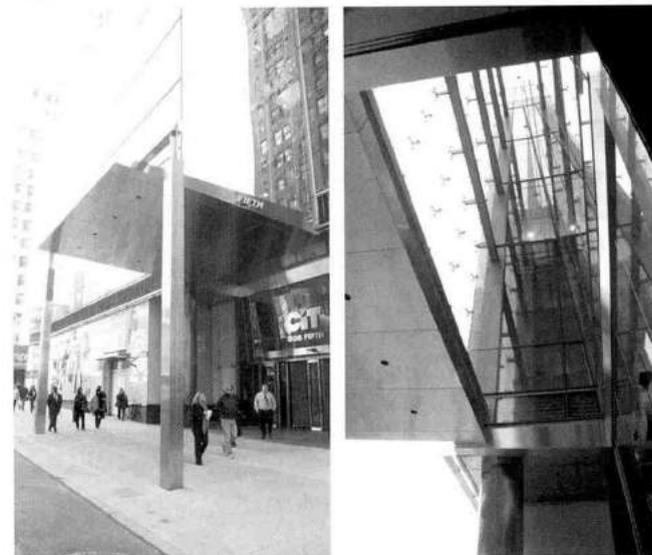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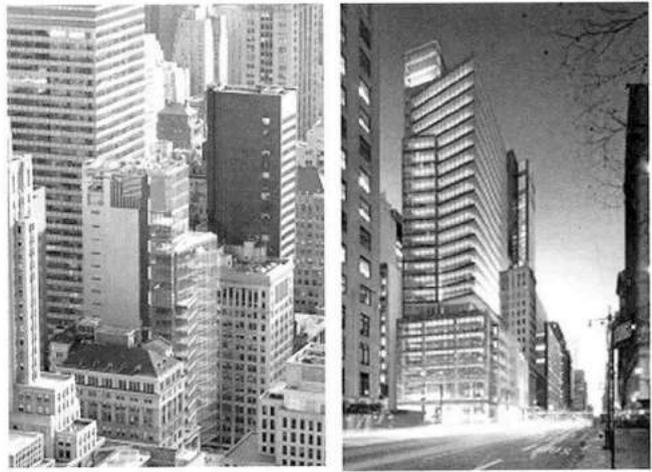


51. 505 Fifth Avenue - by KPF

New York 공공도서관 대각선 건너편 모퉁이에 자리한 이 건물은 투명 glass라는 재료의 특성을 잘 표현하고 있었으며, tower 부분에서는 corner 대지의 특성을 잘 살리고 있었고 그 자리잡음 또한 단정한 어휘로 잘 표현되고 있었다. 허나 pedestrian text에서는 상업건물이라 그런지 corner대지에 대한 반영이 미흡한 생각이 든다. 맨하

탄의 다른 건물처럼 건물의 주출입구 상부에 보도 끝에 기둥을 둔 canopy와 커다란 canopy로 인해 생겨나게 되는 입구 부분의 어두운 그늘을 캐노피와 건물 사이의 open으로 빛의 유입을 도모했다.

주소 : 505 5th Ave. New York NY 10017-4917 / 준공년도 : 2005



협회소식_kira news

이사회

■ 제9회 이사회

2007년도 제9회 이사회가 지난 9월 11일 오후 2시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부의안건으로 상임임원처무규정 개정(안) 승인의 건, 위임전결규정 개정(안) 승인의 건, 공제규정 개정(안) 승인의 건, 공제업무세칙 제정(안) 승인의 건, 인천건축사회 회칙 변경 승인의 건, 건축사연수교육 개최계획(안) 승인의 건, 「건설사 설계업 요구」대처 예산(안) 승인의 건,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 장례보조금 지급 승인의 건과 협의사항으로 서울시의 건축심의 개선대책에 관한 건, 한·미 FTA 후속조치에 따른 T.F팀 구성에 관한 건, (가칭)건축도시환경디자인 연구원 설치·운영방안에 관한 건, (가칭)설계경기운영위원회 구성·운영(안)에 관한 건, 대한건축사협회 건축대장정 시행계획(안)에 관한 건, 수시감사 실시에 따른 조치에 관한 건, 경조비 지급규정 개정(안)에 관한 건, 2007 전국건축사대회 예산조정요청에 관한 건이 논의되었다.

주요 의결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부의안건

- 제1호의안 : 상임임원처무규정 개정(안) 승인의 건
-원안대로 승인함.
- 제2호의안 : 위임전결규정 개정(안) 승인의 건
-원안대로 승인함.
- 제3호의안 : 공제규정 개정(안) 승인의 건
-원안대로 승인함.
- 제4호의안 : 공제업무세칙 제정(안) 승인의 건
-원안대로 승인함.
- 제5호의안 : 인천건축사회 회칙 변경 승인의 건
-원안대로 승인함.
- 제6호의안 : 건축사연수교육 개최계획(안) 승인의 건
-원안대로 승인함.

▷기 간 : 2007.10.2~6

▷장 소 : 코엑스 3층 회의실 320, 321호

▷주최/주관 : 건설교통부/대한건축사협회

▷지출과목 : 일반회계 연수사업비

- 제7호의안 : 「건설사 설계업 요구」대처 예산(안) 승인의 건
-원안대로 승인함.
- 제8호의안 :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
-원안대로 승인함.
- 제9호의안 : 장례보조금 지급 승인의 건
-故 구윤회 고문을 포함하여 향후 전임회장의 장례시 아래와 같이 시행하기로 함.
▷장례보조금은 500만원을 지급
▷유족의 원에 의거 영결식을 거행할 경우 별도로 150만원 범위내에서 집행단, 영결식을 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지원금은 없음

▲ 협의사항

- 제1호 : 서울시의 건축심의 개선대책에 관한 건
-「건설사 설계업 요구」관련사항을 포함하여 언론에 적극 홍보하기로 하고, 예산은 비상대책 예산을 사용하기로 함.
- 제2호 : 한·미 FTA 후속조치에 따른 T.F팀 구성에 관한 건
-심재호 이사와 협의하여 T.F팀을 구성·추진하기로 함.
- 제3호 : (가칭)건축도시환경디자인 연구원 설치·운영방안에 관한 건
-장·단기 계획 및 예산 등은 정책위원회에서 검토·보완
- 제4호 : (가칭)설계경기운영위원회 구성·운영(안)에 관한 건
-(가칭)설계경기운영위원회 구성·운영에 필요한 예산 및 운영세칙 등을 마련하여 차기 이사회에 상정하기로 함.
▷위원장 선임은 회장에게 위임
- 제5호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대장정 시행계획(안)에 관한 건
-행사의 목적과 취지는 좋으나, 협회의 예산 형편상 비예산사업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재검토하도록 함.
- 제6호 : 수시감사 실시에 따른 조치에 관한 건
-감사의 지적사항이 타당하고, 의결절차 이행이 필요하다면, 차기 이사회에 부의

안건으로 상정하여 처리하기로 함.

- 제7호 : 경조비 지급규정 개정(안에 관한 건)
- 일부 내용을 보완하여 차기 이사회에 부의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함.
- 제8호 : 2007 전국건축사대회 예산조정 요청에 관한 건
- 향후 전국건축사대회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유치 신청방법과 절차, 예산조달방안 등을 명시하기로 함.

■ 제4회 임시이사회

2007년도 제4회 임시이사회가 지난 9월 28일 오후 3시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부의안건으로 법무법인을 통한 대응에 관한 건과 협의사항으로 비상대책위원장 사의표명에 관한 건, 일반회계 홍보사업비 집행에 관한 건, 2007 대한민국건축문화대제전 시행에 관한 건이 논의되었다. 주요 의결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부의안건

- 제1호의안 : 법무법인을 통한 대응에 관한 건
- 건설업체 설계업 요구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법무법인 선정은 회장에게 위임함.

▲ 협의사항

- 제1호 : 비상대책위원장 사의표명에 관한 건
- 유보함.
- 제2호 : 일반회계 홍보사업비 집행에 관한 건
- 제도개선사업 대외협력비 중 집행액을 제외한 나머지 잔금에 대해서는 이영순 부회장과 협의하여 집행하기로 함.
- 제3호 : 2007 대한민국건축문화대제전 시행에 관한 건
- 10월 2일 등 각 일정별 행사에 많은 회원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동행사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임원 모두가 적극 동참하기로 함.

위원회 개최 현황

■ 제4회 공제사업위원회 소위원회(손해배상공제 실무기준마련 소위원회)

제4회 공제사업위원회 소위원회(손해배상공제 실무기준마련 소위원회) 회의가 지난 9월 4일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손해배상공제 실무기준 마련에 관한 건이 논의되었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회의결과

- 제1호 : 손해배상공제 실무기준 마련에 관한 건
- 원안대로 협의 함.

■ 제3회 공제사업위원회

제3회 공제사업위원회 회의가 지난 9월 17일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공제사업 및 손익계산서(안)에 관한 건, 공제사업추진 향후 일정에 관한 건이 논의되었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회의결과

- 제1호 : 공제사업 및 손익계산서(안)에 관한 건
- 원안대로 협의 함.
- 제2호 : 공제사업추진 향후 일정에 관한 건
- 원안대로 협의 함.

■ 제5회 공제사업위원회 소위원회(손해배상공제 실무기준마련 소위원회)

제5회 공제사업위원회 소위원회(손해배상공제 실무기준마련 소위원회) 회의가 지난 9월 27일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손해배상공제 실무기준 마련에 관한 건이 논의되었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회의결과

- 제1호 : 손해배상공제 실무기준 마련에 관한 건
- 원안대로 협의 함.

■ 제6회 법제소위원회(질의회신집 발간 진도점검) 및 건교부 합동회의

제6회 법제소위원회(질의회신집 발간 진도점검) 및 건교부 합동 회의가 지난 9월 11일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질의회신 원고 1차 감수(건설교통부 건축법령 담당자)에 따른 2차 감수에 관한 건이 논의되었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회의결과

- 제1호 : 질의회신 원고 1차 감수(건설교통부 건축법령 담당자)에 따른 2차 감수에 관한 건

- 건교부 2차 검수결과

▷ 건교부에서 1차로 검수한 내용을 수정하여 건설교통부에 9월14일 오전 10시30분까지 제출(2부(좌철1부, 건설교통부 도시환경기획관 추천사 포함))하고, 건교부는 9월18일(화) 오후 3시 30분까지 검토완료하면 그 자료를 가지고 9월18일(화) 오후 5시 회의(3차 건교부 담당자와 법제소위원회 합동 감수회의)를 통해 정리하기로 함.

■ 제2회 법제위원회 소위원회(계약서)

제2회 법제위원회 소위원회(계약서) 회의가 지난 9월 12일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건축물의 설계 표준계약서 개정(안에 관한 건)이 논의되었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회의결과

- 제1호 : 건축물의 설계 표준계약서 개정(안)에 관한 건
- 건축물의 설계 표준계약서 표지 및 제1조(총칙)~제8조(성품품의 작성·제출),

별표에 대하여 문구 수정 및 책임과 역할에 대해 정리하였으며, 제9조부터는 다음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함.

■ 제7회 법제소위원회(질의회신집 발간 진도점검) 및 건교부 합동회의

제7회 법제소위원회(질의회신집 발간 진도점검) 및 건교부 합동 회의가 지난 9월 18일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질의회신 원고 2차 감수(건설교통부 건축법령 담당자)에 따른 3차 감수에 관한 건이 논의되었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회의결과

- 제1호 : 질의회신 원고 2차 감수(건설교통부 건축법령 담당자)에 따른 3차 감수에 관한 건
 - 건교부 3차 감수결과
 - ▷도시환경기획관의 추천사는 삭제하고, 중복되는 일부 질의회신을 삭제하며, 건교부의 최종감수는 완료함.

■ 제8회 법제위원회 소위원회(질의회신집 발간 진도점검)

제8회 법제위원회 소위원회(질의회신집 발간 진도점검) 회의가 지난 9월 21일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질의회신집 발간 관련 최종점검에 관한 건이 논의되었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회의결과

- 제1호 : 질의회신집 발간 관련 최종점검에 관한 건
 - 원고작성에 대한 진도점검은 오늘날짜로 마감을 하고, 인쇄소에서 원고를 인쇄하기까지의 편집, 디자인 및 제본 등의 발간에 대하여 조종기 위원장, 박준승 부위원장, 유종희 위원의 책임하에 감수·확인하기로 함.

■ 제8회 회관건립백서발간위원회

제8회 회관건립백서발간위원회 회의가 지난 9월 13일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조경보완공사 감수에 관한 건과 회관 하자보수(1차)에 관한 건이 논의되었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회의결과

- 제1호 : 조경보완공사 감수에 관한 건
 - 회관 조경보완공사에 대해 공사현장을 육안 확인 점검을 실시하여 아래와 같이 공사일부를 보완 조정토록 하고, 신청된 공사 증도금을 지급토록 협의함.
 - 조경보완공사 최종 감수는 협회행사관 계로 10월 8일 이후에 실시기로 협의하고 준공시 관수설비 매뉴얼 및 준공사진첩을 공사업체로부터 제출받기로 함.
 - 조경보완공사 완료이후 조경시설 유지 관리 방안은 다음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함.
- 제2호 : 회관 하자보수(1차)에 관한 건
 - 시공자인 남흥건설에 1차 하자 보수내용 통보하고 조속한 시일내 현장을 확인하여 하자보수 공사계획을 제출토록 문서를 발송하기로 협의함.

▲기타사항

- 회관건립백서의 건교부장관 축사 게재가 불가함에 따라, 김진에 선진화위원회 위원장 축사만 넣기로 협의함.
 - 발간사 및 축사 게재순서는 현 회장 발간사, 이철호 전회장 회고사, 선진화위원장, 건축학회장, 가협회장 순으로 축사 게재
- 최선규 위원이 최종 수정된 원고를 검토 확인한 후 책자 인쇄제작을 진행하여 10월 협회 행사이전에 건립백서를 발간하기로 협의함.

■ 제8차 비상대책위원회 기획분과 회의

비상대책위원회 기획분과 회의(8차) 회의가 지난 9월 17일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기자설명회 이후 대외홍보 활동 후속계획에 관한 건과 신문광고에 관한

건, 홈페이지 개설에 관한 건, 방송사에 자료 배포에 관한 건이 논의되었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회의결과

- 제1호 : 기자설명회 이후 대외홍보활동 후속계획에 관한 건
 - 단기간 집중 홍보하는 방안으로 하며, 언론사 홍보 대행 용역 계약시 패널티 조건과 같은 구체적인 계약조건을 명시하여 추진하기로 함.
- 제2호 : 신문광고에 관한 건
 - 홍보대행사와 협의한 후 추진하기로 함.
- 제3호 : 홈페이지 개설에 관한 건
 - 정보위원회에 위임하기로 함.
- 제4호 : 방송사에 자료 배포에 관한 건
 - 현안이슈에 대한 자료를 요약정리하기로 함
 - 2007년 9월 28일(금) 14시에 협회 3층 국제회의실에서 회의하기로 하며, 참석자는 비대위 위원장 및 위원, 우리협회 이사 및 각위원회위원장, 서울시 구건축사회장, 서울시건축사회 간사로 함.

■ 제3회 비상대책위원회

제3회 비상대책위원회 회의가 지난 9월 28일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2차 워크숍과 보고이 논의되었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회의결과

- 제1호 : 2차 워크숍과 보고
 - 2차 워크숍과 보고
 - 경위 및 예상동향
 - 주요 활동
 - 언론사 홍보 용역계약 결과보고

▲기타 의견

- 비상대책위원회 업무가 단기간에 가시적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비상대책위원회 운영이 어려움. 따라서, 감희달 위원장의 사의는 적절하지 않으며, 대신 건설업체 설계업 허용 요구에 지속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저변 확대가 필요함.

- 건축기본법이 확정되면 건축기본법에 따라 건축사법이 개정되어야 하므로 현재 흐름이 건축사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음. 따라서, 지금 시점에서는 선부른 행동대응보다 추이를 지켜보는 것이 바람직함.
- '업역' 보다는 '공공성' 을 부각하여 대외적 커뮤니케이션 진행
- 비상대책위원회 운영에서 전담직원 및 연구원 확충이 필요함.
- 지금 자료로는 기자들 이해시키기도 어려움. 대상에 따라 맞춤형 설득노력 필요

■ 제2회 사무국장회의

제2회 사무국장회의 회의가 지난 9월 28일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2007 대한민국건축문화대제전 기본계획(안)에 관한 건, 건축사연수교육 개최 계획(안)에 관한 건, 건축물(유지)관리법 제정을 위한 실태조사에 관한 건, 전국건축사대회 세부실행계획(안)에 관한 건과 기타사항이 논의되었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회의결과

- 제1호 : 2007 대한민국건축문화대제전 기본계획(안)에 관한 건
 - 산업대전 전시참여업체에 적극 참여와 10월 2일 행사 개막식에 많은 회원 참석 및 전국건축사대회 회원 참석 독려 요청
 - ▷서울인근 지역건축사회에 적극 참석요청 및 수도권인근건축사회 버스동원 검토
 - ▷전회원을 대상으로 문자전송 및 전시회에 적극 참석홍보
- 제2호 : 건축사연수교육 개최 계획(안)에 관한 건
 - 산업대전 및 건축의 날 특별강연 등에 건축사연수교육을 포함시켜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 요청
 - ▷교육강의 내용을 동영상 촬영 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
- 제3호 : 건축물(유지)관리법 제정을 위한 실태조사에 관한 건

- 건축물(유지)관리제도의 개선방안연구에 따른 연구용자료이므로 건축물 지번, 위법사항, 사진자료 등을 요청
- ▷부산, 인천, 강원, 충남, 경북 건축사회에 추가로 실태조사자료 요청
- 제4호 : 전국건축사대회 세부실행계획(안)에 관한 건
 - 각 시도건축사회 회원들의 많은 참석을 위하여 사무처에서 적극적으로 홍보 및 참석유도를 요청
 - ▷명찰 등을 미리 배부요청 건의 (현장배부로 결론)

▲기타사항

- 「e-AIS 인터넷 건축행정 시스템」에 대한 문제점을 건교부에 건의 개선요청
- ▷T·F팀 구성 시 일선공무원, 실무직원 포함 건의

■ 제3회 건축의 날 집행위원회

제3회 건축의 날 집행위원회 회의가 지난 10월 1일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2007 건축의 날' 세부행사 담당위원 확정에 관한 건이 논의되었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회의결과

- 제1호 : '2007 건축의 날' 세부행사 담당위원 확정에 관한 건
 - VIP 의전관련 사항
 - ▷담당위원을 별도로 두지 않고 각 사무처 직원이 행사장 입구에서 의전을 담당기로 함.
 - 강연관련 사항
 - ▷초청강연과 관련하여 기술강연과 특별강연을 구분하기로하고 각각 강연 종료 후 감사패를 전달기로 함.
 - 리셉션관련 사항
 - ▷회장 인사말씀이후 축하인사와 건배제의를 겸하여 진행하기로 하며, 건배제 의는 행사당일 참석원으로 중 주관단체 전임회장께 부탁기로 함.

■ 제5회 교류협력위원회

제5회 교류협력위원회 회의가 지난 10월 10일 부산 비치관광호텔 3층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남북건축문화 교류관련 제안사항의 건, 2008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의 건, 건축사 등산동호회 예산 지원에 관한 건이 논의되었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회의결과

- 제1호 : 남북건축문화 교류관련 제안사항의 건
 - 남북건축문화 교류에 대한 다양한 접근 방법을 검토하고 적극적인 관심과 의견을 수렴키로 협의함.
 - ▷몽골과 북한과의 건축관련 교류에 대한 정보수집이 필요
 - ▷통일부의 의견 수렴이 필요
 - ▷교류사업의 범위 조절이 필요- 순수 문화사업, 업무영업이익관련 사업 등
- 제2호 : 2008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의 건
 - 원안대로 협의 함.
- 제3호 : 건축사 등산동호회 예산지원에 관한 건
 - 미술동호회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예산을 지원코자 협의함.
 - 향후부터는 지원사업과 예산편성을 검토하여야 하고 모든 회원에게 이익이 되는 지원사업으로 예산편성이 되어야 함.

2007추계학술대회 개최

(사)한국도시설계에서는 2007년 11월 3일 (토) 아름다운 도시경관으로 유명한 진주 경상대학교에서 '2007년도 추계학술대회' 를 개최한다.

이 학술대회는 도시설계분야의 전문학회라는 학회의 설립취지와 위상을 반영, 도시설계와 관련된 연구논문을 비롯하여, 도시설계관련 작품도 같이 발표하는 자리이다. 특히 이번 대회에서는 진주지역 도시경관 답사와 도시설계 실무 프로젝트를 발표하는 전문가 세션을 운영한다.

- 일정 : 2007년 11월 2일(금)~2007년 11월 3일(토)
- 장소 : 경상대학교 공과대학 406동 멀티미디어실
- 문의 : 한국도시설계학회 02-538-4596

2007 민예총 가을 건축강좌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이하 민예총)에서는 '건축에서의 「명품」을 읽자' 라는 주제로 2007년 10월 5일부터 2007년 11월 23일까지 강좌를 개최한다.

이번 강좌는 건축사를 서술하는 주요 방식이었던 통사적 시각을 벗어나, 시대를 뛰어넘는 모범을 창출했던 개별 작품, 혹은 그 작가와 장소에 주목하고자 한다.

동·서양 건축사 속의 명작을 찾아 창작과 비평이라는 두 가지의 관점을 공유하면서 꼼꼼히 해부함으로써 우리는 이 시대의 건축에 대한 열린 지평을 획득하는 일에 한 걸음 더 나아가갈 수 있을 것이다. 이번 민예총 가을건축강좌를 통해서 건축공간의 원형적 의미를 되짚어 보고, 원형의 의미를 근간으로 하여 구축되어진 건축공간이 지역적 차이, 시대적 차이를 통해 어떠한 공간적 특성과 반복

을 나타내는지를 발견해 보는 기회가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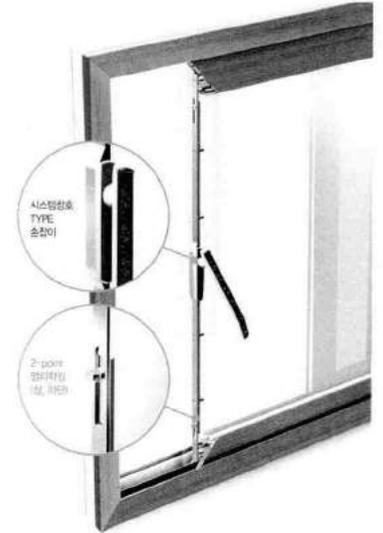
〈일정〉

- 10월 5일 : 르코르뷔제와 오귀스트 베레의 논쟁 / 김원식(미상건축사연구소)
- 10월 12일 : 아돌프로스-거침없는 논리와 특성없는 건축 / 정만영(서울산업대학교)
- 10월 19일 : 빛을 쌓은 콘크리트의 숨결 / 서현(SALT, 한양대학교)
- 10월 26일 : 도시, 문화 그리고 건축 / 조재원(O1 studio)
- 11월 2일 : 역사 속에 체득한 균형과 조화 - 몸으로 본 스페인 건축 / 김학철(한동대학교)
- 11월 9일 : Fast Facade의 도시 / 김주현(UJ architects)
- 11월 16일 : 표면과 이면 - 1920년대 중후반의 부르주아 근대주택 / 봉일범(국민대학교)
- 11월 23일 : 현대 건축의 New Order - 시그렘 빌딩 / 부상훈(진아건축도시)
- 개강 : 2007년 10월 05일 19:00 (매주 금요일)
- 장소 :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 194-4 하나로빌딩 901호(홈페이지 약도참조)
- 문의 및 접수 : 02-739-6854, <http://www.mingunhyup.or.kr>

KCC, 프리미엄급 발코니창호 'LS시스템 이중창' 출시

KCC는 최근 확대되고 있는 고급 발코니 확장용 이중창 시장을 겨냥한 고품격PVC재질의 'LS시스템 이중창' 을 출시했다.

이번에 선보인 신제품은 기능과 디자인 면에서 기존의 발코니 이중창을 업그레이드시킨 차세대 고품격 프리미엄 발코니창호이며, 다중?기밀구조와 중간 턱 시스템 등을 적용해 방음?기밀성능은 물론 개폐성, 수밀성능, 내풍압성 등을 한층 보강한 발코니 확장 전용 고기능성 창호라는 것이 KCC측의 설명이다. 'LS시스템 이중창' 의 또 다른 특징은 기존



일반 발코니창호를 2중으로 결합한 발코니 이중창과는 달리 내측에는 일반 슬라이딩 발코니창호를, 외측에는 고성능의 Lift Sliding 시스템창호를 접목함으로써 기능과 품격을 높인 점이다.

KCC 관계자는 "최근 발코니 확장 추세에 따라 이중창 적용이 일반화 하면서 제품의 고급화 추세가 뚜렷하게 나타났고, 이 같은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차세대 고급 발코니 이중창 시장의 대표 모델로 신제품을 출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Lift Sliding 시스템창호 : LIFT 기능의 특수 하드웨어 작동방식에 의해 개폐시 창짝이 레일위로 들어 올려져 열리게 되어 개폐력이 우수하고, 하부레일이 계단식 구조로 설계되어 우수한 수밀성을 확보한 시스템창호.

- 문의 : KCC 고객상담실
080-022-8200,
<http://www.kccworld.co.kr>

바로잡습니다

본지 2007년 9월호(통권 461) 76페이지에 게재된 바 있는 '근로복지공단 연수원'의 당선작의 건축사사무소를 '정연철 정회원 (주)종합건축사사무소 가람건축 + 한상묵 정회원 (주)SD파트너스건축사사무소'로 바로잡습니다.

2007년 건축허가 현황(8월)

■ 용도별

(단위 : 동, 제곱미터)

구분		당월			누계		
		2006년	2007년	증가율	2006년	2007년	증가율
계	동 수	14,606	18,497	26.6%	119,328	149,517	25.3%
	연면적	8,352,091	11,443,018	37.0%	88,971,980	82,627,566	-7.1%
주거용	동 수	4,595	6,044	31.5%	32,996	48,185	46.0%
	연면적	3,498,817	4,970,074	42.1%	34,800,997	28,741,965	-17.4%
상업용	동 수	4,570	5,699	24.7%	36,216	48,163	33.0%
	연면적	2,080,335	2,755,464	32.5%	22,310,200	22,776,421	2.1%
공업용	동 수	1,611	2,012	24.9%	18,360	16,209	-11.7%
	연면적	798,073	1,268,664	59.0%	11,429,488	11,213,688	-1.9%
교육및 사회용	동 수	861	1,055	22.5%	7,994	8,865	10.9%
	연면적	763,207	885,746	16.1%	8,103,506	9,051,974	11.7%
기타	동 수	2,969	3,687	24.2%	23,762	28,095	18.2%
	연면적	1,211,659	1,563,070	29.0%	12,327,789	10,843,518	-12.0%

■ 구조별

(단위 : 동, 제곱미터)

구분		당월			누계		
		2006년	2007년	증가율	2006년	2007년	증가율
계	동 수	14,606	18,497	26.6%	119,328	149,517	25.3%
	연면적	8,352,091	11,443,018	37.0%	88,971,980	82,627,566	-7.1%
철근 철골조	동 수	11,917	15,626	31.1%	104,197	125,219	20.2%
	연면적	8,084,115	11,146,918	37.9%	87,668,706	80,467,005	-8.2%
조적조	동 수	2,095	2,020	-3.6%	12,169	17,319	42.3%
	연면적	164,241	230,991	40.6%	978,847	1,525,614	55.9%
목조	동 수	532	691	29.9%	2,871	5,871	104.5%
	연면적	39,054	50,823	30.1%	257,301	484,588	88.3%
기타	동 수	62	160	0.0%	91	1,108	0.0%
	연면적	64,681	14,286	0.0%	67,126	150,359	0.0%

■ 시도별

(단위 : 동, 제곱미터)

구분		당월			누계		
		2006년	2007년	증가율	2006년	2007년	증가율
계	동 수	14,606	18,497	26.6%	84,512	149,517	76.9%
	연면적	8,352,091	11,443,018	37.0%	70,167,578	82,627,566	17.8%
수도권	동 수	4,400	6,344	44.2%	26,252	50,984	94.2%
	연면적	4,239,023	5,535,610	30.6%	31,273,379	37,621,885	20.3%
서울	동 수	645	959	48.7%	4,760	8,761	84.1%
	연면적	692,407	916,761	32.4%	7,379,162	8,861,006	20.1%
인천	동 수	390	625	60.3%	2,436	4,799	97.0%
	연면적	230,433	581,317	152.3%	3,170,967	5,482,969	72.9%
경기	동 수	3,365	4,760	41.5%	19,056	37,424	96.4%
	연면적	3,316,183	4,037,532	21.8%	20,723,250	23,277,910	12.3%
지방	동 수	10,206	12,153	19.1%	58,260	98,533	69.1%
	연면적	4,113,068	5,907,408	43.6%	38,894,199	45,005,681	15.7%
부산	동 수	433	387	-10.6%	3,368	4,265	26.6%
	연면적	740,760	230,912	-68.8%	3,496,934	3,182,035	-9.0%
대구	동 수	399	465	16.5%	3,158	4,403	39.4%
	연면적	151,715	807,256	432.1%	4,748,241	3,793,043	-20.1%
광주	동 수	260	309	18.8%	2,253	3,045	35.2%
	연면적	83,112	209,811	152.4%	1,875,049	2,166,391	15.5%
대전	동 수	286	300	4.9%	1,856	2,470	33.1%
	연면적	109,015	133,523	22.5%	1,547,692	1,469,503	-5.1%
울산	동 수	383	446	16.4%	2,232	4,908	119.9%
	연면적	105,747	313,135	196.1%	1,170,070	2,873,256	145.6%
강원	동 수	924	1,078	16.7%	4,619	8,494	83.9%
	연면적	433,479	591,691	36.5%	3,228,515	3,534,612	9.5%
충북	동 수	940	1,021	8.6%	4,893	8,707	77.9%
	연면적	337,932	374,333	10.8%	3,163,427	3,665,786	15.9%
충남	동 수	1,213	1,521	25.4%	6,003	11,427	90.4%
	연면적	457,899	691,860	51.1%	4,724,564	5,482,294	16.0%
전북	동 수	981	1,182	20.5%	4,552	8,455	85.7%
	연면적	260,983	423,987	62.5%	2,553,726	3,025,221	18.5%
전남	동 수	1,048	1,335	27.4%	5,091	9,761	91.7%
	연면적	301,483	353,030	17.1%	1,621,499	3,037,373	87.3%
경북	동 수	1,692	1,969	16.4%	9,148	15,668	71.3%
	연면적	665,893	880,755	32.3%	4,612,444	4,968,929	7.7%
경남	동 수	1,387	1,857	33.9%	9,090	14,515	59.7%
	연면적	416,174	807,251	94.0%	5,544,132	6,898,636	24.4%
제주	동 수	260	283	8.8%	1,997	2,415	20.9%
	연면적	48,876	89,864	83.9%	607,906	908,601	49.5%

건축사사무소 등록현황

(사 : 사무소수, 회 : 회원수)

2007년 8월말

구 분 건축 사회	개 인 사 무 소								법 인 사 무 소								용 역 사무소	합 계		비율(%)					
	1인		2인		3인이상		소 계		1인		2인		3인		4인							5인이상		소 계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합계	5,181	5,181	134	268	17	53	5,332	5,502	1,555	1,555	289	578	69	207	25	100	31	222	1,969	2,662	7	7,301	8,164	100.0%	100.0%
서울	1,108	1,108	38	76	8	25	1,154	1,209	869	869	183	366	44	132	13	52	19	136	1,128	1,555	6	2,282	2,764	31.3%	33.9%
부산	479	479	16	32	3	9	498	520	90	90	18	36	4	12	3	12	3	19	118	169		616	689	8.5%	7.9%
대구	418	418	24	48	6	19	448	485	65	65	17	34	8	24	0	0	2	11	92	134		540	619	7.5%	7.7%
인천	239	239	2	4	0	0	241	243	47	47	10	20	0	0	0	0	0	0	57	67		298	310	4.0%	3.8%
광주	217	217	1	2	0	0	218	219	35	35	6	12	1	3	2	8	3	20	47	78		265	297	3.6%	3.7%
대전	199	199	13	26	0	0	212	225	29	29	9	18	3	9	0	0	2	20	43	76		255	301	3.5%	3.7%
울산	169	169	8	16	0	0	177	185	16	16	3	6	1	3	0	0	0	0	20	25		197	210	2.7%	2.6%
경기	703	703	5	10	0	0	708	713	219	219	23	46	2	6	1	4	0	0	245	275		953	988	13.0%	12.2%
강원	166	166	2	4	0	0	168	170	21	21	3	6	0	0	0	0	1	5	25	32		193	202	2.6%	2.6%
충북	181	181	5	10	0	0	186	191	28	28	3	6	1	3	2	8	1	11	35	56		221	247	2.9%	3.0%
충남	180	180	3	6	0	0	183	186	38	38	4	8	1	3	3	12	0	0	46	61		229	247	3.0%	3.1%
전북	200	200	3	6	0	0	203	206	26	26	1	2	2	6	1	4	0	0	30	38		233	244	3.2%	3.0%
전남	142	142	0	0	0	0	142	142	9	9	1	2	0	0	0	0	0	0	10	11		152	153	2.2%	1.9%
경북	322	322	6	12	0	0	328	334	28	28	3	6	1	3	0	0	0	0	32	37	1	360	371	5.0%	4.6%
경남	357	357	8	16	0	0	365	373	26	26	5	10	1	3	0	0	0	0	32	39		397	412	5.5%	5.0%
제주	101	101	0	0	0	0	101	101	9	9	0	0	0	0	0	0	0	0	9	9		110	110	1.5%	1.3%

건축사회별 회원현황

구 분 건축사회	회 원				비 율	준회원
	건축사	2급	계			
합 계	8,164	10	8,174		100.0%	23
서울	2,764	3	2,767		33.9%	10
부산	689	1	690		7.9%	9
대구	619	0	619		7.7%	0
인천	310	0	310		3.8%	0
광주	297	0	297		3.7%	0
대전	301	1	302		3.7%	0
울산	210	0	210		2.6%	0
경기	988	2	990		12.2%	2
강원	202	0	202		2.6%	0
충북	247	0	247		3.0%	0
충남	247	3	250		3.1%	0
전북	244	0	244		3.0%	0
전남	153	0	153		1.9%	0
경북	371	0	371		4.6%	1
경남	412	0	412		5.0%	1
제주	110	0	110		1.3%	0

사무소형태별 회원현황

구 분	개인사무소	법인사무소	전임미처리	합 계	비 고
회 원 수	5,512	2,653	87	8,252	
비 율	66.80%	32.15%	1.05%	100%	
사무소수	5,340	1,960	-	7,300	
비 율	73.15%	26.85%	-	100%	



• Moriヤマ House-Ryue Nishizaw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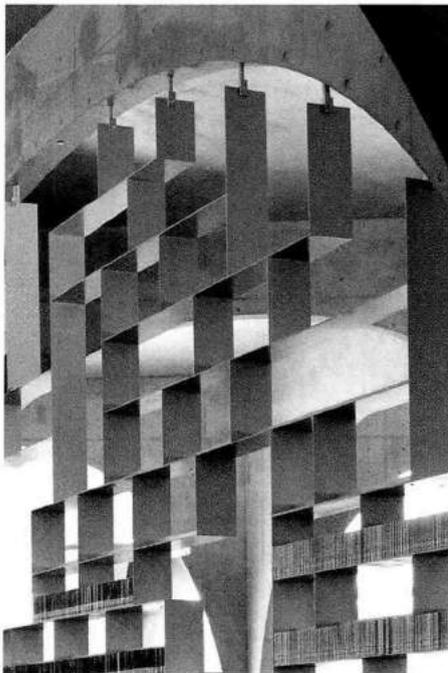
축 운동하는 니시자와의 이 작품도 시간이 지나고 아우라가 곁지면서 대량생산화된 주거 계획에 대한 도전이 주요한 모티브였음을 깨닫게 된다. 니시자와 본인도 더 이상 이 작품에서 형태와 구성을 언급하지 않는다. 유래가 없을 정도로 모리야마 주택은 주거시설의 유니트들을 분산시켜놓고 있다. 이 분리된 블록들은 상호침투하며 연대하며, 외부로 열려있으면서도 정서적으로는 방어적인 공간의 질을 만들어 내고 있다. 현재 주인인 모리야마는 10개의 유니트중에 4개를 사용하고 있는데, 다양한 동선과 접근방식으로 개인에 따라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하며, 이는 건축사가 이전에 카나자와에서의 작업의 연장선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시간이 지

난 지금 이 주거는 건축사의 의도가 유효했음을 보여주는 이상의 실질적 가치들을 만들어 내고 있다.

**Tama Art University Library
(도서관/일본 도쿄/건축사: Toyo Ito)**

타마 대학의 새로운 입구 근처 부지에 도서관을 의뢰받았을 때, 건축사는 현재 있는 조각 공원 아래에 건물이 숨어있는 것을 떠올렸다고 한다. 콘크리트 매스가 자리를 차

지하며 주변 컨텍스트에 교란을 일으키는 방식이 아니라 부드럽게 조응하는 방식을 생각한 것이다. 하지만 상징적인 관문으로서의 건축을 요구한 대학 측의 요구와 학과에 제한되지 않는 폭 넓은 커뮤니케이션의 필요에 따라 이토의 신작은 쉽게 독해 될 수 있는 고전건축의 언어를 동시대의 감성으로 전유하는 방식으로 전개되었다. 본질에 이르는 최소한만을 남김으로써 미니멀리즘과는 다른 이토의 새로운 접근이 곳곳에서 포착된다.



• Toyo Ito - Tama library

포이어 카페는 학생과 직원들을 위한 새로운 만남의 장을 제공하고 있으며, 북쪽으로 접근하다보면 관문을 연상시키는 아치가 곡선의 형태로 반복되어 부드럽게 방문자를 포용하는 파사드와 마주하게 된다. 여기서 평면상으로 곡선을 가진 북쪽 파사드는 실제로도 곡면의 유리를 사용함으로써 인해 그 곡선의 느낌이 더욱더 강조되어 있다. 간단한 형태 안에서 단순한 원칙하에 콘크리트와 유리는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으며, 고전적이면서도 콘크리트의 기술적 진보를 보여주는 얇은 구조재의 노출은 아치를 모티브로 했음에도 가볍고 경쾌하다. 전체적으로 이 건물은 본질에 대한 건축사의 새로운 관심을 드러내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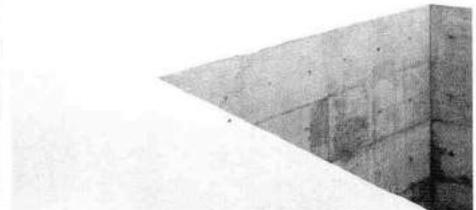
서, '동시대의 규범'을 향한 조용한 열망을 시사하고 있다.

Tateyama house
(주거시설/일본 타테야마/건축사: Sou Fujimoto)

수오 후지모토는 2005년말 Rivew 지가 선정된 Emerging Architecture에 두 개의 프로젝트가 선정됨으로써 자신의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다. 그 이듬해에는 홋카이도의 아동 치료시설로 3개의 본상 수상작에 선정되었으며, 의욕적으로 작품이 만들어지고 있는 패기만만한 젊은 건축사이다. 그의 건축은 대지와 형태에 대한 섬세한 감각의 솔

직한 표현이 두드러지는데, 좀더 심화된 방식이 타테야마 주택에서 확인된다. 가지를 뺀 듯한 큐브들의 연결은 대지와 경관에 대한 예민한 건축사의 신경망을 느끼게 하며 각 실들은 고유의 경관과 느낌들을 가지고 있다. 주방과 서재, 욕실이 각각의 분기된 가지의 끝에 위치하며, 한판으로 처리된 유리 입면은 시각적 명쾌함을 극한으로 창출하고 있는데, 특히 바다를 보고 있는 응접실과 주방에서의 뷰는 매순간 드라마틱한 변화를 보여준다. 프레임 없는 유리벽에 홀로 강조되어 있는 입구 로비측의 도어 프레임은 천장에서 떨어지는 빛과 함께 진입부에 특별한 위상을 부여하고 있으며, 톱라이트에 의한

• Sou Fujimoto - Apartment & Tateyama House



채광방식은 침실부분에서도 반복되어 중심적인 공간을 구분하고 있다. 태평양을 마주 보며 즐길수 있는 욕실은 응접실·주방에서와는 다른 정제된 바다를 실 안으로 끌어들이고, 응접실 바닥은 다다미로 처리되어 일본적 전통을 유지하고 있다. 섬세함과 대범함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신인은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으며 차기작을 기대하게 만든다.

21_21 Design Site Museum
(전시시설/일본 미드타운/건축사: Tadao Ando)

21_21 Design Site는 세명의 유명한 디자이너-이세이 미야케(의상), 타쿠 사토오(그

래픽), 나오토 후카사와(산업디자인)-의 지휘하에 진행되었는데, 대중들에게 디자인의 중요성을 일깨우기 위해서 였다. 초기의 계획안보다는 작은 부지에서 진행되었지만 전시 시작 20일 만에 4만명이 방문을 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명망있는 디렉터 이외에도 이 건물을 건축한 디자이너 또한 디렉터에 못지않은 지명도(일반인이 다 아는 건축사가 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와 명예를 누리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타다오 안도이다. 40년이 넘는 기간동안 그에게 있어 좋은 디자인은 대지에 천착하여 그 특성을 공간에 구현하는 것이었다. 그의 언어는 상징적인 것이되었고, 특유의 스타일이 되었으며 대량

복제되었다. 최근 건축을 접하는 이들에게 노출콘크리트는 코르뷔제보다는 안도에 가까운 것이다. 이 건축은 작가가 자신의 스타일의 완결을 느꼈을 때, 스타일과의 거리를 자유롭게 콘트롤 하게되는 그 상태가 타다오 안도에게도 이르렀음을 느끼게 한다. 근작을 통해서 다소 산만한 모색을 하는 것이 아닌가 했던 우려는 집착에서 관조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에 불과했음을 건축사는 작품을 통해 증명하고 있다. (글/김훈/서울대학교 박사과정 수료/선문대학교 계약직 교원, 부천대학교 출강) ㉡

• Tadao Ando- 21_21 Design Site Museum

